

치느니 할수있니까

수기·단편소설

2018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중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낸 수기와 단편소설 분야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한 데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기와 단편소설 공모에는 약 900여 편이 접수되었으며, 한편 한 편이 모두 소중한 작품들이었기에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읽어가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17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결과는 OECD 내에서 35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아직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올해로 2년이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행동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청렴 수기와 단편소설 공모전에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작품은 우리 사회를 보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귀중한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집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수기 16편과 단편소설 7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입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책자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청렴'의 아름다운 가치가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contents

2018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심사평

사연수기	06	김현탁(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07	이정영(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08	차윤옥(시인, 한국문학발전포럼 사무총장)
단편소설	09	김경옥(작가)
	10	서원극(소년한국일보 편집국장)
	11	장영우(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사연수기

대 상	공직부문 14	홍성대 위대한 유산
최우수상	일반부문 20	변재영 먼지떨이 인생의 부활
우 수 상	일반부문 26 공직부문 30 공직부문 36	김지아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 장경수 할 수 있으니까 류호진 아버지의 편지
장 려 상	일반부문 42 일반부문 48 공직부문 54 공직부문 59 공직부문 65	서채연 치킨쿠폰과 손 편지 이은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원혁 대위님, 저희 제품 좀 써주세요 이병희 내 마음 속 엄한 순경 김성호 리더의 품격과 청렴도와의 관계
입 선	공직부문 71 공직부문 77 일반부문 83 일반부문 88 일반부문 94 일반부문 99	전만규 청렴으로 이어진 인연 이교회 변화의 마중물 이남용 스포츠의 발전은 '청렴'으로 부터 최진수 아버지의 명 최현주 나의 자존심은 얼마? 구자준 일상의 순서를 이어가다

단편소설

대 상	106	류보선 중독
최우수상	125	이 근 미수취소액환(未受取少額換)
우 수 상	137 148	박달용 해 그림자 조성진 날개와 그늘
장 려 상	159 175 188	김근수 뒤늦은 축하 김경락 다금바리 지승룡 아버지의 회초리



심사평

사연수기

김현탁(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사회를 밝히는 등불의 이름으로

수기의 기본 요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승화하여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만 거쳤다고 해서 수기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난관 극복 이후, 변화된 모습이 타인의 귀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청림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위대한 유산'은 아버지의 야합하지 않은 결벽성이 결국, 공직자로 살아온 작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것은 공직생활에 확실하게 청렴성을 지켜야하는 교훈이 되었다는 잔잔한 감동을 주어, 물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유산으로 대대손손 이어져야 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먼지털이 인생의 부활'은 공중전화의 동전을 모아 불입하는 일을 하는 작가가 동료의 부정한 제의를 뿌리치고 정직하게 수급하였더니 그 사실을 안 상급자가 재계약을 해주었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그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유혹을 뿌리치고 땀땀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작가의 정신이 한층 돋보인다. 청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청량제이다. 산소같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작은 일 하나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신선한 공기가 된다. 그 공기는 여름날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다만, 이 수기가 읽는 이로 하여금 일회성이 아닌 가슴을 파고드는 절절한 표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외 입선 작품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 부당한 것을 요소요소 에서 잘 극복해 주었으나 문장 갈피에 감동적 표현이 부족하여 입선에 머무른 작품이 많아 안타깝다. 수기 작품이 문학작품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의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유연성과 표현의 있어서의 상징과 비유를 함유하고 있을 때, 진가성이 더 돋보일 수 있다. 이번 청림수기에 응모한 응모자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바른 일을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온 누리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등불처럼 활활 타오를 것이다.

사연수기

이경영(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청렴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읽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악처럼 버티고 있는 청탁 문화와 적당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혼자만 잘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망설이는 가운데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를 이겨내고 상대방까지 설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용기와 신뢰가 이제는 하나씩 쌓여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란 기대도 가지게 되었다. 대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응모된 작품 중에는 더러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에 오히려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또한 상대방의 청탁을 거절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심사자들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탁을 거절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이 갖는 청렴의 수용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점은 이 공모전의 본래 목적을 상기해보면 쉽게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두가 청탁에 대해 이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의 작품들은 이에 대한 처리를 무리 없이 하고 청탁한 대상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딱딱한 설명의 글들도 더러 보였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얘기함으로써 공감의 차원에 이르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 상위에 링크된 작품들은 적지 않은 순위 다툼이 있었음을 명기해둔다.

심사평

사연수기

【 차윤옥(시인, 한국문학발전포럼 사무총장) 】

응모한 작품들은 모두 '청렴'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공직 부문에서는 직군별로 소재 선택이나 경험이 유사했다. 수기는 여건이 같으면 내용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소재가 비슷비슷하고 대부분 문장력도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중요한 건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가치로 승화시키느냐,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의 수준은 큰 편차가 없었고, 평이한 수준의 소재 선택은 일반 부문 공모가 조금 더 참신했다. 표현이 서툴지만 진심이 듬뿍 담긴 글을 읽을 때는 반갑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는 구성, 문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직부문의 <위대한 유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매일 밥을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것은, 농부가 정직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할아버지의 정성에 대한 소신에도 공감한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우연히 발견한 쌀에 대한 소신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기본으로 삼은 아버지를 이해하며 마음의 풍년을 기원하는 생각은 칭찬받을 만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정직'을 위대한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돋보였다.

일반 부문의 <먼지떨이 인생의 부활>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인생의 고비마다 셋길을 찾는 요즘 '진실과 정직'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며 편법과 불법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처세이고, 기술인 양 호도하고 있다." '정직'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이 주어진다. 모든 일은 사필귀정이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시기에도 끝까지 '정직'을 택한 자세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주인공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단편소설

【 김경옥(작가) 】

올 해 투고된 청렴 관련 단편소설의 응모작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 같은 생생한 소재들을 취해 재미와 감동을 주는 글 솜씨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많은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삶과 일터 속에서 한 번 쯤은 겪었음직한 불의하고도 비양심적인 일들에 대해 제법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글로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내세워 각자 그 상황에 저항하면서 양심과 청렴을 지켜나가려는 정신을 글에서 엿볼 수 있어, 한 편 한 편 매우 몰입하며 즐겁게 읽어나갔다.

단편소설 부문의 심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주제에 적합한지, 또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내용인지, 또 구성력이나 표현력, 참신함 외에도 콘텐츠 제작 및 활용도 등 여러 가치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며 작품을 가려냈다. '청렴'이라는 주제가 꼭 대단한 권력과 맞물린 특별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하찮게 여기며 지키지 않은 원칙 하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패되고 그 작은 빌미로 인해 이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악의 씨앗임을 각성하게 해주는 공감되는 작품들이 많아 사실 몇 작품을 뽑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감동으로 다가오는 작품들과, 또 소설적 구성을 통해 극적인 사건 전개, 또 반전의 묘미를 통한 감동적인 결말과 통쾌함을 안겨주는 작품들에 마음이 갔다. 또 상대에게 쉽게 던진 말 한 마디가 양심을 파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든 음료 한 병이 부패의 늪으로 빠지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사건 전개가 자연스럽고 결말처리가 감동적인 작품들에 점수를 줬다.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로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작품들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유혹의 손길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올곧은 신념 하나를 잘 지켜내는 것이 결국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때로는 인명 사고를 막아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많은 응모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청렴 공모 수상작들은 우리 사회의 청렴을 향한 열망에 한 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심사평

단편소설

서원국(소년한국일보 편집국장)

‘청렴’.

국어사전에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청렴의 의무’, 한 조직 혹은 개인의 청렴한 정도를 나타낸 지수가 ‘청렴 지수’이다. 그런데 청렴은 꼭 공직자에게만 들어맞는 게 아니다. 올해 국민 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단편 소설 분야에 응모한 작품만 봐도 그렇다. 공항의 납품 비리, 정치권의 돈 세탁, 군대 사회에서의 비리, 친구 간 불공정한 거래,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잘못된 관행 등등... 예심을 거쳐 올라온 21개 작품 모두가 공직 사회에 머무르지 않고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경험 혹은 픽션을 토대로 짜임새 있게 잘 표현해 놓아 우열을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도 수준이 고른 편이었으며, 특히 본심에 오른 작품 중 학교와 공항, 군대 등 소재가 비슷한 내용이 여러 편 있어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런 가운데 작품이 소재 및 구성이 얼마나 더 참신한가,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가 등의 잣대를 두고 좀 더 눈여겨 살폈다. 그러면서 즐거리 위주의 글, 설명식의 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이 아닌 어딘가 끼워 맞춘 듯한 어색한 글은 우수작 후보에서 뺐다. 이런 가운데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한 식품회사의 비리를 파헤친 내용의 대상 수상작 ‘중독’은 물이 흐르듯이 술술 읽히는 게 큰 장점이다. 작품 속 용어를 빌리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연이나 지연은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청렴이라는 주제와 잘 엮은 수작이었다. 또 읽는 이가 다음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넘쳤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는 듯한 일부 표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우수상의 ‘미수취소액 환’도 충분히 그 뒷상을 받을 정도의 작품이었으나, 형식의 틀에서 좀 더 자유롭지 못하고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밀렸다. 이를 보완한다면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심사하면서 우리사회가, 우리 이웃이, 정직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 이런 좋은 생각과 청렴을 향한 노력들이 더 투명하고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한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응모한 분들에게는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단편소설

장영우(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다. 다시 말해, 소설은 ‘사실(事實)’이 아니면서 사실처럼 여겨지는 이야기다. 소설쓰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그럴 듯하게 꾸며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쓰면 편할 텐데, 그것을 가공(架空)하면서도 사실처럼 보이도록 해야 하니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내가 살아온 삶을 소설로 쓰면 몇 권은 될 거야”라고들 하는데, 그들의 삶을 기록해도 소설이 안 되는 것은 허구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소설은 체험과 상상을 잘 버물려 실제와는 전혀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작업이다.

‘청렴’을 주제로 한 소설을 읽으면서 수기나 수필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은 이 주제를 소설로 형상화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응모자들이 소설과 수기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체험을 거의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청렴이란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직업이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이어서인지 실제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욕석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이 제일 고심했던 것이 이 점이었는데, 가급적 소설적 구성이 분명한 작품을 선별하여 그 중에서 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그 결과 유치원 급식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식품업체 사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간부 수사관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반전이 뛰어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 전원이 합의를 보았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강조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청렴일 터이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크고 작은 유혹과 청탁을 과감히 뿌리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렴을 주제로 글을 쓰다보면 좀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될 터이다. 응모작을 보며 우리 국민의 글쓰기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흐뭇했다.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공모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장르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그에 맞는 글쓰기를 하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으리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연수기





위대한 유산

공직부문 홍성대

아버지는 지천명이 넘어 쌀농사를 시작한 늦깎이 농부입니다. 2002년 여름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본연의 사업을 정리하시고 그달 고향으로 귀농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선택에는 많은 고민이 따랐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할아버지 슬하의 8남매 중 장남으로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 때문에 모든 순위에서 밀려났던 7남매들에 대한 미안함을 항상 가지고 계셔서 할아버지에 이어 고향을 지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아버지와 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향은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었고, 예전부터 기후와 토양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쌀농사에 적합하여 곡창 지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생쌀에서도 구수한 향이 나서 밥맛 또한 좋았고, 그만큼 쌀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에서도 아버지에게 쌀농사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일손이 부족할 때 간간이 논일을 거드시며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그 외 쌀농사의 지식은 전무한 상황으로 시시때

때로 변하는 벼의 상태에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하셨다. 그럼에도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잘 극복하셨지만,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은 늘어 가는 주름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눈에 정성을 다하셨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 그 정성을 말해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쌀은 항상 변함없는 맛에 질리지도 않는 것이 주식인 밥을 만들 수 있고, 떡과 술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매력에 있어 더욱 쌀농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해 여름 태풍 루사를 몰고 와서 논 일부는 유실시켰다. 그나마 유실이 적었던 논에는 벼의 도복으로 초보 농부의 마음까지 할퀴어 버렸다. 나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부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가를 이용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다. 논으로 흘러든 흙들을 펴내고, 무너진 논둑을 다시 세우며 쓰러진 벼단을 곳곳이 묶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 모습에 아버지는 기특해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다시 세우고 다져 놓은 논둑에 걸터앉아 찻을 먹으며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쭙어 보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할아버지는 70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지의 말에는 내일의 걱정과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냉수로 입을 행구시고 질퍽이는 논으로 다시 들어가 일을 시작하셨다.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아버지의 허름한 티셔츠는 그동안 잘 다려진 셔츠에 넥타이를 매던 모습보다 멋지게 보였고, 시큼한 땀 냄새는 즐겨 뿌리시던 향수보다도 더욱 향기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버지를 위해 땀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음 날에도 동이 트기 전에 논으로 나가셨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잘 쉬었니? 벼는 주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란다고 하더구나.”

묵직한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땀을 식히실 때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수년을 끊으셨던 담배를 피우시며 그윽하게 논을 바라보셨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되던 사업을 그만두고 아직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논의 쓰러진 벼를 보시면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다음 날 짧았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고, 매일 아버지께 안부를 전하며 가을걷이에 맞춰 휴가를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렸다.

이후로 아버지는 부족한 일손을 동네 어르신들과 품앗이를 하며 메우셨다. 이른 가을 할아버지의 49재를 지내고 나니 밤낮의 기온 차로 논에는 밤이슬과 아침 안개가 생겼고, 살아남은 벼들은 아버지의 정성을 아는지 씨앗이 굵어지며 잘 여물고 있었다. 10월이 되면서 이미 지방에서는 첫 벼 수확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상강이 오기 전에 벼를 수확하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 시기에 맞추어 휴가를 내고 일손을 도우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 생각했던 것보다 벼들이 잘 자랐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께서 시작을 너무 잘해 놓으셔서 잘 자란 것 같구나”

일부 농가는 추수 후에 남은 벼짚을 축산 농가에 팔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벼짚을 팔지 않으시고 퇴비를 만들어 땅이 얼기 전에 밑거름을 치고 갈이를 해 놓으셔서 땅심을 높이셨다고 한다. 그래서 벼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 태풍에도 잘 견뎌 준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보통

1마지기 논에서 쌀 4가마니가 나와야 풍년이라는데, 할아버지의 논에서는 2가마니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성이 부족했다며 할아버지께 면목이 없다고 하셨지만, 10가마니가 나와도 손색이 없었던 아버지의 정성을 분명 할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며칠간의 추수를 마치고 아버지는 그동안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동네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다. 한분 한분께 막걸리를 올리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어르신들 덕분에 부친께서 시작하신 농사를 무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네 부친 고집은 말도 못해! 매년 조합에 계약한 양을 못 채우셨어.” 한 어르신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을 보태셨다.

“고집이 밥 먹여 주나? 농부들도 시대를 따라가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조합에서는 지역 농민들과 그해 쌀의 수확량을 판단하고 계약한 뒤, 추수 후 생산된 쌀을 통합으로 거두고 도정하여 고향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약 조건을 채우지 못하셔서 매년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아버지께 할아버지처럼 괜한 고집으로 손해 보지 말고 이익이 남는 쌀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특히 이번과 같이 태풍으로 동네의 평균 수확량이 적을 때는 더욱 함께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설득하셨다. 일부 농민들과 도정 공장이 조합과 계약한 양을 채우기 위해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값싸게 사들인 뒤, 고향에서 생산된 쌀과 7:3의 비율로 섞어 조합에 공급하고 있었다. 당시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조합 시스템의 허점을 이

용한 일부 농가와 도정 공장이 부당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긴 시간의 설득에도 정중히 사양하셨다. 어르신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대를 이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 힘든 농사를 지으려 하나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취기 오른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나는 올해 수확량도 좋지 않았고, 앞으로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뵈어야 하는 분들이라 동의를 안 하시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자개함을 내게 건네시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고 담배를 피우시려는지 밖으로 나가셨다. 자개함 안에는 고이 접은 몇 해 지난 달력들의 낱장들이 있었다. 그 낱장 뒤편에는 장문의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쌀은 항상 변함없는 맛에 질리지도 않는 것이 주식인 밥을 만들 수 있고, 떡과 술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더욱 쌀농사를 잘하고 싶다. 조상님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직접 손매기를 하시며 잡초를 뽑으셨고, 일렁이는 푸른 벼들을 보며 풍년을 기원하셨다. 아이 하나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한 동네가 정성을 쏟아야 하듯이 쌀농사도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고 키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쌀농사도 그저 정성만 쏟고 지켜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만큼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잘 자란다. 그래서 농사에는 정성이 있어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밥을 매일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삐뚤삐뚤 적혀 내려간 글에는 할아버지의 70년 쌀농사의 소신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 왜 쌀농사를 잘 짓고 싶으셨는지 그때서

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가을걷이가 끝나고 겨울을 준비할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소식을 매스컴으로 접하게 되었다. 몇몇 지방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쌀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농민과 판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우리 고향 역시도 경찰 수사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결국 수년간 혼합미를 고향의 쌀로 둔갑시켜 조합에 공급한 고향의 농민들이 적발되었고, 그 부당 수익은 2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 사건은 고향 쌀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우연히 발견한 그 메모가 귀농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떠한 유혹과 인고의 시간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신을 갖게 됐던 이유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이익을 좇으려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이미 우려하셨고, 주변의 유혹을 선한 고집으로 이겨 내셨던 것 같다.

또한 우리들에게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의 풍년을 더욱 바라고 계셨던 것 같다.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푸르게 일렁이는 벼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매년 풍년이 오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날 이후로 선한 고집의 소유자가 최후에 웃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정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잘 지켜서 마음에 굴곡이 없는 청렴한 군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지떨이 인생의 부활

일반부문 변재영

고향 숲에 든다. 반백 년 지기 노송이 안부를 물어 온다. 파님은 건강하냐고. 순간 뜬금없는 우환에 내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던 악몽이 되살아나 가슴팍에 모래바람을 일으킨다. 신혼 시절이다. 돌잡이가 앓는 중병을 감기로 오진한 시골의 늙은 의사는 닳새를 허비한 후에야 큰 병원으로 가 보라는 처방을 내렸다. 토끼 심장으로 찾은 대학 병원의 진단 결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하루 이틀만 늦어서도 생명이…….”

호되게 나무라는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듯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하얘진다. 아기의 병명은 치사율 80%라는 ‘결핵성 뇌막염’이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목숨 부지도 감지덕지한 일이었다. 전생에 지은 짓값일까? 암울한 처사에 눈물만 흘렸다.

결핵이 갖는 전염성 때문에 음침한 독방에 격리되어 2년이라는 긴 치료가 시작되었다. 단독 병실 사용에 의료보험이 6개월만 허용되던 때라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 갔다. 선친이 남긴 자갈논 몇마지기를 쏘아부어도 모자랐다.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만큼 다급해진 나는 대구 변두리에 있는 판자촌에 사글세방을 얻어 거처를 옮기고는 직장을 구하러 나섰다.

그때 가깝게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공기업인 전화국의 잡급직(계약직)을 제의받게 되었고, 찬밥 더운밥 가릴 입장이 아닌지라 기꺼이 승낙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지인은 내게 “성실하게만 일하면 정식 직원도 될 수 있다”고 은근슬쩍 귀뜸을 해 주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조직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리라.

보직은 ‘먼지관리요원’이다. 인격은 없다. 그냥 한낱 청소 도구로 보면 된다. 속없는 직원들은 면전에 대놓고 “먼지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는 일은 기계실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건비 명목일 뿐 실제 업무는 공중전화에서 거둬 온 동전을 세는 일이다. 그 작업장을 ‘주화사산실’이라고 불렀는데 3명이 근무했다. 외근 직원들이 공중전화를 순회하며 집금통(돈통)을 거둬 오면 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전을 꺼내어 공중전화 번호와 액면별로 사산하고, 다시 빈 통을 봉인하여 교부하면 된다.

바닥을 헤매는 우리 집의 경제력과는 달리 당시 공중전화는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절이라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단했다. 고객이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투입하고 통화를 한 후 남은 돈이 백 원 미만이면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 돈을 ‘낙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돈만 해도 당시 전국에서 한 해 동안 14억 원이나 발생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하면 이 불로소득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고 하지 않던가. 이 돈이 유혹의 덫이었다.

출근한 지 보름쯤 지났을까. 옆방에서 일하는 선배 직원이 퇴근길에 술 한잔하자고 제의를 해 왔다. 그간 업무도 살뜰하게 알려 주고 해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려는 참인데, 내심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승낙을 했다. 여직원은 빠지고 둘이서 선배 직원이 종종 간다는 소주방을 찾았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얼큰해진 선배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변 주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해요. 공중전화는 낙전과 불량 주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금된 전액을 불입할 필요가 없어요. 오백 원짜리 동전 한 판(50개) 정도는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전을 모두 불입한다고 해도 믿어 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어제오늘 일도 아닌지라…….”

주인 없는 그 돈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게 대수냐며 ‘좋은 게 좋다’고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 줄 것을 은근히 내비쳤다. 설사 그 금액이 고봉밥에서 티스푼으로 한 숟갈 들어낸 밥풀처럼 소액에 불과할지라도 뽕땅은 분명 범죄다. 그 뽕땅한 돈으로 술을 샀다면 그 술을 같이 마신 나 역시 공범이 아닌가. 갑자기 술맛이 툭 떨어지고 취기에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밑바닥 일을 한다고 사람까지 먼지떨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상대가 민망하고 반감도 가질 수 있기에 참았다.

다음 날이다. 동전을 세는 나의 뇌리가 복잡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평생 납작 보리쌀 밥을 먹어야 한다”며 울먹이던 아내의 볼멘소리가 현금이 주는 유혹과 버무려져 자꾸 내 귀를 잡아당겼다. 어제만 해도 일말의 가치도 없다며 귀를 씻고 싶었던 말들이 아닌가. ‘주인 없는 돈’, ‘동료와의 균형’, ‘좋은 게 좋다’는 어휘들이 가슴을 흔들었다. 분명 나는 생계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할 병원비,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쥐꼬리 봉급, 일수라도 짝여야 할 판국에 오히려 잘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양심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될 것을……. 아니다, 이내 생각을 바꾼다. 일순 차가워진 머리가 내 가슴을 비집고 들어온 악마의 손을 삭둑 잘랐다.

“부정과의 결탁은 애초 작은 돈으로 시작되는 거야. 이깟 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남들 다 하는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부정을 끼워 넣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패의 수렁에 빠져들고 마는 거지.”

나는 독백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순간이지만 죄악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헤맨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 마음에도 그런 옳지 못한 어둡고 추잡한 구석이 있다는 게 싫었고, 동네 마지막 훈장으로 청렴과 예절을 삶의 숙제처럼 곳곳이 지키며 살다 가신 아버지의 도끼눈이 어른거렸다. 성인군자는 못 되어도 도둑으로는 살지 말자는 내 삶의 신념이 고작 동전 몇 푼에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그 후로 선배 직원이 종종 퇴근길에 술자리를 권했지만, 나는 딸아이의 병간호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왕따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내가 뽕땅을 하고 있다는 추문이 나돌았다. 억장이 무너졌다. 주객을 전도시킨 축덕공론의 진원지야 불을 보듯 뻔했지만, 무작정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닌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만한 별이터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냥 오명을 뒤집어쓰고 끝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허문에 휘감긴 나는 괜히 마음이 불안하여 불면증이 생겼다. 이 정도 소문이면 이미 관리자도 알고 있을 터였다. 사무실에서 호출만 하면 금시라도 뽕땅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만 깨끗하면 그만이지’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내년에 있을 재계약 때까지 버텨 보기로 했다.

지옥 같은 나날 끝에 재계약 날이 왔다. 나는 사물함을 비울 보자기를 아내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출근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이상 근무할 일은 만무했다. 소문의 진위를 알아낼 방법도 없는

마당에 낚들 현금을 주무르는 자리에 손버릇 나쁜 사람을 그냥 두겠는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평소에 관리자에게 소주라도 한잔 대접할 걸 그랬나?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나의 대쪽 같은 성격을 탓해 보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었다.

국장실에 세 사람이 나란히 불러가 앉았다. 차 한 잔을 코로 마시고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때 국장님이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다.

“인력 감축 때문에 세 분 모두 재계약을 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네. 올해는 정규직 한 명과 두 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함세. 변 주사가 두 몫으로 열심히 일해 주게나.”

뜻밖의 결과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추문으로 탈락 일순위인 내가 그들을 제치고 재계약된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일 년 통계로 완성되는 ‘낙전발생률’이라는 투명한 재계약의 잣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소급도 조작도 불가능한 데이터였다. 마지막 한 닢의 동전까지 누가 보든 말든 묵묵히 불입한 내 양심의 승리였다.

그로부터 5년 뒤 나는 청렴과 결백을 무기로 내부 공채를 거쳐 정규 직원이 될 수 있었다. 인생의 고비마다 샅길을 찾는 요즘 ‘진실과 정직’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며, 편법과 불법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처세이고 기술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고 ‘정직’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진리다. 나랏돈을 뺑뺑한 국정 농단의 말로는 지금 어떠한가. 세금으로 해 입은 억대의 웃은 이미 칙칙한 수의로 변했고, 뇌물로 받은 금불이는 자신을 묶는 은팔찌가 되어 번득이지 않는가.

돌이켜 보면 한 푼의 돈이 아쉬웠던 그때 돈보다 정직을 택한 덕에 내 먼지떨이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처럼 5%의 기적으로 중병을 극복한 딸내미 역시 투명한 삶으로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합창하며 마지막에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 주는 보상이라고 나는 감히 믿고 있다.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

일반부문 김지아

중학교 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놀란 일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친구는 “그럼 돈 많이 버시겠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유복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일하시는데도 자식들 단과 학원 하나 보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직업이라니, 내가 왜냐고 묻자 친구는 “공무원이면 뒷돈 많이 받잖아”라고 당연한 것을 모르냐는 듯 대답했다. 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생일에 생크림 케이크가 배달되었을 당시 나는 겨우 여섯 살이었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다. 배달원은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서 있었다. 어머니는 머뭇거리다가 일단 배달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케이크를 받아 식탁에 올려놓았다. “안나하해요.” 언니와 나는 배달원에게 환영 인사인지 작별 인사인지 모를 말을 내뱉고는 식탁으로 달려가 케이크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손잡이 부분의 비닐을 통해 본 케이크는 황홀했다. 하얀색 크림이 디즈니 성의 지붕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빼곡히 윗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크림 지붕들 사이에는 귤, 키위, 복숭아 등의 통조림 과일들이 설탕 옷을 입고 윤기를 뽐내고 있었다. 언니와 나는 침만 꼴깍 삼키며, 아버지가 얼른 돌아와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그날 꽤 늦으셨다. 언니와 나는 잠들 뻔한 것을 겨우 참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케이크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드디어 아버지가 케이크를 꺼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상자를 열어 케이크를 집어넣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도 대지 말고 뒤. 전화해서 내일 다시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나는 크게 실망했다. 199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 케이크는 꽤나 귀한 것이어서 내 생일날에도 유치원에서나 한 조각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물며 생일 축하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아버지 생신이니 갑작스레 찾아온 그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나는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다. 내일 다시 가져가 봤자 딱딱해져서 아무도 못 먹을 텐데. 버릴 바에야 우리가 먹는 게 나운데. 그런 간단한 사실도 모르는 아빠가 참 야속했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케이크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독이 들었을지도 몰라. 나는 케이크를 포기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았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협에 빠져 있는 것이다. 케이크는 그쪽에서 보내온 함정으로 똑똑한 아버지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누구도 손대지 못 하도록 엄격하게 말한 것이리라. 나는 그렇

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라 케이크에 독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컸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던지시 그때 일을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그 케이크 밑바닥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가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케이크 밑에서 봉투를 발견하여 손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의 허무맹랑한 상상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독은 케이크 속이 아니라 케이크 밑 봉투 속에 부정이라는 형태로 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 타입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돈 버는 일에도, 집안을 살피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한량이었다고 했다. 할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시느라 학비는커녕 매일 수제비를 마음껏 먹을 형편조차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돈조차 없어 입시를 포기하고 독학으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다.

“내가 첫 출근을 하던 날, 점심에 식당에서 고깃국이 나왔어.” 아빠는 공무원이 얼마나 멋진 직업인지를 설명할 때면 항상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 그 뒤로는 공무원은 해외로 출장도 갈 수 있어, 마음껏 교육도 받을 수 있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등등의 좋은 점들을 실컷 나열하고는 그러니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공무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했다.

꼭 고깃국이 아니었더라도 아버지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일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이야기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에 실린 힘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뒷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부정을 저지르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1990년대는 촌지라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될 정도로 뇌물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된 공무원이었기에 괜한 부정으로 그 자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으리라. 사실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친구들이 방학 때 해외로 가족 여행을 다녀올 때, 맞지도 않는 언니의 큰 교복을 물려받아 입어야 했을 때, 비싼 학원비 때문에 미술을 포기해야 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양심을 포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버지가 지켰던 청렴함은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복보다, 새 교복을 입는 기쁨보다, 미술학원에 가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던 것 같다. 찰나의 즐거움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퇴색하지만, 청렴한 아버지를 둔 것은 평생 안고 갈 자랑스러움이기 때문이다.

회사원이 된 지금, 나도 가끔 부정의 유혹을 받는다. 회사 앞에 찾아온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고 미팅했다는 거짓말로 영수증을 청구하고 싶은, 어찌다 늦게 일어났을 때 아프다는 거짓말로 변명을 대신하고 싶은, 쌓여 있는 회사 비품들로 자취방의 생필품 찬장을 짹 짹 채우고 싶은, 이런 사소하지만 부정이 분명한 유혹들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생크림 케이크를 떠올린다.

“손도 대지 마.”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나 또한 앞으로도 부정의 유혹에 ‘손도 대지 않을’ 생각이다.



할 수 있으니까

공직부문 장경수

나는 매우 평범하다. 나는 평범한 아들이었고, 평범한 남편이고, 평범한 아버지다. 그리고 평범한 소방공무원이다. 나는 그리 용감하지 않고, 나는 그리 정의롭지 않으며, 나는 그리 청렴하지도 않다. 나는 매 순간 선택에서 흔들리고, 나는 가끔 불의를 보면 눈을 질끈 감고 넘기기도 한다. 이런 나는 겁쟁이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고발한다.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쉽게 끄집어 낼 수 없는, 뭔가 찝찝하고 금기어 같은 이야기를, 그 안에서 겁먹었던 나를 나는 말하려 한다.

그것은 내게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다. 그럼에도 찢뜨물처럼 가라앉아 있던 기억을 휘휘 저어 본다. 그렇게 곁으로 드러내야 하며 투명해져야 한다.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아픈 기억을 소환한다.

나는 늦은 나이에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전산 특채에 임용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 업무 정보통신 담당자로 일을 하였다. 임용 전 프로그래머로 7~8년간 일을 한 터라 소방공무원 정보통신 분야는 그리 낯설지 않았다. 잘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바쁘고 기쁘게 일을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정보통신팀이 해체가 되고, 나는 소방행정과 경리팀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경리팀에서도 계속 정보통신 업무를 보며, 팀의 막내로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과 서무 일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리팀은 정보통신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업무 중에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오고, 각종 선물을 들고 오고,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해 달라는 청탁도 많이 들어왔다. 팀 회의도 공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었다. 뭔가가 구렸 다. 공기가 사뭇 달랐다. 도무지 적응이 안 되었다. 나는 그리 곧고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물 위에 동등 떠 있는 듯했다. 그때 같은 팀원인 최 반장(소방교를 반장으로 부름)이 나를 불러 끝나고 소주 한잔하자고 했다.

‘경리팀은 경리팀에서 해야 하는 일 말고도 남모르게 해야 하는 뒷일들이 있다’고 했다. 어리둥절하고 대체 무슨 말인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최 반장은 나보다는 세 살이 어렸지만, 소방서는 몇 년 먼저 들어온 선배였다. 각종 장비와 공사 계약 업무의 베테랑으로 경리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엘리트 직원이었다. 우리는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 그렇게 같이 근무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피곤을 소주 한 잔으로 달래며, 같이 웃고 같이 고민했다. 그럼에도 최 반장은 말 못 할 고민이 많았다. 업무량도 상당히 많았으며, 팀장, 과장은 그에게 중요 업무를 자주 시키는 것 같았다.

최 반장은 가끔 이렇게 말했다.

“일하다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비예산이니 하며 팀장님이 이상한 것을 주문하면 절대 못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꼭요. 꼭 명심하세요.”

최 반장은 ‘명심하라’고 했지만, 나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

다. 하지만 최 반장의 우려가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장 반장! 행정차 세차 좀 하러 가지.”

경리팀장이 갑자기 같이 행정차(소방행정과 관용차량) 세차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내 옆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최 반장은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팀장이 세차하는데 왜 같이 가자고 했는지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자동세차 안에 들어서자 팀장이 말했다.

“우리가 업무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들었나? 우리는 서장님을 모시는 팀이야. 곧 추석이 다가오고 비예산 들어갈 데가 많은데, 장 반장도 정보통신 공사를 계획하고 300만 원만 만들어 봐.”

그 비예산.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 후로 팀장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른 팀원들도 나를 멀리했다.

나는 모르는 척, 거절 아닌 거절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리가 무거웠다. 잠을 못 잤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연거푸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왜 그래요?”

“소방공무원 그만두고, 프로그래머 하면 안 될까?”

나는 어렵게 소방공무원이 됐다. 결혼하고 8년 뒤에. 아내는 기뻐서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는 말에 또 한번 말없이 울었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만두겠냐 싶어 아내는 눈물로 말을 대신했다. 아내의 울음 앞에서 나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었다.

비예산 300만 원 얘기는 입 밖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였다.

팀장의 영향력은 서 내에서 어마어마했다. 팀장에게 찍힌다는 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었다. 역시나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최 반장이 다가왔다.

“비예산 얘기 하죠?” 최 반장은 이미 다 알고 나에게 물었다.

“300만 원 만들라고 하시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최 반장에게 솔직하게 말해 버렸다.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심장에서 돌덩이를 꺼내는 것처럼 후련해졌다. 최 반장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꼴 나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참 솔직하고도 슬펐다. 나는 최 반장 덕분에 용기를 냈다. 두려웠지만, 팀장도 팀원도 싸늘하게 나를 대했지만, 나는 ‘안 한다’고 매듭지었다.

나는 그 후로 최 반장에게 의지하고 위로도 받았다. 최 반장은 ‘많이 후회된다’며 ‘소방서장에게는 관사라는 것을 제공해 주고, 그곳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관사 관리비는 예산으로 나오지 않고, 서장 차량 운행비용에서 하다못해 담배 심부름 비용까지 비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옛날에는 예방과에서 같이 하였는데, 지금은 경리팀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였다.

‘수십 차례나 인사이동을 요구했지만 계속 잡혔고, 어느덧 그 일이 익숙해져 버렸지만, 괴롭다’고 최 반장은 나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곤 했다. 최 반장의 이야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고발, 사건, 사고 같았는데, 최 반장이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힘들어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들어주는 수밖에 아무 말도 해 줄 수가 없었다.

최 반장이 일종의 내 방패막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었다.

최 반장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는 ‘청렴, 근면, 진실, 성실’이라고 했다. 이런 글자를 보면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고 했다. 이미 그렇지 않은 세상을 너무 많이 보았다고 했다. 모든 세상사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이 가더라고 했다.

“절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서장, 과장, 팀장.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 반장은 날마다 후회했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최 반장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최 반장의 가깝고도 먼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나는 서 내에서 제대로 찍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버둥버둥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팀장의 힘을 좇지 않았기에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나는 더 단단해졌다.

‘까짓, 괜찮아! 버텨!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주문을 외웠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다. 드디어 경리팀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나는 너무 기뻐지만, 내가 의지하던 최 반장도 팀장과 같은 소방서로 발령이 나 버렸다. 팀장은 최 반장을 데리고 갔고, 최 반장은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를 싫어하던 팀장과 내가 좋아하던 최 반장이 떠났고, 1년쯤 지났을 즈음의 어느 일요일 아침에 최 반장에게 전화가 왔다. 집앞으로 갈 테니 잠깐 나와 달라는. 주차장 앞에 나갔을 때 최 반장은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얼굴이 굉장히 핑색해 보였다.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데, 최 반장이 갑자기 울었다. 나는 차 안에서 계속 최 반장이 우는 것만 바라봤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팀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고.

최 반장은 내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게 최 반장을 본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3일 뒤 최 반장은 세상을 등졌다.

최 반장이 죽고 난 후 소방서 본부 감찰과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때 근무한 팀장, 서장은 해임을 당하고, 수십 명의 담당자들이 중징계와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나는 한동안, 지금까지도 힘들다. 왜 나는 그의 눈물 앞에서 들어주고만 있었을까. 나는 왜 최 반장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최 반장을 말리지 않았을까. 왜 바라만 봤을까. 최 반장을 왜 그대로 보내야 했을까. 다 알면서 나는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고발하지 못했을까. 나는 겁쟁이였고, 나는 비겁했다. 나는 아직까지 최 반장을 내 안에 묻고 매 순간 그의 말을 떠올린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흉터처럼 남아 있다. 나는 그의 눈물을, 그의 잘못된 선택을, 그의 끝없는 고통과 후회를 기억한다.

나는 평범한 아들이었고,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평범한 소방공무원이지만, 이 평범함을 평범함으로 지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서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그래도 정의로운 편이고 도덕적인 편이다. 나는 보통의 편이고 상식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때는 침묵하고 묻어 두었던 것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도 여전히 편법이 있고 불공정한 사회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나는 두렵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은 건강한 사회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편지

공직부문 류호진

반쯤 열린 베란다 틈새로 비 오기 전 장마철의 습습한 바람이 새겨 든다. ‘이런 날은 막걸리가 제격이야.’ 수많은 음식을 올린 제사를 앞에 두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저 향 너머 살고 계신 그가 생각한다. 다 같이 큰절을 한번 드리고, 거실의 불을 끈 채 안방으로 스며든다. 아이가 묻는다.

“아빠, 불은 왜 끄는 거야?”

“응, 그래야 할아버지가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음식을 편하게 드시겠지?”

안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한다. 그사이 몇 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

‘아버지 제사 찾아뵈어야 하는데, 일이 바빠서…… 대신 잘 부탁한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 정육점 아저씨이다. 그의 문자를 보니 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문득 그리워졌다.

아버지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셨다. 그 당시 공무원의 봉급이 워낙 박봉인지라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포함한 삼남매를 키우기에도 빠듯하셨으리라. 그럼에도 행여나 명절 때마다 학교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집에 찾아와 주는 선물들은 모두

돌려보내셨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집 마당 들마루에서 손가락 하나 더 놓고 같이 밥을 먹여 보내시곤 했다. 이때마다 ‘안 받으면 안 받고 보내면 될 것이지 왜 굳이 밥까지 먹이고 보내냐’는 어머니의 불평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이야기하셨다.

“원체 깨끗하고 동시에 친절하기가 참 어려운 법이여, 허허.”

워낙 소도시 고등학교다 보니 동네에서 서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위기였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나가려다 보니 알게 모르게 계산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행정실이 돈을 만지는 곳이기에 학교에 물품 등의 거래를 뜬 업체 사람이 잘 봐 달라는 뜻에서 그랬던 듯싶다. 그 뒤로 아버지는 식당에 가서 아는 누군가가 있는지 보고,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불로 계산을 하셨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대가 없는 선물을 준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여. 비록 사는 게 궁색해두 꿈에서라도 깨끗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여.”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정육점 아저씨가 아버지와 맛있게 먹으라며 나에게 커다란 봉지를 하나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고기가 가득, 아니 그득그득 들어 있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집에 가져갔다. 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 자식이 셋이며, 먹성 좋은 우리들을 위해 고기를 구우셨고, 꽤나 맛있게 오랜만에 마음껏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오셨다. 웬 고기냐고 물으셨을 때 어머니는 처음엔 답을 하지 않으셨다. 재차 묻고 나서야 요 앞에 정육점 아저씨가 먹으라고 줬다고 답하셨고, 그날 밤 내가 아는 가장 큰 언성이 안방에서 오갔다. 아마도 학교

급식실에 납품하시던 아저씨였나 보다.

그다음 날, 아버지는 나에게 웬 편지를 하나 주셨다. 편지 봉투를 풀칠하였기에 내용을 읽을 순 없었지만, 편지와 함께 동봉된 봉투가 꽤 두툽한 걸로 봐선 어제의 그 고기값이 아닐까 싶었다. 난 곧장 아버지 말대로 정육점 아저씨에게 갖다 드렸고, 정육점 아저씨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벌게 지셨다. 그날 저녁 정육점 아저씨는 우리 집을 찾아오셨고, 아버지는 반가이 맞으며 술상을 차리셨다. 그 뒤로 그분은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랐다. 많은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정육점 아저씨는 그 누구보다 큰 울음을 게워 내셨다.

그런 내가 지금 아버지와 같이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다. 비록 아버지는 행정실에, 나는 교단에 서게 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삶을, 그의 말씀을 반추하는 데 충분했다. 스승의 날 즈음이면 새삼 씁쓸한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내곤 한다. 청탁금지법에 의거 카네이션 한 송이 정도를 제외한 그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마치 마음도 없는 이에게 ‘내게 고백하지 마세요’라며 김칫국 한 사발 거하게 들이켜는 느낌이랄까.

물론 내 교직 생활에도 딜레마 아닌 딜레마 같은 일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일 게다. 담임을 맡은 아이 중에 가수를, 적확히 하자면 래퍼를 꿈꾸는 학생이 있었다. 때때로 뭐 하나 엿보면 연습장 가득 빼곡히 가사를 써내려 가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집에 전화해 보니 대신 받으신 어머니가 아들이 아프다고 오늘 하루만 쉬겠다고 했다. 그러려니 했지만, 그다음 날도 오지 않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이상했다. 집에 전화해 조심스레 여쭙 보니 ‘실은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라는 울먹임이 돌아왔다.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그랬다. 아이는 래퍼를 하고 싶어 하며, 오롯이 음악에만 열중하고 싶기에 공부를 소홀히 했고, 반대로 그의 아버지는 공부를 해서 형처럼 명문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다. 그나마 백번 양보해서 대학에만 가면 음악을 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며 래퍼에 대한 욕심을 접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부자간의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갔고,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투명 인간 취급했으며, 아이는 신변을 비관했다. 그렇게 서로를 저버린 채 말을 안 한 지가 3개월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사달이 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중재하지 못한 본인 탓이라 여기시는 어머니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쇠약해지셨다.

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나는 지금껏 남자반의 담임을 맡았기에 힘이 들끓는 남자아이들의 열정을 분출시키고자 일 년에 한두 번은 축구장 및 각종 운동 시설이 있는 갑천 체육공원으로 학급 단합대회를 나가곤 한다. 그곳에서 축구도 하고 우리 반 올림픽도 하며 아이들과 화합을 도모했다. 장기 자랑 시간에 그 아이는 신명나게 랩을 해 호응을 받았다. 그때 그 아이가 스치듯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 쌤, 전 집보다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때마침 춥지 않은 날이었고, 쉼터처럼 생긴 긴 벤치가 있으며, 저녁에는 버스킹도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원이었기에 그러 했을 터다. 이제야 그 행간을 파악한 나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으로 차를 타고 가 보았다. 그 끝 저 멀리 벤치에 새우잠을 청하고 있는 그 아이가 보였다.

그날은 긴 하루였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갑천을 거닐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생각이 깊고 그만큼 고민도 많은 아

이었다. 대화 끝에 랩의 가사로 영어를 공부하고, 랩의 운율로 문학을 공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있을 축제에서 성공적인 데뷔를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마음이 누그러진 아이를 가정에 돌려보냈다. 그 아이는 그날을 기점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에도 놀러 갔다 왔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얼마 뒤 그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셨다. 고맙다며 아이가 갑천에서 자신을 찾아 준 선생님을 보고 감명받은 것 같다고 하셨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제가 쓴 책이거든요, 선생님 드리고 싶어서요.”

학생의 아버지는 정성스레 포장된 책을 한 권 주고 가셨다. 과목이 과목인지라 독서를 좋아하는 나는 감사히 받았다. 교무실 밖까지 모셔다 드린 후 무슨 책인지 궁금하여 포장을 꺼냈는데, 아뿔싸 그 안에서 봉투가 툭 떨어져 나왔다. 조심스레 열어 본 그 봉투 안에는 상당한 양의 금액이 있었다. 나는 당장 아버지의 차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떠난 후였다.

전화를 수차례 해도 받지 않는 아버지. 그저 고마워서 그러니 그때 그 아이 밥값이라며, 반 아이들 삼겹살이라도 사 주라며 문자 메시지만 보내시는 아버지. 이를 어찌면 좋을까, 차라리 맘 편히 받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라도 내줄까……. 그게 오히려 다수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 딜레마였다. 지금과 같은 명확한 상황별 원칙이 없던 시기이기에 더욱 당황했던 듯싶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정육점 아저씨에게 보냈던 편지가 떠올랐다. 그래, 그거야, 청렴의 기초 아래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게 청렴과 친절이란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무슨 말을 써 내려갈지 한참을 고민했다. 때로는 거부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교직에는 이러

한 딜레마가 상주하고 있다. 여하튼 꺾꺾 써 내려간 그 편지의 요지는 이거였다.

‘아버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평소 좋은 생각을 함양해 주기에 즐겨 읽던 책자에 그 편지와 봉투를 넣어 포장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뒤져 얻어 낸 주소로 안전하게 등기로 보냈고, 얼마 뒤 너무 죄송하고, 염치없다는 뉘앙스의 연락이 왔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만약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아마도 지금 항 너머에 살고 계신, 평생을 청렴한 공직자로 살아가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신 아버지에게 평생 떳떳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육점 아저씨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이런 말이었겠구나 생각하니 그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창량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창량의 물이 흐리다면 발을 씻어라’라는 초나라 굴원의 격언이 있다. 사람은 자고로 세상이 청렴하고 결백한 이들로 넘쳐난다면 그러한 세상을 위해 일하고, 그렇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판친다면 손을 씻고 자연으로 회귀하라는 의미이다. 무릇 세상을 위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청렴 연수를 클릭하며, 청렴이란 말이 사라질 때 진정한 청렴이 다가오는 않을까 하는 역설을 품으며, 문득 이 글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새긴다. 아버지가 일궈 준 가르침을 디딤돌 삼아 같은 공직을 걷게 된 나. 유난히도 아버지의 편지가 떠오르는 날이다.



치킨쿠폰과 손 편지

일반부문 서채연

개구쟁이 두 아들 녀석을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 나는 사회 초년생의 떨림이랄까? 아니 그보다 더한 초조함에 가까운 심경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보다 더 심란했다.

주위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학부모들의 뒷바라지 이야기. 소풍갈 때 싸 준 도시락이며, 스승의 날 꽃바구니는 물론 백화점 상품권. 김장 때마다 들여다 나른 김치통 덕분에 자녀가 상을 받고, 학급 반장이 되고, 수업 시간에 칭찬도 많이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지만,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먹고살기 급급해 학교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던 부모님들과 달리 교실로 찾아오시는 친구들의 부모님들 손에는 늘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찾아오는 횟수와 들려진 선물에 따라 늘어나는 선생님의 칭찬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된 ‘선물 비례의 법칙’ 혹은 ‘치맛바람의 법칙’이었다.

진정한 스승의 은혜를 퇴색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모멸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해야 하는 부모의 당연한 희생이며, 자식을 학교에 보낸 죄인으로 감수해야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라 여겨지고 있는 당시의 세태에 나는 진저리가 났다.

부모님 생신 때도 미진한 음식 솜씨 덕분에(?) 늘 식당에서 음식

을 대접해야 하는 내가 애들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들 뒷바라지에 요리 학원을 다녀야 할 판이 된 것이다.

벌써부터 밀려오는 짜증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렇다고 다른 학부모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을 나만 행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 꺾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앉아 시무룩해 있을 아이 얼굴이 떠올라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맘때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발효되었다.

처음 시작된 시점이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실행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실행 여부에 관해 설왕설래도 많았지만, 나는 내심 너무나 기뻐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고민할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그렇게 3월 신학기가 지나고 5월에 접어들어 스승의 날이 가까워져 갔다. 내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갈팡질팡 멀미가 날 즈음 학교 알림장에 스승의 날 공지 사항이 올라왔다.

‘스승의 날 공지사항: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꽃 등 일체의 물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폭 쉬어진다. 소화제 100알은 족히 먹은 듯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다.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겠어?’

안도감에 젖어 있었던 스승의 날 당일 오후 4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헉~!’

휴대전화에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 휴대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벨소리가 울리는 3~4초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내 머릿속

에는 오만 가지 데이터가 이리저리 조합되며 복잡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애가 학교에서 싸웠나?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버릇없이 굴었나? 아님, 스승의 날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설마! 선물을 안 보냈다고 전화까지 하나? 혹시 우리 애만 선물을 안 보내고 다른 애들은 다 보냈나? 진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준비해야 하나? 오늘 못 보낸 건 깜빡했다고 해야 하나? 그건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느낀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살며시 귀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시죠?”

“네, 선생님~ 선생님도 안녕하시지요?”

“네…….”

안녕하시냐는 안부에 뜬금없이 대답하는 선생님의 대답에 나는 가슴이 더 쿵쥔거리며 궁금증에 걱정을 더해 갈 즈음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다.

“어머니 오늘 제가 스승의 날이라 감사하다며 아이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커서 받지 않아야 하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라며 선생님이 꼭 받으셔야 한다고 선물을 내미는 아이를 보면서 바로 매몰차게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오늘 아이 모르게 다시 선물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 그래요? 우리 애가 선물을 드렸나요? 저는 준비한 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가 선물을?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어찌 된 일일까? 혹시 선생님이 다른 아이와 착각하신 게 아닐까? 걸음을 재촉하며 교실에도착한 나는 선생님이 죄송스러워하며 내미는 상자 하나를 받아 들었다. 얼마 전 화장품을 사며 포장되어 왔던 택배 상자를 챙기던 아이 모습이 그제야 생각이 났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드린 선물이 분명한 것이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한 게 없거든요. 저희 애가 대체 어떤 선물을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었는지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엄마 택배 상자까지 챙기며 어떤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시점이라 선생님과 함께 그 선물을 개봉해 보기로 했다. 아이가 선생님 드리려고 손수 준비한 선물이란 말에 선생님도 내심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한 눈치였다.

선물 상자를 열자마자 선생님과 나는 그 자리에서 선물과 편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한참을 교실이 떠나가라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가 선생님께 준비한 선물 상자 속에는 땀땀한 손 글씨로 쓴 편지와 이제까지 모아 온 ‘치킨 쿠폰’ 5장이 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

‘선생님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이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한 것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 소풍 등 생활도 공부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나만큼이나 걱정과 우려가 컸을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 주고, 놀이도 배움이란 것을 알려 준 고마운 선생님께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치킨 쿠폰’을

챙겨서 넣어 드린 모양이었다. 그 편지와 선물에 선생님도 적지 않은 감동에 웃음 끝에 눈가가 축축해지셨다.

“우리 혁이가 마음이 참 이쁘네요.”

‘치킨 쿠폰’ 5장과 편지를 손에 쥐고 선생님과 마주하며 나는 나의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농사일에 지친 부모님에게서 지금 같은 선행 학습은 꿈도 꾀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2학년인데 연필 잡는 법도 깨우치지 못했던 내가 조금씩 공부에 욕심이 생기고,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던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소풍 날 초밥이며 튀김, 김밥에 이르기까지 진수성찬을 준비한 반장 어머니를 호되게 꾸짖으셨던 무섭지만 다정다감했던 선생님의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은 발전의 길로 이끌었던가.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보다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걱정해야 했던 이전에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과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되새기게 하고 느끼게 해 주는 고마운 법인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느낄 스승에 대한 은혜와 제자를 사랑하는 순수한 스승의 마음을 경험할 기회가 과연 자주 있었을까? 왜곡된 시선과 차별받는 사회의 첫 경험을 초등학교에서 이미 겪게 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까지도 떠안길 수 있으리라.

나는 선생님과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치킨 쿠폰’과 선생님께 써 내려간 편지만으로도 앞으로 올바르게 사랑 넘치는 사회로

향하는 티켓을 선물 받은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앞으로 내 아이, 또 그 아이의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물질만능에 찌든 사회 때문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사회를 병들지 않게 하기를.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맞서고, 그래서 늘 당당하기를.

지금의 ‘청탁금지법’에 의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세상의 건전한 나비효과를 기대해 본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부문 이은철

“나는 항상 착한 우리 아들을 믿는다.” 부모님께 항상 실망만 시켜 드리던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께 들어 왔던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공군 헌병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올해 4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우수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상경해 박카스를 팔아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 명문 대학을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셨다. 그리고 본인이 힘들었던 옛날을 잊지 않고 아직도 힘든 사람들을 돕고 계시며 사람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에 다니신다. 항상 공익에 종사하는 자신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청렴하게 살아오셨으며, 자식인 나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우수한 아버지에 비해 많은 실패로 아버지께 실망을 드렸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1년간 재수를 했고, 재수하고 있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놀기만 했다. 같은 해 함께 재수한 사촌이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한 것과 달리 나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하여 실의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선 어떤 꾸지람도 없이 나를 믿는다며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 또한 이런 아버지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고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군 입대 당시에나 나를 아끼시는 삼촌이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이었기에 혹시나 모를 특혜를 피해 일부러 공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군 복무 2년의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실시되는 교대 근무라는 힘든 근무 조건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런 올바른 행동들을 하면서 옳은 일을 고수해 나가면 나날수록 정말 많은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올바르게 행동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일과 직책들이 나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 생각하며 힘들게 버텨 나가긴 했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전역을 두 달 앞둔 2월, 나는 아버지가 30년간 근무하며 평생을 바치시던 공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공채에 지원하게 되었다. 공채는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두 번의 면접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나는 휴가를 내서 필기시험에 응시했는데, 나중에 경쟁률이 130:1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날 아버지로부터 차 안에서 시험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로 꿈을 꾸는 느낌이었고, 드디어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아버지 또한 내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잠시

차를 멈추시곤 “거봐라. 아빠는 널 믿었다니까!” 하시곤 나와 함께 우셨다.

사실 나는 경쟁률이 100이 넘어갔다는 말을 들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기회를 얻어 냈고, 힘들게 얻은 기회인 만큼 그 기회가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왔다. 첫 취업 면접이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이용하면서라도 이 기회를 잡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면접에 붙을 수 있도록 조언과 예상 질문 등 면접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부탁드렸었다.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시험과 면접은 공정성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공채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이 오직 능력만으로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하셨고, 따라서 자신은 나에게 공사에 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도 생각을 바르게 먹기로 했고, 힘들게 노력해 온 만큼 내 진면목을 평가받기로 결심했다. 부대에 있기에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어 대리로 서류 제출을 할 때에도 혹시라도 아버지를 알아봐 내게 특혜가 주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나 이모님께 부탁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이러한 내 노력이 보답받은 것인지 나는 무사히 필기시험, 1차 면접까지 합격하고 최종 면접까지 순조롭게 합격했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에 일어났다. 면접 마지막에 긴장이 풀려 면접관님 중 한 분이 한 질문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10초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이 얼어붙고 말았고,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옆 사람들에게 질문이 돌아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라면 안 된다. 무언가 해야 한다. 이런 강박이 나를 강하게 움아맸고, 그 순간 강박이 점점 더 선명해져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밖에서 자유롭게 면접 대비를 한 저 사람들과 달리 전역 전 날까지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 내가 고작 실수 하나 했다고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은밀하게 밝히면 어떨까? 그 정도는 내 말 주변으로 충분히 은밀하게 면접관님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아버지께선 30년 이상 공사에 다니셨으며, 소위 인맥도 넓은 분이셨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았다. 설마 자기 동료의 아들이 실수 하나 했다고 떨어뜨리겠는가.

면접관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질문을 할 때,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거의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면접장을 오기 직전 아버지와 있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나를 걱정해 주시던 아버지께 열게 미소 지으며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나는 항상 착한 우리 아들을 믿는다.”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편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항상 나를 믿어 주셨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런데도 나는 한순간이나마 또다시 나를 믿지 못하고 나 자신과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배신하려 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러자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얼마나 옳지 못한 행동인지 자

각할 수 있었다.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은 나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 공사와 나를 믿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면접을 보던, 어쩌면 나보다 더 큰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는 면접자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누군가의 꿈을, 누군가의 기회를, 누군가의 선의를 부당한 방법으로 나라는 개인을 위해 짓밟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 리가 없다. 나는 뗏목해지기로 결심했고, 결국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결과만 본다면 아쉬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지금껏 내가 무수히 겪은 실패들과 달리 성공한 실패였다. 내가 만약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면접에 합격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욱 좌절했을 것이고, 공정하게 노력해 온 타인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 실패했다. 그러나 당당한 점 없던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다. 지금 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공부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직함으로써 내가 순간적으로는 힘들거나 성과를 놓치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비로소 내가 이제까지 되고 싶었던 내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손꼽아 기다리던 전역을 한 나는 전역 기념으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 아버지는 여행 동안 나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아버지는 항상 공정한 사회를 꿈꾸었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주 청렴과 정의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곤 했다. 그런 아버지는 공사의 내부인인 아버지가 나를 돕는 것이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대비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조차 걸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고 계셨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내가 떨어지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점을 자책하고 계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지극히 옳은 일이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저를 믿고 묵묵 지켜봐 주시고 바르게 키워 주신 점,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로 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위님, 저희 제품 좀 써주세요

공직부문 장원혁

나는 장병들의 급식과 관련된 보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던 업체와의 관계들이 부패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 수기는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노력하여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기술한 것이다.

2012년 ○○특전여단에서 실무자로 근무할 때 관리하던 예산 중 특수근무자 중식비라는 항목으로 약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고생하는 특수부대 장병들에게 보다 양질의 특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대 전입 한 달이 채 안 되던 시점에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병소에서 민간인 한 분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왔다고 들여보내도 되느냐고 물어 왔다. 출입 승인을 받고 사무실로 온 그는 차에서 박스 하나를 꺼내 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있는 간부들에게 인사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유제품들을 돌리기 시작했다.

열떨결에 한 잔을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들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는지 태연한 모습이였다. 무슨 영문인가 싶어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장병들이 특식으로 먹는 제품들 중 유제품류를 납품하는 도매점 직원이었다.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바뀌어 인사도 하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매월 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꽤나 많은 양을 주고 갔다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이라며 맛있게 드시고 내년 계약할 때 잘 좀 봐 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빵 납품업체에서 새로 들어온 샘플이라며 꽤나 많은 양의 빵을 가지고 왔다. 이후로도 몇 차례 다른 업체에서 샘플을 들고 와서 사무실에 놓고 가거나 홍보를 하고 가는 일이 있었고, 이제는 점점 당연한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월 단위 예산 집행을 할 때 해당 업체들은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다. 다른 업체, 다른 제품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찮게 앞줄에 있던 예하 대대의 부사관 2명이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A중사: “아, 오늘도 유제품이야? 아, 질린다, 질려.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네.”

B중사: “위에서 뭐 관심이나 있겠냐?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거지.”

A중사: “나는 밥 먹고 유제품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영 별로야.”

순간 너무나 부끄러워 쥐구멍이 있다면 그곳에 숨고만 싶었다. 장병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병참 장교로서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스스로의 한심함에 반성, 또 반성하면서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뛰어들어 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고쳐 나가야 할까?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려 한 본인의 안이한 태도였다. 그래서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해 보았더니, 유제품의 경우 단가는 개당 800원에 식수 인원 1200명, 월 2회씩 먹고 있었고, 1년에 23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해당 업체로 가고 있었다. 가격 면에서는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것에 비해서는 저렴했지만, 대량으로 납품한다는 점에서 딱히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른 업체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었다. 특식에 대한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만족한다’가 32%, ‘만족하지 않는다’가 68% 수준으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했다. 장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접 발로 뛰면서 업체를 선정 및 납품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일과가 끝난 후, 또는 주말에 부대가 있는 소재지 일대 도·소매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하였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장병들의 특식을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자긍심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 계약 업체들과의 갈등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특히 군납품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A업체의 경우 변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몇 차례 개인적인 연락과 함께 은밀한 유혹을 해 왔다. 특히 밖에서 식사를 하자, 좋은 곳에서 술을 한잔 먹자는 등의 유혹은 언뜻 듣기에는 달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

에 숨겨진 목적을 알고 있었기에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으며, 장병 선호도 조사와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에 연락이 온 몇 군데의 업체에도 동일하게 정중하지만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 뒤에는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무사히 시장 조사와 제품 선정을 마칠 수 있었다. ○○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에서는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으로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이후 장병의 선호도와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먹거리를 다변화한 결과 최초 설문조사 시 32%의 급식 만족도가 87%로 높아지게 되었다.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이다. 또한 13개월간의 보직 기간을 마치고 전출을 갈 때도 후임자에게 계약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당장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우리 병과의 특성상 장병들의 먹거리, 입을거리와 관련된 예산을 운용하면서 계약을 하고 민간 업체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 많다. 투명한 직무 수행과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마주할지 모를 검은 유혹에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을 가치 판단의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간부는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다.’ 이 말에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 수가 있으니, 항상 언행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 일을 겪은 이후 나의 좌우명은 ‘신독(愼獨: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이 되었다. 이를 통해 군인이자 공직자로서 누구에게든 떳떳할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가길 소망한다.

이 일을 통해 느끼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직자 윤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그 전까지는 당면 업무를 해 나가는 데 급급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윤리 의식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설마 나에게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라는 위험하고도 안이한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령과 해설집, 사례집을 꼼꼼하게 읽어 보면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거절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거절 의사가 분명치 못해서 작은 여지라도 남기게 되면 반드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셋째, 군복에 대한 소중함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되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잘 지켜 나간다면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내 마음 속 엄한 순경

공직부문 이병희

외할머니 집으로 올라가는 길옆으로 시뻘건 물이 사납게 달려 내려가며 바닥을 버르집고 있었다. 물살에 허리가 부러진 어린 까마중 하나가 탁류에 머리를 감고 있었고, 이장님 댁 마당에는 감또개 여러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간밤에 내린 비가 꽤나 건넌 모양이었다. 어젯밤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홀로 계신 할머니가 걱정이 되신 어머니가 전화를 해 보셨단다. 통화를 하는 내내 할머니께서 외손주가 보고 싶다 하셨다기에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을 찾는 길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던 어릴 적에는 무척 자주 갔었다. 특히 방학이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다녀가곤 했다. 외할머니 댁은 마을의 가장 윗부분에 자리했다. 어릴 적에는 가뿐하게 오르던 그 가풀막이 이제는 제법 힘에 겹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겨우겨우 가누며 양철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할머니! 저 왔어요!”

부르는 소리에 안방 문이 뻑 열리면서 외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문밖에 선 이가 누군지 영 가늠이 되지 않으셨는지 주섬주섬 안경을 찾아 쓰셨다. 이내 할머니는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아이고, 우리 외손주 왔구나!” 소리를 지르셨다.

요 몇 년 사이에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상하셨다. 특히 오른쪽 무

를 관절염이 심해지셔서 이제는 마을 경로당에 한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신다. 하지만 늙고 병든 건 할머니의 몸뿐 저 꼬장꼬장한 고집은 좀처럼 늙지를 않는 모양새다. 아무리 말려도 손주도 손님이니 된장찌개라도 대접해야겠다며 기어코 부엌으로 나가셨다. 곧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 왔다. 고소하고 간간한 그 냄새를 맡으며 방을 휘 둘러봤다. 할머니의 방은 변한 게 거의 없었다. 마치 방 전체를 타임캡슐로 밀봉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손때 가득 묻은 까만색 목단 장롱도, 자물쇠 대용으로 문고리에 걸어둔 낡은 손가락도 그대로였다. 하다못해 손주가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울까 봐 사 두셨던 양은 요강도 그대로다. 아마도 무릎 때문에 운신하기가 쉽지 않으시니 이제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모양이다. 하긴 집주인인 할머니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집 안이 변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외모나 건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간간한 성정과 고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온순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시간의 더께가 얹힐수록 더 꼬장꼬장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가끔씩 들러서는 말동무도 해 주고 쌀도 가져다주고 하는 모양인데, 할머니께서는 친절을 받기만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면서 평소 만들어 두셨던 무짬지나 오이지 따위를 내놓으셨단다. 요새는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난다며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기어코 양손에 한 자루씩 들러서 돌려보내셨다고 하니,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난감한 처지가 눈에 훤히 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할머니의 이런 고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종의 도덕적 결벽증이라 할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의에 대한 대가

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좀체 견디지 못하셨다. 불현듯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 떠올랐다.

“할머니 그 일 기억나요?”

“무슨 일?”

“왜 한 30년 전쯤에 박 씨 할아버지네 복숭아밭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그날은 마을 밖 개천으로 나가 물놀이를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박 씨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갑자기 할머니께서 품을 팔러 가시게 되었다. 내 땅이 없는 시골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할머니도 틈틈이 남의 밭에 품을 팔러 다니곤 하였던 것이다. 울고 불며 물놀이를 가자고 생떼를 부렸지만, 할머니는 ‘내가 아쉬울 때는 일 시켜 주오 하면서 남 급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거여’ 하시면서 밭으로 가 버리셨다. 그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흐를 정도로 더웠다. 그런 날씨에 좁은 사다리 위에서 복숭아를 따 내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처지를 살피기엔 난 너무 어렸다. 나는 일하는 할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물색없이 ‘강에 가자’를 반복했다. 할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결눈질 한번 하지 않고 일만 하셨다. 오히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내 모습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복숭아 한 알을 건네 주셨다.

“아가. 이거 가지고 저 짹 그늘에 앉아서 먹거라.”

쉬지 않고 강타령을 불러 댔던 탓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던 나는 얼른 받아들었다. 내내 나를 괴롭혔던 실망감과 짜증이 어느 정도 달아나는 순간이었다. 달콤하게 입안으로 퍼지는 과즙을 상상하니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머리 위에서 터지는 벼락 소리에 깜짝 놀라 복숭아를 놓쳐 버렸다.

“형님! 그런 거 주지 마소! 그게 어디 형님 겁니꺼? 발 주인 거지! 병희 너 이놈, 그거 어여 제자리에 놓거라. 너 커서 도둑놈 될 거여? 어여 내려놓지 못하?”

복숭아밭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단지 벚의 손주에게 친절을 베푸시려다 절도 교사범 꼴이 된 동네 할머니는 속이 무척 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평소 성정을 알기에 그냥 놀러 참는 눈치였다. 괜히 나 때문에 일이 터진 것 같아 죄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구석에 앉아 눈치를 보고 있다가 결국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때는 할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목마른 손주가 복숭아 하나 얻어먹겠다는데, 그냥 모른 척 눈감아 줄 수도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내뿔으셨다.

“그러. 니가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네. 사실 그때 내 맘도 편치는 않았어. 하지만 병희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마음속에 순경한 명을 항시 두어야 하는 법이여. 무슨 말인지 알어?”

“네. 알다마다요. 할머니의 ‘마음속 순경’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너 마음속에는 도둑놈만 있더냐. 마음속에 순경이 있어야지! 그 순경이 항시 엄히 너의 잘못을 꾸짖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죄받을 짓만 하게 되는 법이여.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명심해야 해’ 하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못난 손주 놈의 마음속에는 엄한 순경은커녕 방법대원도 두지 못한 것 같다. 단적인 예로 나는 누군가와 쓸데없이 다투는 것이 너무나도 싫다.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다. ‘선천적 갈등기 피증’이라고 할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남들과 갈등이 생

기면 그냥 못 본체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나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촌촌할까? 이런 나의 성격은 공직에 들어와서도 변하지 않았고, 업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자료실 운영 업무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어린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도서관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누군가 하고 보니 A양과 A양의 어머니였다. A양은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평소에 워낙 도서관을 자주 찾는 데다가 성격도 사근사근해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다. 두 사람은 급히 빌려야 하는 책이 있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A양에게 마침 연체가 걸려 있어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A양의 어머니는 오래 연체한 것도 아니니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을 했다. 하지만 규정상 하루라도 늦으면 그 늦은 일수만큼 대출이 금지되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책을 대출해 주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A양의 어머니와 피곤하게 다투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모를 일인데, 융통성을 살짝 발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의 업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다. 그것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직접 서비스다. 그렇다 보니 필연적으로 친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A양의 어머니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부탁하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별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시민들을 위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어쩌면 공직자의 덕목에 합당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다. 모든 부패는 작은 규정 위반에서 시작하는 법이다. 공직자가 왜

규정을 지켜야 하겠는가? 바로 규정이 공직자의 부패를 막아 주는 일종의 안전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규정에는 판단이 필요 없다. 규정의 준수 여부에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면 그 의미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바로 그 시점에서 부패라는 곰팡이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를 보다 보면 모든 규정을 지켜 가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A양의 경우처럼 살짝 눈감으면 모두가 행복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공직에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결국 저 양자 간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갈등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규정 준수 의식이 필요한 법이다. 규정을 어기고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을 때 스스로를 꾸짖을 수 있는 무엇. 바로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마음속 엄한 순경’ 말이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추억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산에 걸릴 무렵이 되었다. 밖으로 나와 보니, 길을 따라 세차게 내려가던 물줄기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얇전한 고양이처럼 사람을 피해 길옆으로 졸졸졸 흘러 내려갔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겨워하시는 할머니는 굳이 손주 가는 길을 배웅하시겠다고 문 앞까지 나오셨다. 눈도 많이 나빠지셔서 멀리 있는 건 다 흐릿하게 보이신다더니, 내가 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아시고는 손을 흔들어 주신다. 아픈 몸으로 저렇게 유난을 부리시는 것도 당신의 성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엄한 순경은 이런 일에도 시시콜콜 꾸지람을 하는 것일까? 노을빛에 발갳게 물든 할머니가 손을 흔드신다. 마주 손을 흔들며 다짐해 본다. 나도 한번 마음속에 순경을 뒀다. 아주 엄하지는 못하더라도, 깐깐하다는 소리 들을 만한 순경 한 명 뒀다. 그러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울 일은 줄어들겠지. 그래. 그렇게 해 보자.



리더의 품격과 청렴도와의 관계

공직부문 김성호

“나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나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詩)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이륜차로 누비며 우편물을 전달하는 행복 전도사, 저는 어느 시골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찬바람 불고 눈비 오는 날도 이륜차 한 대에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산을 넘고 때로는 논밭 길을 달려 도착한 집배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들 중 오늘은 어느 고객이 집배원에게 보여 준 아낌없는 칭찬 및 양심적인 행동과 공직 사회에서 어느 리더와 소통하면서 그가 보여 준 품격과 청렴도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우체국 칭찬 게시판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저를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아기 이유식이 아이스박스에 담겨 택배로 배달되는 집의 고객이

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침과 목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그분께 목
에 뿌리는 액상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30ml 1병을 맘 편하게 보냈
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우체국 발착 사무실에서 택배 분류 작
업을 하는데,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발견하였습니다. 발송인을 보
니 ○○우정청에 근무하는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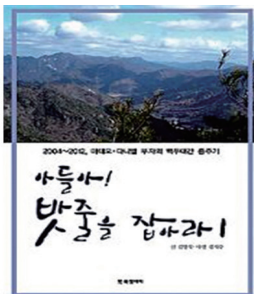
그 서기관님!
01에 대청봉 다녀온 후 늘 우체국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보내주는 택배를 잘 분류해 주셨는데도
사실 택배를 통해 인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
는데도 양을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감사한 마음
이후부터 두 달은 더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신없이 댕치는 부대끼며 보내고 있는 내게
제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보내
드립니다. 제 마음을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고 열어 보니 제
가 보낸 택배 박스가
개봉도 되지 않은 채
들어 있었고, 그 택배
박스 위에 왼쪽 엽서
가 붙어 있었습니다.

엽서를 읽는 순간 망치로 정수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격
있게 거절할 수 있는지, 그 서기관이 어떤 분인지 더욱 궁금해졌습
니다. 그리고 그 택배 상자 안에 추가로 동봉된 메모지에 아래와 같
은 글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책 3권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15년의 땀과 눈물, 고통과 환희가 담겨 있는 책 2권을
보냅니다. ‘아들아 밭줄을 잡아라(1, 2권)’ ‘대청봉편지’입니다.

힘들 때마다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5월입니다. 늘 푸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책 첫 페이지에 저자의 친필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고, 길 찾는 사람은
그자신이 이미 새 길입니다. 2018년 푸른 봄날”

또 한번 감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두 권이나 쓰신 분인 줄 몰
랐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그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공직 생활 동안 더 좋은 리더가 되시라
는 메모와 함께 ‘리더의 명화수업’과 ‘조선산책’ 두 권의 책을 보냈
더니, 얼마쯤 지난 후 다음 글이 적힌 엽서와 함께 제가 보낸 책이

그 서기관님!
선기관에서 주동 반대로 배운다는 애쓰요기는
반대하는 사람은 나의 논리를 모르겠지만 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땅과 논을 찾아오면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리더는 알아주고
장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위의 자를 잘 보고 싶어요. 배는 마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되돌아왔고, 그 택배
안에는 초코파이 한
봉지와 짜 먹는 홍삼
스틱 한 개가 동봉되
어 있었습니다.



엽서의 글 행간에
는 리더의 품격(品
格)이, 초코파이 봉지
에는 리더의 정(情)
이, 홍삼스틱 안에는 리더의 청렴(淸廉)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말단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하고, 사적인 일정에는 비서 없이 혼자
움직였고,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소탈했던 최근 타계한 L그룹의 K
회장, 현장에서 부대끼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말단 집배원과 소통하
며 그의 힘든 삶을 보듬고 어루만지면서 사기를 진작시킨, 품격 있
으면서도 소탈하고 청렴한 ○○○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품격과

청렴도는 정비레한다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말과 갑질이 난무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 법칙은 더욱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저의 칭찬 글을 올린 고객과 저와 소통하며 아직까지 열굴 한번 뵈지 않고, 전화 통화 한번 한 적이 없는 ○○○ 서기관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청렴으로 이어진 인연

공직부문 전만규

예년과 달리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더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후배가 아이스크림을 한 아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드시고 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후배는 반가웠지만, 산하 기관 평가 기간이라서 작은 호의마저도 부담스러워 선뜻 아이스크림을 받아 들지 못하고 있었다.

후배는 내 책상 뒤 ‘청렴韓 세상’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빙긋 웃었다. 그러고는 “저번에 주신 대리비로 사온 거예요. 그때 걸어가서 돈 굳었잖아요!”라고 얼른 너스레를 떨며 아이스크림이 든 봉지를 안겼다. 그때서야 나도 아이스크림을 받았고,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꺼내 먹으며 마주 앉았다.

사업단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가끔 술잔도 기울이는 사이지만, 평가 기간 중의 방문이라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한 후 서로 믿음을 쌓은 사이였다. 그런 후배이기에 작은 호의마저도 의심한 내가 미안해졌다.

후배는 머쓱해진 내 기분을 느꼈는지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선배님, 우리 ‘그 사건’ 이후로 우리끼리라도 부탁 같은 건 절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후배를 만나면 늘 기억나는 ‘그 사건’이 있었다. 후배와 내가 평생 청렴하게 살자며 서로 굳게 약속했던 그날의 ‘그 사건’.

그 사건

그 사건은 십여 년 전 후배와 함께 사업단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 나는 고속국도를 건설할 용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후배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중식을 먹고 사업단 뒷마당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한 날 중의 하루였다. 중식 시간이 거의 끝나 갈 무렵 후배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선배님, 퇴근하고 시간 좀 내 주세요.”

퇴근 후 자주 술자리를 갖던 사이였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비장하게 들려서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구나 싶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평소 장난기 많은 친구가 굳은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심각성이 느껴져 더는 묻지 못했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퇴근 후 단골 술집으로 향했다.

묵묵히 소주를 마시며 후배가 이야기를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거기 땅 계약하러 온 민원인 말이에요. 그 민원인 땅에 그렇게 나무가 많나요?”

민원인이라는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느낀 나는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며 되물었다.

“그건 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가 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었다.

“지난주 선배님이 현장에 나가시고 안 계실 때, 제가 그 민원인 응대를 했어요. 날도 덥고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같이 콩국수 한 그릇 했는데…….”

“했는데?”

평소 후배답지 않게 말이 늘어지자 나는 후배를 다그치듯 되물었다.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요. 저녁에 술 한잔하자고 하기에 점심값 값을 생각으로 또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찌나 빠르게 계산을 하던지…….”

결국 점심, 저녁 식사를 다 얻어먹었다는 것이었다. 밥 한 끼, 술 한 잔도 받아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청렴, 청렴 강조하는데! 순간 화가 났지만 일주일간 고민한 기색이 역력한 후배 얼굴을 보니 차마 입 밖으로 화를 낼 수 없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후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냈다. 두툼한 흰 봉투였다.

임야를 보상할 때는 나무, 농작물의 지장물을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평당 몇 식을 단위로 하여 면적에 적산하는 방법으로 보상한다. 민원인은 이 단위를 크게 해서 보상을 좀 더 받고 싶은 모양이었다.

후배는 민원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고 바로 헤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낮에 민원인이 가지고 온 음료수 상자 밑에는 이 흰 봉투가 깔려 있었다.

그것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흰 봉투를 보

고 있자니 술기운 탓인지 문득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외벌이라 아내에게 멋진 옷 한 벌 제대로 못해 줬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도 충분히 사 주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저 돈이면 아내나 아이들에게 옷이라도 한 벌씩 사 줄 수 있겠지 싶었다. 나도 모르게 하루만 더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 후배가 말을 이었다.

“저도 처음에는 봉투를 보고 아프신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선배님 그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님! 제가 선배님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도저히 이 민원인과 둘이 만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청렴하다고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분은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선배님! 어머니의 새하얀 운동화! 저는 이 흰 봉투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 새하얀 운동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삶의 지표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배님이 제 청렴함의 지표예요.”

새하얀 운동화

우리 어머니는 늘 검소하고 정직한 분이셨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 부지런한 어머니 덕분에 우리 형제의 옷과 운동화는 낡았지만, 늘 깨끗했다. 당신은 변변한 옷 한 벌 해 입지 않으셨지만, 우리 형제들의 옷과 도시락에는 많은 신경을 쓰셨다. 그중에서도 어머니께서 가장 신경을 쓰신 것은 우리 형제의 운동화였다. 어머니는 깨끗한 운동화를 신어야 좋은 길, 소위 말하는 꽃길을 걷는다는 철학을 지닌 분이셨다.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 운동화 신고, 이 운동화처럼 깨끗하고

끗하고 좋은 길만 가도록 해라.”

어머니께서 늘 하얗게 닦은 신발을 신겨 주시면서 하시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났다.

“비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을 아끼고 깨끗하게 써라. 내 몸에 맞으면 그게 명품이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일을 하니 늘 청렴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

청렴을 강조할 때마다 자랑 삼아 하던 새하얀 운동화 이야기. 내 가슴에 담아 둔 이야기를 내가 잠시나마 잊다니!

어머니께서 평생을 가르쳐 주신 교훈을 송두리째 날려 버릴 뻔했다.

후배와 서둘러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이 주말이었지만, 후배를 불러내서 상사에게 보고했다. 상사에게 민원인에게는 음료수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꾸중을 들었다.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에게 법적 규정, 행정 절차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음료수 상자 그대로 돌려주었다. 미리 돌려주지 못한 상황도 설명했다. 그리고 공직자는 흰 봉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참을 말없이 우리 이야기를 들은 민원인은 부끄러움에 붉어진 얼굴을 하고 음료수 상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제가 뭔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큰 결례를 범했네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민원인은 배웅하러 나선 우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어색한

웃음과 함께 사업단을 떠났다. 후배의 후련한 얼굴을 보며 청렴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잠시나마 마음에 기든 부끄러움도 길고 긴 주말과 함께 멀리 날려 버렸다.

청탁금지법과 함께하는 청렴韓 세상

후배와 그 사건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가 되었지만, 나와 후배에게는 평생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남겨져 있다.

“요즘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찾아오나. 절대로, 고민조차하면 안 된다.”

후배가 사온 아이스크림 마지막 한 입을 베어 먹으며 노파심에 이야기했다.

“선배님,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민원인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해도, 뭔가를 부탁하려는 뉘앙스만 풍겨도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해요. 저 법이 우리 공직자를 지켜 주는 방패막이예요.”

후배는 ‘청렴韓 세상’ 포스터를 가리키며 녀석 좋게 웃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워 차 한 잔, 밥 한 끼로 시작된다고 한다. ‘3. 5.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온정주의를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패막이다. ‘청탁금지법’이 법과 제도로써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과 정직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폭염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오듯이 우리 사회에도 청렴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란다.



변화의 마중물

공직부문 이교회

간만에 가족과 함께 대학 선배가 추천한 음식점을 찾았다. 주말인 데다 맛도 좀 괜찮았던 모양인지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 한 시간도 더 있어야겠는데’ 싶은 생각에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기다리자는 아내의 말에 그러기로 했다. 기다리며 투정 좀 해 보려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여기 왔는데 대기 줄 장난 아닌데?”

“너 지금 기다리고 있냐? 대기 번호 몇 번이냐?”

그렇게 대기 번호를 알려 주고 얼마 뒤, 키가 좀 작아 보이는 분이 우리 번호를 호명했고, 내가 손을 들자 잠깐 와 보라고 했다. 가까이 가자 작은 목소리로 “아무 말도 말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일행하고 저 뒤로 오이소”라고 말한 뒤 태연히 가 버리는 게 아닌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식당 주인이자 선배의 삼촌이었고, 내가 투덜대며 전화하니 선배는 알아서 좀 빨리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돌아와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더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 점심도 거르고 에어컨을 켜 채로 꿀 같은 낮잠을 자던 그때는 작년 여름의 어느 주말이었다. 곧 죽을 듯이 토해 내는 매미 소리와 함께 장단이라도 맞추듯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어 댔다.

“야! 울 엄마 암이라는데…….” 고향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다급함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십 년도 훨씬 넘는 근무 기간에 고향 친구들 중에서 병원 관련 종사자가 없어서 본인이나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면 좋겠냐는 식의 전화를 종종 받곤 했다. 그날도 휴대폰에 찍힌 이름 보고 사실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의 단잠을 깨웠던 터라 일부러 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성질 급한 친구의 대뜸 ‘암’이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위암이라는데, 울 엄마가 너거 병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술하게 되면 거기서 하면 좋겠다는데.”

1주일 뒤, 지방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및 영상 CD 등 각종 검사 결과물을 준비해서 외래 진료를 보았으나 역시나 예상대로였고, 수술 일정을 잡으라는 말에 상담해 보니 3주 뒤에나 가능했다.

“좀 더 빨리 우에 안 되나?”

내 생각에는 그리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정작 친구는 그것보다는 빨리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길 원하고 있었다. 수술 전 입원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몇 해 전 나의 어

머니의 암 투병을 통해 잘 알고 있는지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선뜻 답하고 말았다. 그건 수술 예약을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하길 원하거나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을 이유로 중간에 취소하는 사람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잡을 생각이었다. 몇 시간 뒤, 나는 해당 부서로 전화를 걸었다.

“○○과 ○○○라고 합니다. 요즘 위암 수술 많이 기다리나요?”

“네. 조금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아시는 분이 수술 하시나요?”

“아……, 예……, 그게 저…….”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어요. 수술 좀 빨리 할 수 없나 그거죠? 그거 안 돼요.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고, 취소 자리가 나도 그 뒤 분에게 우선 연락드리는 게 맞겠죠?”

담당 직원은 대번에 내가 전화한 의도를 알아차렸고, 나는 애기도 못 꺼내 보고 소개 여성에게 바로 퇴짜 맞듯 그렇게 통화가 끝났다. ‘작년만 해도 진료 예약 취소 생기면 그 자리로 잡아 주는 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다르지?’, ‘내가 높은 직책의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졌다. 친구에게 꼭 될 것처럼 말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싶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몇 시간이 흘러서야 그 비보(?)를 전했고, 그는 상당히 아쉬워하며 3주 뒤에 만나자고 했다. 시간은 흘러 수술 예정일이 다가와 몇 시까지 입원하라는 통보를 받고 올라온 친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야, 1인실밖에 없단다야! 5인실 안 되면 3인실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거기 1인실 병실료 보니 억수로 비싸네.”

다시 난 친구를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이번에는 기필코 해내리라는 이상한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고, 바로 3인실이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5인실로 옮겨 달라고 부탁해 볼 요량으로 전화를 걸었다.

“○○과 ○○○라고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1인실밖에 없나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구요. 자리가 나면 순서대로 1인실에서 3인실로, 3인실에 서 5인실로 옮겨 드리고 있어요. 간혹 5인실로 가시길 원치 않는 분도 계시고, 몇 명씩 퇴원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하니 1인실에서 5인실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1인실로 그렇게 오셔도 하루 이틀 정도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 특별히 누군가만 빨리 옮겨 줄 수도 없고, 침상이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바로 다인실로 입원 절대 안 돼요! 그게 공평한 거죠.”

맞는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했고, 선생님한테 한 차례 훈계를 들은 것 같은 느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사실 난 저번 수술 일정 때도 그렇고 이번 병실 건도 그렇고 직원끼리는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다. 이걸 지금까지 다 통용되었던 보편적 관행이 아니었던가! 여든을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과출소에 순경 한 명만 알아도, 병원에 간호사 한 명만 알아도……” 였는데, 이 말이 곧 몰라서 손해 봤던 당신의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들을 통한다면 일이 쉽게 풀렸던 관행과 관습이 과거를 거쳐 현재에도 있음을 우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음을, 아니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

보다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번 수술 일정 건으로 기분 나빠 했던 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 부끄러움을 안고 친구에게 2전 2패를 알렸다.

결국 친구의 어머니는 배정받은 대로 1인실에 입원해서 수술을 잘 받으셨고, 다행히 이틀 후 5인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서 퇴원을 하기 전날 친구가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해서 만났다.

“어제 엄마한테 처음 수술 일정 당겨 불라고 한 거랑 5인실 갈라고 했던 거랑 다 얘기했더니, 몰랐는데 친구 힘들게 했다고 엄청 화 내시더라. 처음에 니 통하면 될 줄 알고 기대했다가 안 되니 좀 섭섭하더라고. 니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안 되나 싶어서. 근데 알고 보니 너거 병원 완전 FM이네. 암튼 고맙데이.”

“아냐. 다 급한데 우리만 새치기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지. 너도 앞으로는 이런 부탁은 하지 마라. 이제 부끄러워서라도 못 하겠다. 덕분에 또 누가 부탁 전화 오면 그거 안 되더라고 말할 좋은 경험했으니 내가 고맙다야.”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몇 번의 부탁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고, 직장 동료 중 한 명도 “야, 이제 어디 전화도 못 하겠더라”라며 나와 비슷한 실패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아빠, 우리 언제 먹을 수 있어? 저 아저씨가 뭐라 했어?”

우리가 식당 뒷문으로 가는 건 그때처럼 새치기하려는 것과 같았다. 짜증 난 아이들의 성화에 맘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다 자기 순번을 지키고 있는데, 이걸 아니다 싶어 조용히 가서 그냥 기다리겠노라고 말씀드렸다.

“응, 순서 잘 지키고 기다리면 양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 대신 이거 먹고 조금만 더 기다리래.”

불러서 갔을 때, 가지고 왔던 계산대 입구의 손님용 과일맛 사탕 두 개씩 주었더니 신이 나서 더는 청얼대지 않았고, 그렇게 기다린 끝에 우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흔히 군대와 병원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작년 여름 ‘김영란법’ 이후 관행에 대처하는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적잖은 놀라움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이 작은 변화가 청렴 문화를 꽃피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병원과 사회 전체의 부패 및 부정 청탁을 사라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스포츠의 발전은 '청렴'으로부터

일반부문 이남용

“저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내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1999년 한 소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축구 선수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스포츠계 분위기는 지도자들의 폭언 욕설과 접대 문화가 당연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접대와 촌지를 통해 경기에 출전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는 흔한 일이기도 했다.

축구 선수 생활은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졌고, 나는 팀에서 주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주장이었기 때문에 학교 전통에 따라 학부모 회장을 맡으셨다.

모든 선수에게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 진학이 결정되면서 10년간 해 왔던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 가느냐, 그만두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 접대와 촌지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우리 학교는 나름 명문 고등학교로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

적을 이뤄 냈다. 그리고 나는 팀의 주장으로서 조금씩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어느 날 감독님을 통해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전해 들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었기에 날아갈 듯 기뻐다. 그리고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고, 부모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다.

시간이 지나고 학기 말, 대학 진학 결정을 위한 학부모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3학년 선수들이 어느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어디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독님과 학부모의 회의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어서 오시지 못했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드렸지만, 학부모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못 받았다고 하셨다. 의아했다. 아버지께서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감독님과 통화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학교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감독님을 만나셨고, 감독님 방으로 들어갔다.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감독님!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아직 대학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그러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서는 학부모 회장으로서는 해준 게 뭐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국 큰 언쟁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 학부모 사이에서 감독님께 잘 보이기 위해 접대와 뒷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아버지께서는 일절 하시지 않았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고, 나의 대학 입학은 조금씩 어두워졌다. 큰 상처를

받은 나는 축구를 그만두게 될까 두려웠다.

어머니께서도 아들이 축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 그 당시 많은 운동선수들이 고등학교 시절 운동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집안 형편 또한 좋지 않았기에 어머니께서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아들, 미안해. 엄마 아빠가 부유했다면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을 텐데 미안하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부모들처럼 많은 지원을 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상해하셨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다. 그러곤 버럭 하를 내시곤 했다. “돈 써서 자기 자식 선수 만들려는 썩어 빠진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스포츠가 발전이 없는 거야!”

돈 주고 진학할 실력이라면 진학을 해도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나는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대학 입학 적신호로 인해 우울해 있던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도왔는지 이전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한 덕분에 U-20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기성용, 이청용 선수 등 여러 훌륭한 선수들과 국제대회에까지 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회로 감독님의 도움 없이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4년간 열심히 했던 훈련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K리그에 입단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운재, 지동원 등 훌륭한 선수들

과 함께 행복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어느덧 30대가 된 나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다. 12년 전 집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그 대학의 체육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다.

입학 합격 후 가장 좋아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들아, 축하한다. 이 합격은 너의 힘으로 이룬 결과란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한 학기 등록금을 흔쾌히 내 주셨다. 어머니 또한 너무나 기뻐하셨다.

“엄마 아빠의 능력 부족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 주지 못해 가슴 한쪽에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들, 너무 고마워.”

부모님께서서는 정직함을 선택하셨지만, 슬퍼하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선택에 대한 조금의 후회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정직함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절 나의 능력이 아닌 편법으로 인생의 한 단계를 올라갔더라면, 나는 발전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가 힘써 주기를 바랐고, 감독님께 잘 보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했다. 이 과정이 스포츠계가 ‘청렴’하지 못하는 원인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나의 꿈은 체육 분야의 교수,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축구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선수를 배출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새로운 꿈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말씀하신다.

“아들아. 네가 예전에 겪었던 상황을 그 누가 또다시 겪도록 만들지 마라. 너는 깨끗한 교육자가 되어라.” 이 말은 하나의 목표가 되기에 충분했고, 내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과거 접대와 촌지를 통해 경기에 출전시키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게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현실이었다면, 이제는 선수를 돈으로 보지 않고 실력과 간절함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운동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2002년 우리는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히딩크 감독님의 실력과 열정만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선발하겠다는 청렴한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의 발전은 청렴한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스포츠 강국의 대한민국, 깨끗하고 따뜻한 스포츠 환경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스포츠의 발전은 청렴으로부터!”



아버지의 멍

일반부문 최진수

“학생, 학생! 일어나요. 종점이야.”

비몽사몽 아직 덜 깬 머리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부랴부랴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다. 평소보다 늦게 끝난 아르바이트에 코앞에서 놓쳐 버린 버스까지. 오늘 하루에 한 달 치 액땜을 했다고 생각했다.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아니 그보다 당장 닥친 대학교 등록금을 모으는 일에 다른 생각이 들 새도 없었다. 11시가 조금 넘어진 늦은 저녁에 가로등하나 없어 어두컴컴한 벚나무 길에는 큼지막한 선거 현수막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선거철인가. 딱 그 정도의 관심.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후보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진수야!”

교통카드에 잔액이 얼마쯤 남았는지 계산하며 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돌리니 집과 조금 떨어진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나에게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가 혼자서 술을?’ 중학교에 입학한 이래 어머니와 이혼하신 이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던 아버지였다. 그리고 정말 그 후로 한 번도 술 냄새가 난 적이 없었다. 어쩌면 형, 누나, 나,

동생까지 4남매를 키우셔야 했기에 소주 한잔 마실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사무실로 걸어가니 거기에는 절반 정도 남은 소주병 외에 빈 병이 2개나 더 있었다.

“뭘 일이에요.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이리로 와 봐.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보게.”

머리도 어지럽고 피곤하기 그지없어 빨리 자고 싶었지만, 주말엔 쉬기도 하고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아들, 전역한 지 두 달이나 됐는데, 아빠랑 마주 본 적이 없네?”

“아버지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햇수로 8년.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이후로 대학 입학부터 군 입대까지 아버지와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그의 셋째 아들. 은연중에 느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독립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후로 바쁘다며 생긴 10년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질 않았다. 아버지와 가까워지자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내 스스로 먹고살아야 한다는 신념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어느새 멀어져 있었다. 아버지도 느꼈을 텐데,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먼저 보자는 말을 할 만큼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

“진수야.”

한숨 섞인 아버지의 말에서 나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 짧은 순간 동안 불행한 상상이 머릿속에 파고들어 왔다. ‘집이 파산됐나? 내가 모르던 빚이 있더라? 동생이 사고라도 쳤나? 혹시 어디 아프신가? 지금 내가 돈이…….’ 아버지가 입술을 떼기만 기다리다 숨이

뗏을 것 같았다. 한참을 내 얼굴만 지켜보던 아버지는 책상 위에 있던 봉투를 나한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다. 열어 둔 봉투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 10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가질 않아 계속 봉투 속 돈만 쳐다보니 아버지가 마시다 말고 내 손을 잡았다. 농기계를 고치시는 아버지의 손은 기름 때문에 미끄러우면서 굳은살 때문에 거칠게 느껴졌다.

“너희들에게 잘해 준 아빠가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어. 그래도 평생을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았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서 해준 얘기는 이랬다. 오늘 낮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손님이 선거 후보 중에 자신의 친족이 출마했다며 오는 사람들에게 잘 말해 달라고 하고 수리 비용보다 60만 원을 더 주고 갚다는 것이다.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기에 어리둥절하셨던 아버지는 저녁에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아셨다고 한다. 수리 비용보다 더 많이 계산했다고 바로 전화했지만, 그분은 여태 동안 기계를 잘 수리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만 했다고 한다. 늦은 시간에 찾아갈 순 없고,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아 혼자서 전전긍긍하셨다고 한다.

“그게 뭐,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솔직히 안심했다. 대놓고 준 청탁금도 아니고, 공무원끼리의 사이가 아니니 걸릴 일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60만원이면…….

“저 2학기 등록금 4분기 납부금 부족하지 않아요?”

내 대학등록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정도였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다시 종이컵을 드셨다.

“돈은 돌려줄 거다. 그런데 나도 받고 나니까 네 등록금 생각이 나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더라. 괜찮지 않을까, 이번 한 번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혹시 여태 잘했다고 나한테 떨어진 행운이 아닌가 하고.”

아버지는 죽을죄라도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셨다. 그래, 어쩌면 불쌍하게 여긴 무언가가 우리한테 준 선물일지도.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하지 않나. 이런 작은 시골까지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나는 봉투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 뒀다.

“아버지, 저는…….”

“진수야,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어. 그런데 사람이 가슴속에 한번 멍이 들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더라고. 만약 이 일로 네가 대학교에 복학한다 해도 후에 너네 4남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평생 시달려서 살 수밖에 없어.”

그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고민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아,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는 건 돌려줄까 말까가 아니구나, 그 잠깐의 고민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는 건 아닐까 때문이구나.’ 나한테 한없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눈도 못 마주치는 아버지에게 나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하늘이 멍든 것처럼 퍼렇게 될 때까지 같이 있어 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손님에게 봉투 그대로 다시 갖다주었다. 그럼에도 시원치 않으신지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까지 피해가 같까 싶어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결심을 하시고 전말을 쓴 종이를

봉투에 넣고 해 뜨자마자 가신다고 하셨다. 그다음 날, 혹시나 하는 일에 나는 아버지와 같이 경찰서로 갔다. 그날 경찰서에는 웬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았고 한참 시끄러웠다. 작은 시골 경찰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은 흔치 않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서를 나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다.

“아니, 저는 원래부터 A후보를…….”

역시나, 아버지가 신고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도 진술해야 한다면 들어가려 하셨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아버지, 굶어 부스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가 당당하시면 됐잖아요. 아버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받으셨고, 알고 나서는 바로 돌려주셨어요. 그럼 됐어요.”

아버지는 찻잔한 얼굴로 나와 단둘이 순대국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같은 상에서 먹는 밥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와 동생이 치킨을 시켜 놓고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둘 다 아직 안 자고 뭐해?”

“형, 아빠 상 받았어.”

동생이 내 눈앞에 갑자기 들이민 투명한 감사패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을에서 주는 인기상 같은 거라고 아버지가 씩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렇게도 웃으시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옷을 갈아입고 씻으러 나오자마자 나와 동생을 나란히 앉히곤 치킨 닭다리를 하나씩 쥐여 주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하셨다.

“진수야, 만약 그때 그거 받았더라면 이 상을 못 받았겠지?”

아버지가 하는 말에 나는 치킨을 먹다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응

이 시원치 않자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다.

“상에 자녀 장학금이 딸려 오더라. 네 등록금 낼 수 있을 만큼.”

“네? 정말요?”

“그래, 아빠 좀 멋있냐?”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자랑스럽게 통장을 꺼내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다.

지금은 동생도 나도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버지는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며, 이제는 늦게나마 노후를 준비하신다. 더 잘된 일도, 더 나쁜 일도 없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다. 나는 아버지와 일화에서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착한 일 후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돈에 허덕이고 있고, 착한 일 하고도 악재가 생기는 경우도 수도 없이 느껴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느낀 ‘청렴’이 지닌 의미를 얘기하고 싶다. 그 청렴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처럼 가슴속에 멍이 생기지 않기 위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바로 ‘청렴’이 지닌 의미가 아닐까.



나의 자존심은 얼마?

일반부문 최현주

남편과 나는 슈퍼를 같이 운영합니다. 물건은 남편이 시장에 가서 사 옵니다. 간혹 물건과 영수증 수량이 맞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건이 덜 오면 쫓아가서 찾아오면 되지만, 물건이 더 오면 가끔은 ‘그냥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법한데, 우리 부부는 당연히 가져다줍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10년 전쯤의 일이었을 겁니다.

긴팔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되니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약간 더운 가을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남편과 교대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담배 대금을 다음 날 줘야 해서 은행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통장으로 거래를 하지만, 그때는 현금 거래를 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 다음 날 줘야 할 담배 대금 130만 원쯤 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주는 돈을 가방에 잘 넣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가방을 챙겨서 슈퍼로 출근했고, 별 생각 없이 담배가 배달되어 왔을 때 은행에서 찾은 돈 130만 원을 쫓습니다. 그런데 담배 배달 아저씨가 10만 원을 더 쫓다면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받아 들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찾은 돈은 130만 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우리 돈이 10만 원 있었던 것인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가방에 10만 원 넣어 뒀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해 보더니 넣어 둔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은행 직원이 돈을 더 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져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스멀스멀 다른 쪽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찾아 드리지 못해서 헤매고 물건 값 계산도 잘 되지 않아서 틀리고 손님들이 얼굴빛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항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생각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지금 가게 사정이 어려운데, 아이들 치킨 하나 피자 하나 더 사 줄 수 있는데 하는 생각, 그 좋은 과일 하나 못 사 먹이고 맨 멍들고 말라비틀어진 것 겨우 먹이는데, 그냥 비싼 과일 사 먹을까 하는 생각, 은행 직원은 분명히 계산이 안 맞아서 곤란을 겪고 있을 텐데, 이러면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교대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정신이 없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을 낼 수가 없어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3시쯤 남편이 교대하러 왔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못 하고 몸이 피곤해서 그러니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고 슈퍼에서 얼른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은행을 지나야 하는데 은행 근처에 다가갈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렇게 사느니 자수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이었는데, 다행이었는데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다음에 오면 되지’ 하고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밤새 끄끙 앓았습니다. 맛있는 과일과 그녀의 얼굴이 내 눈앞에서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도저히 가게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점점 10만 원은 나의 것으로 조금씩 타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누가 알겠어. 그녀도 연락이 없는 것 봐서는 정말 모르나 보네 뭐! 내가 가졌다고 해도 돈도 많이 버는 은행 직원에게는 별일 없을 거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쯤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아들 종성이가 울면서 뛰어들어 왔습니다.

‘아양~ 아양~~’

‘왜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원영이가 내 유희왕 카드를 가져갔어요! 양~~’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원영이가 유희왕 카드를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가져가서는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유희왕 카드는 1장이 아니라 100장쯤 되는 것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형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빌려준 건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형한테 엄청 혼날 것이라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잃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양으냐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원영이는 남의 것을 가져가면 다시 안 주는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원영이가 유희왕 카드를 집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몰래 숨겨 놓고 안 주는 것이라면 가서 달라고 해서 받아 올 수 있지만, 진짜 잃어버린 것이라면 괜히 친구를 의심하는 것이라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믿는 마음으로 원영이에게 말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원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사는 집 앞으로 나를 데려갔고, 원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원영이구나! 난 종성이 엄마야!”

“예! 왜요?”

“네가 가져간 유희왕 카드 받으러 왔어.”

“잃어버렸는데요.” 역시 생각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서 아줌마가 찾아봐도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원영이는 내 얼굴을 잠깐 보고 생각해 보더니 “잠깐만요” 하고는 3층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원영이 손에 유희왕 카드가 한 움큼 쥐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아이가 카드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원영아, 이걸 네 물건이 아니지 않니? 남의 물건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니? 너도 네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겠어? 속상하지 않을까?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영이는 내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했고, 다른 곳을 보다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는 원영이를 쳐다보며 아이의 표정이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원영이에게 했던 말이 자꾸 내 가슴속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있던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막 웃으며 “고생했네! 반성 많이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겠지?”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뇌물 받는 사람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묻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10억 주면 받을 거야? 100억 주면 받을 거야?” 남편은 “내 자존감이 100억밖에 안 돼?”라는 말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문제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혼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얘기해 줘서 더 깊이 반성했습니다.

당장 은행으로 가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때가 오후 6시쯤이어서 은행으로 당장 쫓아갈 수는 없었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다행히 그 여직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출하는 과정에서 10만 원을 더 받아서 가져왔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은행 직원은 황당해하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을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망설였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진작 결심하지 못한 내가 참 바보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양심에 걸려서 많은 고민을 한 나는 돌려주고 나니 참으로 홀가분해서 왜 고민을 했나 싶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뒤부터 마음가짐이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청렴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남편과 같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없는 물건이 들어오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고민하고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맘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몸도 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묻습니다.

“너의 자존심은 얼마야? 몇 억? 우리 자존심 지키고 살자!”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부끄럽지 않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순서를 이어가다

일반부문 구자준

고등학교 전교 학생회장으로 출마했을 때의 일이다. 팀원들과 막바지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함께했던 부학생회장 후보의 어머님께 전화가 왔다.

“내년 봄에 학교 내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됐어요. 학생들은 아직 모를 테니 선거에 지혜롭게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혜로운 활용이라. 유독 기억에 남는 말이었다. 함께 전화 내용을 들은 팀원들은 모두 흥분에 들떴다. 박빙의 승부를 앞둔 상태로, 결정적인 뒤집기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뻐하며 웅성거렸다.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뭐라고 이렇게 어머님까지 ‘지혜로운’ 도움을 주려 하신 걸까. 예상은 쉬웠다. 당시 대학 입시에서는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을 맡으면 가점이 붙거나 해당 전형이 따로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함께했던 후보는 대학을 위해 이 자리를 반드시 얻으려 했었고, 나 역시 내심 원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넋죽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당

연히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야 하거늘 말 없는 고민과 침묵을 길게 흘리고 말았다.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전화기 너머 어머니가 매우 당황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노련(?)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애매하게 전화를 끊었다.

친구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가 된 분이셨다. 학교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셨고, 나중에는 알았지만 지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다. 게다가 나보다 부학생회장의 인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나 친구 입장에서는 나의 고민 자체가 곱게 보일 리 만무했으리라.

“교내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다.”

박빙이었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 한마디면 전세 역전이다. 학생회장이 된 후에,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 학교 측에 건의하고, 결국 에어컨이 설치된다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당당히 당선되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리라. 더구나 나처럼 인기 없는 학생이 학생회장을 꿈꾸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공약이 절실히 필요했다.

학생회장은 소위 인기 많고 잘나가는 학생이 되는 자리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소설책 읽기가 유일한 취미인 내게 인기가 있을 리 없었고, 애초에 당선은 희박했다. 하지만 당찬 고집 하나로 학생회장에 도전하였으니, 이런 기회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선거를 위해 했던 ‘진짜 노력’들이 나를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처음 출마를 위해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 ‘무슨 황당한 소리냐’는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거늘 선생님은 의외로 나를 적극 응원해 주셨다. 다만 걱정되셨는지 당시 유례없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다른 1학년 학생을 부학생회장 후보로 주선했다.

“이 친구는 1학년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어머니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너와 함께하기에 제격일 거야.”

친구는 전교 1, 2위를 다투는 모범생인 데다 인기도 많았다. 왜 하필 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지금도 궁금하지만, 덕분에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상대팀 후보들은 막강했다. 특히 ‘잘나가는’ 친구들을 모두 꺾고 있는 운동부 출신의 키 크고 말도 잘하는 친구가 압도적인 강적이었다. 친구의 위세는 대단했다. 학교에서 선거 유세하는 게 눈치가 보일 정도였다.

할 수 있는 노력은 어쨌든 다 해 보자는 생각으로, 집에서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나는 반 친구들에게 한 명씩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횡설수설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나를 뽑아 줘’를 돌려 말하는 나만의 유세였다.

반마다 돌아다니는 연설을 준비했다. 연설은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A4 한 장으로 요약한, 태어나 처음 써 보는 연설문에 혼신을 다했다. 글을 썼다 지우고, 말해 보고 어색하면 지우고 다시 쓰고, 거울 보고 말해 보기를 수십 차례 연습했다. 마침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우렁차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되었고, 전교를 돌며 훌륭히 연설을 해낼 수 있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선거 운동은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친구들에게 어색하지만 열심히 인사하는 내 모습을 몰래 자랑스러워했다. 함께한 팀원들에게 미안하지만, 혹 떨어지더라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열심히 전화한 보람인지, 함께한 부학생회장의 인기 덕인지, 우리는 조금씩 승세를 탔다. 꽤 많은 학생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거의 당선에 가깝다고 치켜세우는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둘 중에 도대체 누가 될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었다.

이젠 결정적인 한 방으로 선거를 뒤집을 기회를 노리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TV 연설을 며칠 남겨 둔 날, 그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진짜 노력’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다 보니,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 ‘에어컨 공약’으로 이긴다면 내가 한 진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열심히 전화를 걸고 연설 연습에 몰두한 내 모습이 초라해질 것이다. 결정적으로 주체를 따지자면 분명한 거짓말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작은 용단(?)을 내리고, 후보 친구를 불러 말했다.

“어머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에어컨 이야기는 아무래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참 나, 오빠 나 덕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렵게 도움 주시는데 무시하는 건가요?’라고 핀잔 들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친구가 섣뚱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제 걱정을 많이 해요. 솔직히 대학 갈 때 가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하면 이길 건 확실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도 에어컨은 솔직히 좀 그래요.”

의외의 대답에 순간 감동했다. 사랑 아닌 사랑 같은(?) 감정이 피어오를 정도였다. 끈끈한 동지애라는 게 이런 것일까. 에어컨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더욱 굳건해진 팀워크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17, 18살이 얼마나 대단한 선거를 할 수 있었느냐는 마음만은 대통령 선거만큼 진지했다. 선거 운동하는 우리도,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정확히 12표 차이로 떨어졌다. 1000여 명의 학생 투표에서 마지막 2, 3분을 남겨 두고 최종 12표 차이로 학생회장이 결정되었다. 속 시원한 패배였다. 우리가 한 노력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았으니 아쉬우면서도 묘하게 상쾌했다. 패배가 확정되고, 함께했던 후보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아쉬워하면서도, 시원한 미소를 띤 맑은 얼굴이었다.

기억 속에 조금이나마 가깝다면 가까운 청렴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 보니 ‘청렴’은 어떤 위치에서만 지킬 수 있는 ‘수칙이나 도리’라기보다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일상의 순서’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청렴하다는 것은 곧 당연한 순서를 차례대로 이어갈 뿐이니 고민할 필요 없이 이어 가면 되는 것 아닐까.

단편소설





중독

류보선

“석 달이나 달라붙어서 판 사건을 포기하라고요?!”

대머리 과장의 전화를 받던 오인구의 표정이 깨진 거울처럼 일그러졌다. 자기도 모르게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자 손잡이에서 부서질 듯 뿌드득 소리가 났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니, 사건을 덮으라는 거나 다를 바 없었다.

“국장님 전화도 왔는데, 이번 건은 여기서 접는 게 어때? 정황만 있고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더 파서 뭘 어찌겠어? 간신히 잠잠해졌는데, 계속 건드려 봐야 우리만 피곤해진다고.”

팀장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

“여기까지 왔으면 할 만큼 한 거야.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여기서 접자. 응?”

2개월 전 유치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심한 아이는 고열로 인해 며칠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인지 능력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매스컴에서는 경쟁적으로 사건 보도에 열

을 올렸다. 그러나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 줄 보존식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역학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됐다. 대형 육류 가공식품 업체인 OO식품의 제품군을 섭취하고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결국 조사팀이 업체를 방문해 조사하고 주의를 주는 정도로 민원이 무마되었다.

한 달 뒤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이번에는 익명의 제보가 수사팀에 접수됐다. OO식품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서 단체 급식 장소나 식당, 마트에 식재료로 납품했다는 제보였다. 내용은 범죄 수법과 제품명이 특정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유통 기한 위조 작업은 한 밤중에 몰래 이루어지니 단속은 저녁 시간을 노리라는 조언도 함께였다. 제품이 학교로 많이 납품되는 특성상 개학을 앞둔 시점에는 물량이 딸리기에 반드시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OO식품의 제품이 해당 유치원들에도 납품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 수사3팀의 오인구는 급하게 단속 팀을 꾸려 현장을 덮쳤다. 때마침 다른 팀들이 새로 맡은 사건들로 분주했기에, 모처럼 그에게 짬짬한 건이 배당된 것이다. 오랜 경험에 의한 축으로는 전혀 까다로운 일이 없었다. 제보자도 분명 내부 직원일 것이고, 개인 정보만 잘 보호해 주면 증거와 진술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범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무언가 작업을 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은 낌새였다. 하지만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의 증거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했다. CCTV에는 전날 밤 녹화된 영상만이 남아 있

었다. 담당 직원은 저장 장치 고장으로 이전 기록은 지워졌다고 진술했다. 고의로 삭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행히 오래된 포장과 새 포장을 바꿔치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화질이 좋진 않았지만, 포장지의 색깔이나 디자인이 분명히 달랐다.

영상에 나온 십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노란색 포장은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고 파란색 포장이 새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 포장지로 포장했던 제품들을 다시 새 포장으로 바꾸었을 뿐 유통 기한을 바꾸기 위한 작업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인 단순 작업자들이었기에 추궁한다고 해서 딱히 더 나올 것은 없었다.

사장인 김규태는 두꺼비같이 불룩 튀어나온 배와 통통한 볼살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

“수사관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모범업체상을 여러 번 수상한 곳입니다. 십 년이 넘게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를 질투하는 타 업체에서 음해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의 등 뒤에 우뚝 솟아 있는 고급 원목 진열장 안은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해 얻은 표창장과 상패들로 빼곡했다. 해마다 고아원과 노인요양원에 기부를 하면서 제작한 기념사진 액자들도 수십 개가 넘었기에, 고등학교 동창회 사진 따위는 맨 뒤쪽에 처박혀 있었다. 오인구는 그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은 이렇게 사회 활동이 바쁘시니, 회사 업무를 보기 어려우시겠는데요?”

김규태는 거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 대외 업무만 맡고 김한상 상무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무인 김한상은 김규태의 아들이었는데, 그에게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 야간 제품 포장 작업이 납품 일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은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가장 아쉬운 건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찌된 일인지 단속반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통 기한이 인쇄된 포장지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이 가긴 했으나, 추측일 뿐이었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세부 내용을 알 만한 참고인이 필요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장 이하 직원들은 사장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 년 전 회사를 그만둔 전임 공장장 박정기는 말수가 적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어서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게다가 일을 너무 철저하게 챙기는 바람에 사장과 다툼이 잦았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으로 반 년 정도 일한 김성철과는 친분이 있었다. 아마도 김성철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식품가공 공장을 찾아온 점이 마음에 들어서였을 거라는 게 다른 직원들의 추측이었다.

아쉽게도 그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김한상은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정보통신법 때문에 육 개월이 넘으면 퇴직자 개인 정보는 모두 파기한다고 진술했다. 주먹이 올라갈 정도로 얄미운 말투이긴 했지만, 맞긴 맞는 말이었다.

다음 날 오인구는 잔소리에 잔뜩 시달릴 것을 각오하고 결과 보고 회의석상에 앉았다. 그러나 대머리 과장은 다른 신경 쓸 문제가 있어서인지 별 말이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1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은근슬쩍 말을 흘렸다.

“자네도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거 참……. 골치 아프겠는걸.”

오인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말투. 어차피 사건이야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욕을 먹어도 내가 먹는 건데, 무슨 이유로 걱정을 해 주는 걸까? 기분이 묘했다. 그냥 한번 떠보는 걸 테지. 혹시나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해서 사건을 망치길 바라고 있을 테니까. 오인구는 오기로라도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다. 수십 권의 제품 원재료 수불부와 폐기대장까지 일일이 맞춰 보며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별다른 소득도 없이 또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다.

저녁이 되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장마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다더니 제법 빗줄기도 굵었다. 오인구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란한 마음을 달랬다. 하루 종일 골머리를 싸매다 보니 몇 년 전에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 입이 근질거렸다. 불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같은 팀의 후배 여홍철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사건 때문에 이번 건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공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다른 직원들이 눈치챌 수 없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근처 조그만 국밥집 안에 들어서자 여홍철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오인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숨 좀 돌리세요.”

여홍철이 오인구 앞에 놓인 컵에 찬물을 따르며 입을 열었다.

“CCTV에 나온 직원들을 수소문해서 그만둔 공장장하고 친했던 아르바이트생 연락처까지는 알아봤는데…….”

“알아봤는데?”

“동종 업계라 그런지 많이 꺾끄러워하던데요.”

“당연히 그렇겠지.”

“OO식품 김 사장이 공공연히 보복 운운한다는 소문도 있고…….”

“뭘 보복한다는 거야?”

오인구는 인상을 쓰며 소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입안에 털어 넣었다.

“자기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다시 이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데요. 삼십 년 넘게 이쪽에서 잔뼈가 굵은 업체고, 육가공식품연합회 회장이기도 하니까 무서워할 만도 하죠. 밥줄이 끊어지는 건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인구가 뿌드득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금니를 짹 깨물었다.

“아휴, 그게 아니에요. 회사에서야 선배 눈치 보느라고 앞에서 말해 주는 사람이 없겠지만, 국회의원 쪽도 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인데, 지금 똥 밟으신 거라고…….”

“똥? 똥?”

오인구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아,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

여홍철이 손사래를 치며 흥분한 오인구를 달랬다.

“휴……. 선배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뒤에서 말 많은 거…….”

“…….”

오인구는 입을 꼭 다문 채 곰 같은 손으로 조용히 술잔을 따랐다. 여홍철도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니 잔을 들이켰다. 잠시 오인구의 눈치를 살피던 여홍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그냥 혐의 없음, 아니 증거 불충분으로 하시죠.”

오인구는 홍철을 쏘아보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지었다.

“뭐가 무서워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1팀 제 동기 김강우한테서 들은 말이 있어요.”

“강우? 뭐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 실은 1팀에 먼저 떨어졌던 건이에요.”

순간 오인구의 머릿속에 1팀장의 원숭이 같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뭔가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어쩐지 마주칠 때마다 내 눈을 피하는 것 같더라니. 동기 중에 승진이 가장 빠르긴 했지만, 어려운 건은 절대 말지 않고 골라서 피해 가는 녀석이었다.

여홍철은 작심한 듯 말을 쏟아 냈다.

“왜 이걸 우리한테 미웠겠어요? 당연히 똥파리 낄 줄 알고 그런 거죠. 증거 확보해서 간신히 기소한다고 쳐도, 결정적인 게 아니면 검찰에서 무혐의로 떨어질 텐데……. 괜히 고생하고 육만 먹는 거죠. 솔직히 쌓인 게 사건이잖아요. 다른 건도 많은데 굳이 이걸 들고 팔 필요가…….”

“…….”

오인구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무안한 홍철이 고개를 돌리자 오인구는 익살스런 말투로 잔을 건넸다.

“아이고, 여 수사관님 바쁘신데, 귀찮게 부탁해서 미안합니다.”

홍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휴, 전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너한테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연락처나 내놔.”

오인구가 손을 불쑥 앞에 들이대고 어서 내놓으라는 시늉을 하자 홍철은 마지못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냈다. 오인구는 얼른

그것을 낚아채 주머니에 넣고 남은 소주잔을 마저 들이켰다.

“수고했다. 역시 홍철이 능력 있어. 흐흐흐.”

홍철은 설득을 포기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이 번호 주인이에요. 전화번호 바꾼 지 반 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김성철이 OO식품에서 퇴직한 시점하고 일치 하고요. 급히 전화번호를 바꾼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감출 만한 게 있어서였겠죠.”

“수고했다. 여기서부터 내가 말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어. 인마.”

오인구는 걱정하는 그를 뒤로하고 국밥집을 나왔다.

어쩐지 이런 고급 떡밥이 나한테까지 흘러들어 온다 싶더라니……. 결국 1팀에서 미룬 탓에 3팀에 떨어진 건이다. 어차피 똥 같은 사건이니 내가 맡으면 어울리겠다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파고들지 못할 거라고 믿은 건가?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 보자. 오인구는 사무실로 돌아와 간이침대에 몸을 눕힌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능팀의 허경아는 아침 일찍부터 오인구가 찾아와 자신을 기다린 걸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아, 오랜만이네. 요즘 얼굴 보기 힘든데, 많이 바쁜가 봐?”

“네, 선배,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아침부터…….”

“부탁할 게 좀 있어서.”

“…….”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오인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하는 그 건 맞아. 소문이 파다하게 났으니 잘 알겠지.”

“그게 아니라…….”

“곤란하게는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알다시피 내가 컴퓨터는 잘 몰라서 말이야.”

“휴, 그럼 제가 도와드렸다는 말씀은 좀…….”

“아, 당연하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이 전화번호 원래 주인을 좀 찾고 싶어서. 이름이 김성철인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

“음. 젊은 사람인가요?”

“이십대 중반?”

“그럼 SNS 같은 거 많이 할 나이네요. 뒤져 볼게요.”

반나절 뒤 오인구는 김성철의 전 여자 친구인 한경애가 근무하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 서 있었다. 다행히 김성철은 직접 찍은 사진을 꽤나 많이 개인 블로그와 SNS에 올려놓았다. 여자 친구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는데, 옷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많은 점을 한경애가 이상하게 여겼고, 배경에 나온 매장 로고의 브랜드가 입점된 백화점 몇 군데를 뒤진 것이다.

“누구신데 성철이 연락처를 물으세요?”

오인구의 거칠어 보이는 외모 탓에 한경애는 경계심이 잔뜩 묻어난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오인구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녀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개가 무슨 큰 사고를 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사건 참고인이라 사실관계를 좀 물어보려는 겁니다.”

“…….”

“사진에 보니 다른 친구들하고 찍은 것도 많던데, 어차피 연락처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급해서 그러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오인구가 담담하게 설득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김성철의 연락처와 직장을 알려 주었다. 오인구는 바로 연락을 하지 않고, 그가 일하고 있는 커피숍으로 직접 찾아갔다.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카운터를 살펴보자 김성철이 주문받은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진동 벨이 울리자 오인구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김성철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절 어떻게 아시죠?”

오인구에게 커피를 건네던 김성철이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떨리는 목소리였다.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인구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는 뭔가 눈치를 챈 듯 말투가 바뀌었다.

“전 아는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일했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한 것만 사실대로 진술해 주세요. 6시에 교대죠? 요 앞 호프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

두 시간쯤 지난 후, 오인구의 앞에 앉은 김성철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인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분히 말을 꺼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김성철 씨는 참고인일 뿐이지, 내가 진짜 듣고 싶은 건 공장장 박정기 씨 이야기니까.”

“형사님. 전 진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김성철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누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김성철은 영업상무인 김한상의 지시로 공장장과 함께 재포장 작업을 한 경위를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 포장과 제품 적재만을 담당했기에 자세한 과정은 공장장인 박정기가 아니면 알 수 없었다. 유통 기한을 어떻게 허위 표시했는지는 아르바이트생이 증언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공장장님은 참 좋은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인과 사별하시고, 혼자 키우시던 따님이 병에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모든 지시는 김한상 상무가 했다는 건데……. 김규태 사장은 전혀 몰랐나요?”

김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지시는 김한상 상무가 했지만, 사장도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김규태 사장은 아주 꼼꼼한 성격이에요. 본인한테 모든 일을 보고하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며,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할 정도인걸요.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으로 잠깐 일한 저에게도 일일이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인데, 김한상 상무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을 벌일 수는 없죠.”

역시 오인구의 추측대로였다.

“김성철 씨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 일을 도운 건 아니겠죠?”

“휴……. 당장 등록금이 급하고, 시급이 센 편이어서 OO식품에서 일하긴 했지만, 범죄인 줄 알면서도 일을 도운 건 아니에요. 몇 개

월 동안은 몰랐는데, 그 건 때문에 공장장님이 사장님하고 크게 다투고 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불법적인 일을 돕는 거니까 이제라도 잘 생각하라고……. 다음 날 공장장님은 회사를 그만 두셨고요. 저도 제가 한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겁이 나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르고 한 일인 데다 단순 작업을 보조한 정도라 참고인 조사로 끝낼 겁니다. 그건 그렇고, 박정기 공장장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공장장님 연락처는 지워졌지만, 따님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알아야요. 지나가다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한강병원이에요.”

“음, 협조 고맙습니다. 김성철 씨,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은 것 같으니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급히 밖으로 달려 나가는 오인구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강병원 902호실로 찾아간 오인구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들어가기를 망설였다. 소아암 병동이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기 싫었다. 박정기의 딸은 간병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와 함께 있었다. ‘박혜린, 여아, 만 8세’라고 또박또박 적힌 이름표가 한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오셨나요?”

간병인이 물었다.

“아, 혜린이 아빠 친굽니다. 한 번도 찾아오질 못해서 문병도 할

검 검사점사 왔습니다.”

그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세요? 제가 간병한지 일 년이 넘도록 아무도 문병 오는 사람이 없어서 별일이다 했는데……. 헤린이 아빠는 저녁 늦게 와요. 연락은 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괜히 신경 쓸 것 같아서요. 헤린이하고 놀아 주면서 기다리면 되죠.”

“그러세요? 마침 잘됐네요. 저도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으니.”

그녀는 잠시 개인 용무를 보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오인구는 혹시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놀라지는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헤린아, 아저씨는 멀리 사는 아빠 친구야. 아빠는 요즘에 많이 바쁘시니?”

“네, 저 때문에 밤에도 일하시느라 바쁘세요.”

조그만 곰 인형을 가지고 놀던 아이는 밝게 웃으며 답했다.

“오늘도 늦게 오시는 거야?”

“네, 일하셔야 된대요.”

“휴, 힘드시겠구나.”

“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헤린이는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아저씨가 다음에 올 때 꼭 사 올게.”

“음, 곰 인형. 이거보다 훨씬 커다란 거요.”

“알았어. 아저씨가 제일 큰 걸로 사 올게.”

오인구는 파리한 얼굴빛의 아이가 안쓰러워 머리카락이 없는 조그마한 머리를 저도 모르게 쓰다듬었다. 그러자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동화책을 내밀었다.

“이거 읽어 주세요.”

“응? 아저씨는 동화책 잘 못 읽는데.”

오인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거 참…….”

“처음부터 읽어 주세요.”

“음…….”

오인구는 더듬더듬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가 조그만 병실에 깔리자 아이는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오인구가 간신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눈을 들어 보니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피로에 찌든 얼굴을 한 왜소한 몸집의 박정기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덩치 큰 낯선 남자를 보고 흠칫 놀라 문 앞에 멈춰 섰다. 오인구는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야, 정기야. 오랜만이다!”

오인구는 얼떨떨해하는 그를 껴안고는 귓속말로 조용히 속삭였다.

“박정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따님은 막 잠들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인구가 슬쩍 신분증을 내밀자 박정기는 체념한 듯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순순히 그의 말을 따랐다.

병원 복도 끝 벤치에서 오인구가 내민 캔 커피를 한참 동안 손에 꼭 쥐고 있던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하십시오.”

“부끄럽지만 딸아이에게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때를 봐서 직접 말해 주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얻은 자식이라, 몸이

아프기는 해도 저한테는 금쪽같은 딸입니다. 아빠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몸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유통 기한을 인쇄하는 기계는 제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단순 작업만 시키고 그 일은 저 혼자 했습니다. 그 대가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고요. 아마 직원들은 모를 겁니다. 단순 포장만 하고 배송만 했으니……. 제가 저지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공장장님의 증언이 김규태 사장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제보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몰래 범죄를 저지르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었겠죠.”

오인구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준 박정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니요. 저는 제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

오인구의 머릿속이 팽이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아니면 제품명이나 범행 과정을 특정할 수 없을 텐데……. 제보자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싫든 좋은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자다. 은밀히 저질러진 범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정기가 제보자가 아니라면? 누구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장이나 상무, 공장장만큼 혹은 그 이상.

“박정기 씨……!”

오인구는 무언가 집히는 데가 있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어둠에 가려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오인구의

얼굴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수사의 마무리 시한인 금요일 아침, 오인구의 발걸음은 대머리 과장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섰다.

“무슨 일이야?”

보고서를 읽고 있던 과장은 통명스럽게 물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있다가 회의니까 나중에 해.”

과장은 오인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과장님, 명진고 27회 졸업생이시더군요.”

오인구는 그의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OO식품 김규태 사장과 고교 동기시고요.”

과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오인구를 노려봤다.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의 언성이 높아졌다. 오인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 갔다.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무마해 주는 대가가 너무 적어서 제보를 하신 건가요?”

“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과장의 대머리가 순식간에 정수리까지 붉어졌다.

“그동안 뒤를 봐주는 대가를 꼬박꼬박 상납해 오던 김규태 사장이 금액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겁을 주려고 제보를 했고, 다른 팀들은 이런 내막을 알고 손을 못 대니 이거저거 안 가리는 저한테 떠넘긴 거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일을 너무 빨리 진행시

키자 다시 급하게 귀땀해 줘서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준 거 아십니까? 원래 겁만 주려고 했던 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선 곤란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감히…….”

과장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오인구는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곧 단속 팀이 들이닥칠 거라는 사실을 김규태에게 알려 주는 과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과장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곧 체포조가 도착할 겁니다.”

오인구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과장을 그대로 남겨 둔 채 돌아섰다. 곧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다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오후, 오인구와 여홍철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감찰반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난 직후였다. 여홍철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선배님, 어떻게 과장하고 김규태 사장이 고교 동창이란 걸 아셨나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연이나 지연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크지. 처음에 김규태 사장 방에 들어갔을 때 동창회 사진부터 찾아봤어. 사람이 많다고 해도 대머리는 눈에 띄니까.”

“음, 그럼 과장이 익명의 제보자인 건 어떻게……?”

“제보자는 반드시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박정기가 아니라면 그 정도로 상세히 범행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OO식품 관련 식중독 사고 민원은 과장 지시로 업체에 주의만 주고

무마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처리해 놓고 한 달 뒤 출처도 알 수 없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불시 단속에 쉽게 동의하다니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어. 김규태의 뒷배를 보면 엄청나게 귀찮아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야. 게다가 단속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건 더 이상했지.”

“녹취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김규태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일일이 직접 업무를 지시할 만큼 꼼꼼한 사람이야. 당연히 과장한테서 오는 전화를 모두 녹취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사장이 순순히 녹취본을 내준 건가요?”

“아니. 박정기 공장장이 김규태 사장보다도 더 꼼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가? 공장장은 마지못해 사장의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CCTV 녹화본과 유통 기한이 변조된 포장지를 일 년 치나 보관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사장의 목소리도 녹취해 놓았고. 그걸 김규태 사장에게 들이대자 그도 이판사판으로 과장의 금품 요구와 단속 정보 사전 유출 녹취본을 내놓은 거야.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다 드러난 마당에 뭇 때문에 비리 공무원을 보호해 주겠어?”

“음, 그나저나 뒷선까지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이 꽤 커지겠네요.”

“당분간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지. 부패에 중독되긴 쉬워도 끊는 건 수백 배 고통스러운 법이야. 불법이란 게 처음엔 달콤해도 끝은 씹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휴, 그건 그렇고, 지금 갈 때가 있으니 내 대신 이야기 좀 잘해 줘.”

“예? 또 어딜 가시려고요?”

“약속을 해 놔서 꼭 가 봐야 할 데가 있어.”

홍철은 종종히 사라지는 오인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시내로 접어든 오인구의 차는 한강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통통한 얼굴에 배시시 웃고 있는 커다란 곰 인형과 함께였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려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밖에 도로 넣어 구겨 버렸다. 입맛은 씹쓸했지만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것이다.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가득한 오후였다.

※ 이 소설에 나온 사건이나 등장인물, 사업체, 단체 이름 등은 모두 허구입니다. 실제와의 유사성은 우연이며, 의도하지 않은 바입니다.



미수취소액환(未受取少額換)

이근

출근하는 시간은 빗길이었다.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줄곧 한쪽 손목에 힘을 주어 우산을 받쳐 쓰고는 있었지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우산 속으로 이리저리 들이치는 비에 새로 산 다크브라운색 구두는 흠뻑 젖고 말았다. 건물 앞에 도착해 우산의 물기를 여러 차례 떨어내다 말고 주머니 속 담배를 꺼내어 한 개비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높다란 도심의 빌딩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전날 저녁 뉴스의 일기 예보에서 예측한 그대로 여름 장마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듯이 한결 무거워 보였다. 입에 문 담배 필터를 통해 느껴지는 비 오는 날 아침의 축축함이 입술을 통해 온몸으로 한껏 전해져 왔다.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본 후 절반쯤 피우다 만 담배를 물이 흠뻑 고인 흡연 구역 재떨이 통 속으로 던져 넣고, 회사 건물의 입구를 지나 11층 사무실로 오르는 홀수 층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선 사람들은 눈인사를 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며 점등하는 불빛이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를 눈으로 세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무심코 그를 스치듯이 보았을 때만 해도 선뜻 그인지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11층에 막 도착했을 때 나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가 내 뒤로 다가와 ‘구매 부서’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와 나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은

색 안경테에 희끗하게 벗겨진 앞머리 그리고 듬성하게 난 팔자 눈썹 라인. 전혀 그 인상이 낯설지만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몇 초 동안 이어지자 이름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불현듯 호명되었다.

“이기영……. 그래 이기영 상병이 아닌가?”

30여년 가까이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어느새 그도 많이 늙어 있었다.

그에게 구매 부서가 위치한 공간을 확인해 준 뒤 사무실 창가 쪽 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의 전원을 켜자 ‘윙’ 하는 소리를 내며 화면이 들어왔다. 퇴근 시간 이후 밤사이 들어 온 메일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을 무렵 같은 팀에 근무하는 김영미 대리가 내 자리를 찾았다.

“팀장님. 업체에서 제안서를 들고 오셨네요. 상담실로 안내해 드렸어요.”

이미 관련 공고가 나간 하반기 신규 프로젝트에 입찰을 원하는 지방의 신규 거래처에서 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였다. 상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와 막 문을 들어서서 나의 눈이 다시금 마주치게 되자 그에게서 어떤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아까 잠시 뵈었었죠? 비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살짝 눈웃음을 띠고 정중하게 말하는 내 인사치레에 그는 양손을 크게 내어 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몰라 뵈었네요.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 속 명함이 서로 맞교환되고 내가 그의 이름을 재차 확인했을 때 역시 그는 당초 내 생각대로 이기영 상병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김영미 대리가 커피가 든 종이컵 세 잔을 나란

히 탁자 위에 올려놓자 그는 컵을 들어 후루룩 한 모금 마신 후 갈색 봉투에 든 입찰 제안서를 주섬주섬 꺼내어 나와 김영미 대리에게 각각 한 부씩을 건네었다. 나는 제안서에 시선을 고정해 채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김영미 대리는 설명을 하는 그와 내 표정을 번갈아 보며 살피다 이따금씩 제안서 위에 펜으로 동그란 마킹을 했다. 그의 10여 분 남짓한 설명이 대충 끝나고 내가 김영미 대리가 금번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된 담당이니 몇 군데 다른 곳의 입찰서를 모두 검토한 후 회사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것이라 안내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을 때, 그도 뒤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다.

“저기……. 팀장님. 혹시 ○사단 ○○부대 출신 아니세요? 포천에 있는…….”

“글쎄요.”

내가 잠시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를 내어 보이자 그의 표정에서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아……. 그렇죠? 아니시군요. 제가 그 부대 출신인데,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하고 인상이 많이 비슷하셔서……. 네……. 실례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들어서자 새로 산 구두가 다 젖어 있다며 아내가 몇 차례 타박을 했다. 방과 후에 수학 학원에 갔던 아이들이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 집사람과 나 둘만의 저녁 식사를 조출하게 마쳤다. 새로 시작하는 종편 방송의 연속극을 보기 위해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 옆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다. 유리창으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툭툭. 툭툭툭’ 하고 제법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 오늘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우연히 만났어.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말이야.”

“웬일이래?”

내가 특하고 꺼낸 이야기에 집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드라마에 고정된 두 눈을 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하는 아내에게 다소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나는 아내의 옆얼굴을 응시하다가 이내 거실 유리창으로 시선을 다시 돌렸다. 전 조등을 켜 자동차 불빛이 이따금씩 집 앞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빛의 망울이 방울방울 유리창 위에 맺혔다. 그 빛의 망울들은 오래전 계절이 여름의 초입에 막 들어서고 있을 무렵 푸른색 군복을 입은 채 지내야 했던 시간의 나를 물끄러미 회상해 보게 만들었다.

○○부대를 타원형으로 빙 둘러싸고 있던 나무 울타리 밖 인삼밭을 빠져나와 기무부대 초소가 오른편으로 보이는 갈림길을 막 지나치면 법당까지 도보로 20분가량이 걸렸다. 매주 수요일 저녁 병사들은 번거로운 야간 점호를 피할 요량 등으로 일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야간종교행사’에 앞다투어 참여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읍내 다방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새로 전입한 다방 레지와 시시덕거릴 기회가 있는 교회 행사 대신에 나와 마음이 맞는 몇몇 병사들은 계급 구분을 하지 않고 사방이 조용한 밤의 법당을 찾았다. ○○사단이 운영하는 군 법당은 다소 외진 산 속에 위치한 까닭에 얼마간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는 일에 고단함이 있는 지라 성당이나 교회로 나뉘는 대다수 종교 행사 참여자들이 꺼리는 곳이었지만, 예불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서 느껴지는 고적함과 그 공기의 상쾌함은 울타리 안에 줄곧 간혀 지내야 하는 내 숨통을 다소나마 트여 주곤 했다. 더구나 대웅전에 피워 둔 은은한 향불 냄새, 법당 곳곳에 걸려 있던 초파일날 쓰고 채 치우지 않은 분홍색

연등의 행렬이 어둠 속에서 바람을 타고 반짝대는 모습은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던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예불 행사가 끝나고 산을 내려오던 시간 여름 해는 이미 산 아래로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고, 법당을 찾았던 다섯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두런두런한 말소리 그리고 길가 풀숲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여름밤의 어둠과 우리들 사이의 경계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몇 개월 전임 군번인 김병덕 상병이 근처 가게에 들러 전화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군대에 오기 전 테니스 코치를 하다 왔다는 그가 마침 일병에서 상병으로 새로 진급을 했던지라 관례에 따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돌리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해서 우리 일행들의 발길은 공중전화가 놓인 공병부대 앞 ‘노곡상회’가 있던 방향으로 나란히 향했다. 가게에 도착한 병사들은 가게 나무문 앞에 놓인 냉장고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꺼내 들고는 봉지를 벗겨 입에 문 채 목덜미로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 내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말없이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 내 차례가 되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때마침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많이 덥제? 괜찮나? 별일은 없나?”

엄마는 예의 걱정하시는 말투로 내 안부를 연거푸 물었다.

“항상 똑같죠. 뭐. 네. 네. 괜찮아요.”

엄마는 이러저러한 통화 말미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침 내 생일인데 그날 면회는 힘들겠다고 하시며 얼마간의 돈을 소액환으로 바꾸어 보내셨다고 했다.

“돈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통명스러운 내 투정에 엄마는 군대에서 나오는 밥 잘 챙겨 먹고 있다가 다가오는 휴가 때 어디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각자 사연이 담긴 전화 통화를 끝낸 병사들이 부대로 막 돌아왔을 때 일석점호를 마친 내부반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간편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장에서 찬물로 샤워를 한 후 침상에 간신히 누웠을 때 노란 전구 하나가 덜렁하게 매달린 내부반 취침 등불 아래서 당직 불침번 근무병은 바닥 여기저기에다 주전자로 물을 뿌렸다.

이튿날 아침 행정반으로 출근한 나는 부대 서무담당계인 이기영 상병에게 사단 사령부에 언제쯤 방문하는지를 물었다. 이튿에 한 번씩 사단 우체국에 들러 ○○부대로 보내지는 대부분 우편물을 수령해 오던 이기영 상병에게 사단 우체국이 있는 사령부에 들를 일이 있으면 내 명의로 도착한 등기 우편물도 잊지 말고 꼭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기영 상병은 10월 군번으로 나보다 딱 11개월가량 먼저 입대한 선임이었다. 부대 인원 전체의 정기 휴가와 야간 근무 등을 편성했던 그는 평소 성격이 다소 덜렁대는 편이었던 지라 각 소대 야간 초소 근무자들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지냈지만,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 보였고, 나를 비롯한 행정반 후임들에게는 딱히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기영 상병은 그러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를 그리고 일주일도 다 지나가도록 그가 내게 따로 건네주기로 약속한 편지는 영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도 지나가던 그 무렵 이기영 상병이 아침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내 쪽으로 왔다.

“오늘 ○○시내에 업무 출장 나갈 일이 있는데 같이 나갈래? 부식 청구하러 오늘 밖에 안 나가?”

마침 사단 보급부대에 주간 부식 청구를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나는 선뜻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보급부대 들어서 일 먼저 보고 같이 가겠습니다.”

보급부대에서의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이기영 상병과 미리 약속해 둔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 ○○시내에 도착하자 시간은 이미 점심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업무가 있더라 이기영 상병은 점심 식사를 먼저 하자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중국요리 집으로 먼저 발길을 향했다. 식당 한쪽 자리에 앉은 이기영 상병이 주문을 하자 탕수육과 자장면 그리고 군만두 등이 한 상 차려졌다. 상병이 매달 받는 월급을 이미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청구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와 점심 값을 치른 이기영 상병에게 다소 빚을 진 마음이었지만, 이기영 상병은 다음번에는 더 좋은 데를 가자며 허허대며 웃었다.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한 지 이미 열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기영 상병에게 부탁했던 내 우편물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였다. 그가 매번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부대에 복귀를 할 때마다 물어보는 일도 이제는 불편하게 생각이 되어 그만두어야 했다. 한 날 사단 의무부대에 입실해 있던 부대 인원들의 식수 인원 통보서 전달 건으로 의무부대에 협의차 들렀다가 그날은 직접 사단 사령부에 들러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단 위병소에서 출입 신고를 마치고 사단 사령부 초입에 있는 군사우체국 건물로 걸어 올라갔다. 우체국 담당자에게 인사를 한 후 내 명의로 배달된 등기 우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자 장부를 열람했던 담당자는 내 명의로 도착한 최근 우편물이 하나 확인이 되는데 지난주에 그건 이미 수령을 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건네는 수령대장을 확인하자 설마하고 생각을 했던 대로 역시 이기영 상병의 이름이 등기번호 옆에 적혀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는 분노를 동반한 배신감과 상실감 등으로 인해 갖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야만 했다. 얼마 전 이기영 상병과 ○○시내에서 함께 했던 점심 식사가 떠올

라 자꾸만 속이 불편해졌다. 그와 같은 부대, 같은 사무실, 같은 내무반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야 했던지라 내 생각은 마냥 쉽게 정리되지 않고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만 갔다. 부대로 급하게 복귀를 해서는 행정반이 아닌 내무반에 먼저 들러 나름 추리를 해둔 대로 이기영 상병의 관물대에 걸린 커튼을 들추자 양말과 속옷 등이 돌돌 말려져 있던 방독면 깡통 속에 봉투가 이미 반쯤 뜯어져 나간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옛날식 맞춤법이 눈에 익은 엄마의 글씨체였다. 내 눈에서 순간 불이 번쩍했다. 편지에는 내 안부를 묻는 내용과 돌아오는 생일날 부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과 가까운 매점이라도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하는 이야기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다음 날 같은 보급과에 근무하고 있던 나연석 병장에게 자초지종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대로 마냥 넘어가기에 그것은 내게 너무나 답답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행정반 최고선임인 나연석 병장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다고 나를 안심시킨 후 자기가 이기영 상병과 비밀리에 이야기를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를 나중 알려 주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일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시간에 이기영 상병이 내 자리로 먼저 와서는 나를 잠깐 보자고 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며 3만원 남짓한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 내게 내밀었다. 나머지 돈은 생기는 대로 주겠다는 말도 했다. 그가 내민 돈을 무심코 받았지만 이미 그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나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전역은 여전히 1년여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단 한 차례 2만원 남짓 되는 돈을 추가로 그가 내게 전해 주었으나 그걸로 그의 상황은 모두 끝이 났다. 내게는 명확하게 그

차액을 받아 낼 생각이 이미 없었고, 그 또한 그걸 내게 전해 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군대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선임과 후임인 그와 나는 그 일로 인해 완전히 어색해져 버렸다. 군복을 입고 선임과 후임의 관계로 지냈지만 사적으로는 동생처럼 나를 대해 주었던 나연석 병장은 그해 겨울과 다음 해 봄의 다소 어중간했던 시기에 사단 보충대로 전역 대기 입소를 하면서 “탈 없이 잘 지내다 제대해라. 먼저 간다” 하는 말을 남기고 전역했다. 나연석 병장의 전역 이후 행정반 최고선임이 되었던 이기영 상병으로부터 이후 어떤 보복이나 불합리함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그와는 그의 전역 당일까지도 매우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내야만 했다.

초인종 소리에 문득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종편 방송의 연속극이 끝나고 저녁 뉴스가 시작되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제대로 털지도 않고 현관 안에 들였다며 집사람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다. 입이 튀어나온 아이들은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는 각자의 방으로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렸다. 집사람에게 혹시 맥주 사다 놓은 게 냉장고에 있느냐고 묻자 집사람은 살짝 눈을 흘기며 평생 술이라곤 입에 대지도 않으면서 무슨 맥주를 찾느냐 하는 핀잔을 주다가 금세 또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아 두었는데 아직 마개도 따 보지 않은 거라며 와인 한 병과 과일 한 접시를 내어 왔다. 배가 불똥한 와인글라스 두 개를 절반씩 각기 채워 놓고 집사람과 연애 시절 둘이 걸어서 돌아다녔던 어디어디 위치한 동네들의 지명을 하나씩 생각해 내는 등 아주 시시콜콜한 옛날이야기를 자정이 가깝도록 두런두런 나누었다.

“그런데 나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5월에 개나리가 피었는데, 그

위로 눈이 또 막 내리더라니까……. 당신 믿을 수 있겠어? 그때 당신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아야. 내 면회도 자주 오고…….”

“어머……. 와인 몇 모금에 벌써 취했나 봐. 생전 안 하던 군대 이야기를 다 하시고…….”

집사람은 내가 실없이 군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자 안 하던 이야기를 갑자기 늘어놓는다 하며 핀잔을 한 차례 주고 아침에 출근은 안 할 거냐는 이야기를 끝으로 아직 채 비우지 않은 와인 잔과 과일 접시를 부엌으로 모두 치워 버렸다.

그날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부서에서 신규 프로젝트 담당을 맡고 있는 김영미 대리가 오전에 전자 결재로 품의서 하나를 올렸다. 품의서에는 신규 프로젝트 납품과 관련해서 3개 회사의 견적서 비교와 제품 및 업체 관련 정보 등이 상세히 첨부되어 있었다. 서류를 찬찬히 검토해 보던 중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기 위해 김영미 대리를 직접 불러서 물었다.

“일전에 사무실 방문했던 ‘○○테크’ 있었잖아? 견적서가 보이지를 않네?”

“제안서가 들어온 총 네 군데 회사에 최종 견적을 요청했는데, 그 회사만 마감 시간 전까지 견적이 들어오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무슨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 직접 확인은 했고?”

“네. 없었습니다. 입찰 절차대로 진행된 건입니다. 아……. 참. 그런데 지난번 팀장님과 그쪽 업체 분 미팅 끝나고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해 드렸는데, 팀장님 생일이 여름 아니냐고 묻고, 또 졸업하신 대학교가 어디 학교 아니냐고도 해서 제가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점심 전까지 조금 더 살펴보고 결재를 해 줄

게…….”

고개를 가우뚱하며 돌아서는 김영미 대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묘한 궁금증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쉽사리 떠나지를 않았다.

“이른 아침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던 이기영 상병은 왜 최종 입찰 견적서를 제 날짜에 맞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개인 정보를 김영미 대리에게 물었다?”

그날 오후에는 기존 납품처 공장 설비 서베이 관련된 건으로 인천을 다녀와야 했다. 출발 전부터 비가 제법 내리던 탓인지 서울~인천 간 도로가 군데군데 막혀 사무실로 막 돌아왔을 무렵엔 이미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다. 자리에 앉아 주섬주섬 보고서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회사 총무팀에서 우편물 하나를 내 자리로 보내어 왔다. 우체국 등기소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편지봉투였는데, 발신인은 ‘이기영’으로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 자필로 쓴 편지 한 장과 ‘온라인환증서’로 10만 원권 금액이 동봉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는 혼잣말을 했다.

“이건 뭐야? 요즈음엔 옛날처럼 ‘소액환’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우체국에서 발행을 하는가 보네.”

편지지에 적힌 글씨를 읽어 내려가자 뼈뼉뼉한 악필로 유명했던 이기영 상병이 작성해서 걸어 두었던 내무반 게시판의 ‘월(月)근 무편성표’가 불현듯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병장으로 전역한 그의 계급을 아직까지도 상병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그와 관련된 모종의 트라우마가 내 의식 속 어딘가에 깊숙이 남아 있는 탓일까? 그리고 그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엄마의 소액환을 오늘 마침내 돌려받게 된 것일까?”

○○○ 팀장님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옛날 제가 알고 있던 팀장님이시라면 제 사과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 주실 것이라 믿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너무 어린 나이였고, 순간적인 제 실수를 저로서도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까마득한 그 시절로 돌아가 팀장님 앞에 뚫뚫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게 또 인생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너무 늦었지만, 팀장님이 제게 부탁하셨던 그 등기 우편을 지금에서야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 마음이 한결 좋겠습니다.

이기영 배상



해 그림자

박달용

붉게 물들어 가는 석양이 하루의 끝을 말해 주고 있었다. 박 씨는 긴 한숨과 함께 하얀 담배 연기로 석양을 가린다. 땀으로 젖은 옷이 그의 힘든 하루를 말해 준다.

“제기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너무도 비참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돌이키고 싶은 1년 전…….

그날도 박 주무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을 나섰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귀여운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책상에는 변함없이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 더미들이 넘쳐나고,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 주무관, 킴온~”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때 부르는 과장 특유의 말투가 귀에 들려 온다.

“네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검사과에서 납품 검사 담당하던 최 주무관이 육아휴직을 가는데, 대체 인력 오기 전에 자네가 대신 업무 좀 해 줘야겠어. 자네 일은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부터 검사과로 가 보게.”

“예? 아니 검사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 부서에서 그걸 합니까?”

“그러게 말일세! 만만한 게 우리 부서야 젠장~! 사실 이번 진급 심사 때 검사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자네 신경 좀 써 달라고 했어. 자네도 올해는 진급해야지~. 가서 눈도장 열심히 찍으라구 보내는 거야.”

10년째 7급에서 승진을 못 하고 있는 박 주무관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과장이 신경 써 주겠다는데, 싫다는 소리도 못 하고 결국 책상 정리를 하고 검사과로 갈 수밖에 없었다. 8급이었을 때 담당했던 업무라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납품 업체가 물품과 납품 조서를 가지고 오면 조서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샘플로 몇 개 개봉해서 물건 상태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어찌 보면 단순 업무였다. 지금 하는 일보다 여유 있고 나름 한가한 자리라 내심 속으로 기뻐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멀리 부산에서 온 업체가 대기하고 있었다. 업체 직원이 박 주무관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최 주무관님이 나오셨었는데…….”

“예. 육아휴직을 가서 당분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석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박 주무관님~.”

업체 직원이 환한 미소를 띠며 악수를 청했다. 멋쩍게 악수를 하고 바로 물품 검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서에 있는 물품 중에 수량이 맞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

“어? 이거 조서하고 수량이 안 맞네요? 5개 부족한데요?”

“네? 그럴 리가요? 어제 적재하면서 다 확인하고 온 건데…….”

업체 직원은 당황하면서 다시 한번 물건을 확인하더니 회사로 전

화를 한다.

그러더니 물건을 납품 기한에 맞춰 제작하지 못해서 5개가 오늘 밤에야 제작이 끝난다고 한다. 내일 아침에 가져오겠다고 오늘 납품조서 완결 처리를 해 달라고 애원한다. 단가가 비싼 거라 하루만 지나도 지체 배상금이 크다고 얼마 남지도 않는 건데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한다.

“박 주무관님, 저희가 여기 하루 이틀 납품 오는 것도 아닌데, 사정 좀 봐 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갖고 오겠습니다.”

박 주무관은 잠시 망설여졌다. 경험상 이렇게 몇 년씩 거래한 업체들은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이었다. 마지못해 나머지 물건을 내일 아침 일찍 가져오라고 하고는 검사를 마쳤다.

“아이고, 이거 첫날부터 신세져서 어찌나요! 너무 고맙습니다. 박 주무관님~. 저기 이거 제 성의의 표시니까 받아 주세요. 비싼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받아도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다. 수고하세요~.”

직원은 환한 미소와 함께 미리 준비해 온 듯 차에서 박카스 한 상자를 꺼냈다. 박 주무관은 또다시 망설였다. 전에도 업체 직원들한테 음료수 한 병 정도는 받아먹었지만, 김영란법이 실시된 이후로는 웬지 작은 것도 받기가 꺼림칙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업체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걸 뻔히 알기에 더욱 망설여졌다.

“설마 박카스 한 상자 가지고 무슨 일 나겠어? 어차피 검사와 새로 갔으니까 음료수 한 병씩이라도 돌려야 할 텐데, 이걸로 하면 되겠네…….”

박 주무관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박카스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럼 부족 수량은 내일 꼭 가지고 오세요.”

“그럼요.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검사를 마친 박 주무관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박카스 상자를 뜯었다.

“어? 이게 뭐야?”

분명 뜯지 않은 상자인데 어떻게 넣었는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 주무관은 당장 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님? 박카스 상자에 봉투 뭍니까? 누구 잘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아, 그거요? 제가 고마워서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탈 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구요. 저하고 박 주무관님하고만 아는 비밀입니다.”

“내일 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박 주무관님, 이제 그 일 계속하실 거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죠. 사실 최 주무관님도 제가 섭섭지 않게 해 드렸거든요.”

“아무튼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 최 주무관이 평소 동료들끼리 어울리면 술값도 잘 내고, 명품도 자주 샀다.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처갓집에서 사준 거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공공연히 납품업자들에게 뇌물 받는다는 소리를 자기도 몇 번 들었던 같다. 그런데 업체의 말을 들어 보니 사실이었던 것이었다. 최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다.

“최 주무관님, 박민석입니다.”

“아~ 박 주무관님, 저희 과로 오셨다면서요? 제 업무 담당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물어볼게 있는데요. 나성실업 김 대리 아시

죠?”

“아, 그 친구요? 예의 바르고 일 잘하죠.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오늘 납품을 왔는데, 돈 봉투를 주고 가더라구요…….”

“아, 그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박 주무관님, 그 자리가 제법 짹짹해요.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한 밀천 잡고 가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에이~ 누군 뭐 처음부터 그랬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뻔한 월급에 따로 돈 벌 수도 없고, 딸린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

박 주무관은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뻔한 월급에 아파트 대출금 내고, 아이 키우며 32평 아파트에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아내에게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 준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박 주무관님,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생각 잘하세요. 저도 3년 일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문제 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성의로 받아 주시고 다른 업체보다 신경 써서 편의 좀 봐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끊을게요.”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할 용기가 나질 않는다.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딸아이가 반갑게 맞아 준다. 하지만 아내는 근심 어린 얼굴로 박 주무관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내일 아버지 퇴원하시는데,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아무래도 요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설 괜

참고 간병인 좋은 요양원은 한 달에 120만 원이라네.”

말끝을 흐리는 아내에게 박 주무관은 아무 말도 해 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형편에 매달 120만 원씩 추가로 지출이 발생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치매 등급 판정 잘 받으면 반값이면 되는데. 자기는 의료보험공단 쪽에 아는 사람 없어?”

“내일 출근해서 알아볼게…….”

박 주무관은 잠이 오질 않았다. 낮에 돈 봉투도 그렇고, 아버지 요양원 문제도 그렇고 심란하고 답답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부스스한 물골로 출근을 하자 김 대리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인사한다.

“아, 김 대리님. 일찍 오셨네요? 물건은 가져오셨나요?”

“아, 그게 말이죠……. 어젯밤에 장비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만……. 오늘 오전에야 장비 업체에서 수리하러 온답니다. 죄송해서 어찌죠? 고치면 바로 제작 들어가서 오늘 오후에는 꼭 갖고 올 겁니다. 오후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입고 처리를 못 하게 되잖아요. 오늘 입고 시켜야 되는데, 물건이 모자라면 어찌라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기계가 고장 나서 그런 걸 어찌겠습니까?”

결국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물건이 도착했다.

김 대리는 연신 굶신거리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박 주무관님,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늦었는데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아닙니다. 김 대리님도 오늘 고생하셨는데 어서 가 보세요.”

“아니죠. 사람이 도리가 있지. 이렇게 실례를 했는데,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해야죠.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김 대리가 박 주무관의 팔을 잡아끌었다. 밥 한 끼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여기 삼겹살 3인분하고 소주 한 병요.”

“그냥 밥이나 먹지……. 고기까지 먹을 건 없는데…….”

“아이고,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고기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술이 몇 잔 오가자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 대리님, 혹시 최 주무관하고도 이랬나요?”

“아~ 최 주무관님요? 사람 참 좋은 분이셨죠.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세상일이 원리 원칙대로만 돌아가나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혹시 의료보험공단 쪽에 아는 사람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치매라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등급 판정을 잘 받아야 요양비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요양하시면 한 달에 백만 원도 넘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으려면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박 주무관은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타인에게 말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다.

“아이고,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저희가 의료보험공단 쪽에도 납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힘드신 일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래요?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찌나. 잘 좀 부탁해요. 잘되면 내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삼일 후 김 대리로부터 연락이 왔다.

“주무관님,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시구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공단에서 조사하러 방문하실 겁니다. 미리 다 협조된 거니까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정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식사 대접 한번 근사하게 할게요!”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건데요 뭐.”

그리고 이틀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 박 주무관의 아버지는 치매 등급을 잘 받아서 요양원에 거의 반값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내는 박 주무관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했고, 박 주무관도 이제는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김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주무관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김 대리! 덕분에 아버지 요양원 잘 들어가셨어요.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지 그래요?”

“그렇잖아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럼요. 그럼 일곱 시에 지난번 식당에서 봅시다.”

약속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갔다. 김 대리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술 몇 잔이 오가자 김 대리가 입을 열었다.

“박 주무관님 이번엔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이번에 다른 기관에 납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 쪽 사정이 있어서 기일 내로 물건을 못 만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 주

무관님께 납품했던 물건인데 3,000개 납품한 걸로 아는데요. 100개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쪽 기관 납품 일자에 도저히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105개로 갖다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일 출근해서 알아볼게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김 대리 앞에서 못 하고 말끝을 흐렸다.

다음 날 출근해서 김 대리가 부탁한 품목을 확인해 보니 재고가 2,900개 남아 있었다. 한꺼번에 많이 불출되는 품목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다. 모든 부서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야근을 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물건을 가져온 배낭에 집어넣었다. 김 대리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서둘러 퇴근을 했다. 정문 경비의 인사도 받는 등 마는 등 도망치듯 퇴근을 하는 박 주무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긴장감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약속한 장소에 김 대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대리님, 일주일입니다! 꼭 갖고 오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꼭 갖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 주무관님.”

김 대리는 물건을 받아들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불안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약속한 일주일의 지났다.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전화를 했다. 그런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 회사로 전화를 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거기 나성실업이죠? 혹시 김 대리님 계신가요?”

“네……. 그런데 지금 전화 받으실 수가 없어요…….”

“무슨 일 있나요?”

“실례지만, 어디시죠?”

“여기 관공서예요. 납품 때문에 문의할 게 있어서요.”

“사실은요……. 지금 납품 비리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 나와서 김 대리님 조사받고 계세요. 저희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연락하세요…….”

여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납품 비리라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럼 오늘 주기로 한 물건은 어찌란 말인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사무실로 들어온 박 주무관을 과장이 부른다.

“박 주무관 혹시 우리 나성실업에서 납품 들어온 거 있나?”

“예? 예……. 왜 그러십니까?”

“그놈들 이번에 납품 비리로 조사받는다고 연락 왔어. 검찰에서 우리한테 납품 들어온 것도 있어서 조사 나올 것 같아. 얼마 전에 거기서 납품한 물품 있지? 그거 불출 정지시키고 잘 보관하고 있어. 관련 서류도 준비해 놓고.”

“네…….”

박 주무관은 하늘이 노래졌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혹시나 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너무도 순식간에 한 번에 일어난 것이다. 그날 오후 검찰이 들이닥쳐서 서류를 가져가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재고가 100개 부족한 걸 발견하고 박 주무관을 취조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니라고 우겼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김 대리와 대질 심문까지 들어가자 결국 시인을 했다.

3개월 후 박 주무관은 초범이고, 동료들의 탄원서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지만, 공직 생활을 그만둬야 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칠고 험한 세상이었다.

경력도 자격도 전과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아무 소용이 없었

다. 결국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힘든 막노동을 해야만 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땀이 뒤범벅이 되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옆에 앉아 있던 같이 일당 잡부로 돌아다니는 김 씨가 뭇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박 주무관에게 건넨다.

“어이 박씨. 이걸 한 병 마셔. 그래도 이거 마시면 피로가 좀 풀려.”

“아네요. 형님 드세요……. 형님도 힘드신데…….”

“난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나발 불고 자면 돼. 자네 먹어.”

손에 쥐여 준 박카스 한 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때 김 대리 그 자식한테 박카스만 안 받았어도, 아니 받은 걸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만 했어도…….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일 이후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힘들게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아빠가 올 때까지 집에서 혼자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린다. 아파트 대출금도 갚지 못해서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순간들이 꿈결 같기만 하다. 그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것이다.

어둑어둑 해 지는 저녁 무렵 박 주무관은 힘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의 주머니에는 아내에게 줄 박카스 한 병이 들어 있었다. 그날따라 지는 석양이 마냥 슬퍼만 보였다. 이젠 누구도 그를 박 주무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박 씨에게 석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태양의 그림자로만 보였다.

그는 해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날개와 그늘

조성진

“형, 이번에는 어때요? 된 거 같아요?”

정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채점 결과를 보니 몇 점이 부족한 것 같았다. 두세 문제만 더 맞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 몇 문제 더 맞히는 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다.

“삼겹살이나 먹자.”

“나중에 공무원 되면 여기 좀 단속해 주세요.”

정훈의 후임 진성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정훈은 그 말이 진담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정훈은 마음속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았다. 공항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갔다.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로 문제집 값이나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벌써 이렇게 되었다. 함께 노랑진에서 공부하던 대학 동기는 합격해서 구청 공무원이 되었고, 정훈은 인천으로 돌아와 비정규직 직원이 되었다.

군 제대 후 첫해에는 의욕적으로 시험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의 벽은 듣던 대로 만리장성처럼 높았다. 정훈을 괴롭게 하는 두 종류의 숫자가 있었다. 은행 계좌의 잔액과 불합격한 공무원 시험 점수. 전자와 후자 모두 0에 수렴할수록 괴로웠다. 숫자를 올리는 것은 자신의 키를 높이는 것만큼 어려웠다.

아버지의 옷 가게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계속 손을 벌릴 수 없게 되었다. 책값이라도 벌어야 했다. 정훈은 자기도 모르게 공항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인천에 사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냥 공항이 좋았다. 공항은 사막 속 오아시스 같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험공부를 하다가 펜을 놓고 공항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가끔 도서관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 날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었다. 공항 대합실을 들어설 때 느끼는 다양한 외국 음성들, 비행 시각이 가득한 전광판, 줄지어 서 있는 캐리어들, 그 속에서 부풀어 오를 달달한 여행 이야기들……. 여행이든 이민이든 즐거운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부러웠다.

검색해 보니 의외로 공항과 관련된 일들은 많았다. 그러나 정훈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같은 것 없이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또한 수험 생활도 병행해야 했기에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일은 피해야 했다. 정훈은 온라인으로 LFK(러키 푸드 코리아)라는 생소한 기내식 전문 생산 업체에 호기심으로 지원을 했고, 바로 그다음 날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데……. 정훈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놀랐다. 그는 순식간에 기내식 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다.

기내식이 생산되어 비행기에 탑재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진다. 프로덕션, 어셈블리, 그리고 딜리버리. 프로덕션에서는 식자재를 1차 가공 및 조리하여 기내식의 초본을 생산한다. 그리고 바트에 담겨진 음식은 어셈블리 파트로 전달되어 완성된 형태의 기내식으로 2차 가공 및 조립된다. 완성된 기내식은 딜리버리 과정을 거쳐 비행기에 탑재된다. 각각의 파트는 각각 다른 업체에 의

해 진행되고, 근로자들의 8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정훈이 속한 LFK는 프로덕션 파트를 맡은 업체로 하루에 3만 식(食) 정도를 생산한다. 이 중 2만 5000식 이상이 초대형 항공사인 에이비씨 항공에 납품된다. 다수의 비정규직이 소수의 정규직을 위해 일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피라미드 구조. 정훈은 세련된 최첨단 공항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정훈의 부서는 콜드키친으로 비가열 가공을 하는 주방이었다. 셀러드, 칼질, 슬라이싱 중 정훈의 업무는 슬라이싱이었다. 정육점에서나 보던 육중한 기계 앞에서 주로 햄과 치즈를 슬라이싱했다. 본레스 햄, 브루스트 햄, 터키 햄, 블랙 햄, 브레졸라, 에멘탈 치즈, 체다 치즈, 그뤼에르 치즈 등등 평생 볼 햄과 치즈를 기내식 공장에서도 본 것 같았다. 햄과 치즈는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었다.

정훈이 일 년간 일하는 동안 많은 비정규직들이 들어오고 나가를 반복했다. 조리사의 꿈을 가지고 왔다가 단순 반복 작업에 실망하고 떠난 청년도 있었다. 계약할 당시에는 다양한 조리 업무를 실습할 기회를 준다고 했으나, 그 조리사 지망생은 여섯 달 내내 햄 슬라이싱 작업만 했다. 정규직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비정규직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며 매일 정해진 분량을 슬라이싱해야 했다. 자신의 경력도 얇게 슬라이싱되는 것 같다는 농담을 남긴 채 그는 반복 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월간 근무 스케줄을 놓고 정직원 황석범과 말다툼을 한 후 떠난 청년들도 있었다. 근무 스케줄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지는데 항상 오후조는 비정규직들이 맡아야 했다. 오후조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오전조보다 더 피로했고, 오

전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싫어했다. 오후 1시가 명시된 출근 시간이었지만 실제 출근은 12시 반까지였다. 업무 지시 사항을 듣고, 생산한 지 24시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는 일을 하고 나면 오후 1시였다. 오후조가 매일 노동한 30분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계약서를 쓸 당시에 오전조, 오후조가 번갈아 있다는 막연한 설명만 들었을 뿐 실제로 오후조 근무가 80퍼센트 이상 일 줄은 아무도 몰랐고, 근무 스케줄의 규칙성도 없었다. 유일한 규칙은 정규직 직원은 오전조 근무로만 배치되는 것이었다.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들은 정직원 황석범과 1:1 면담을 했고 결과는 둘 중 하나였다. 그 비정규직이 며칠 후 짐을 싸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주어진 스케줄대로 일을 하든지.

정훈은 자신과 같은 콜드키친에 배정된 몇 살 어린 비정규직 진성과 친해졌다. 진성은 구김살 없이 쾌활하고 진솔했다. 근무한 지 며칠 만에, 자신이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과 현재 30만 원짜리 지하 원룸에 산다는 사실도 주저 없이 말했다. 진성은 고등학교 자퇴 후 작은 공장에서 일을 했었다. 사장이 막내인 진성에게 번번이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자 진성은 1년을 못 버티고 결국 자진 퇴사하였다.

정훈은 쉬는 시간에 진성과 기내식 공장 너머로 이륙하는 손톱만한 비행기를 보며 각자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이름을 대곤 했다. 둘 다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다고 생각했고, 둘 다 날개를 달고 멀리 떠나고 싶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댈 나라가 없었다.

오후조에는 감시하는 정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은 일하다가 가끔 햄이나 치즈 한 조각을 집어 먹기도 했다. 다들 그것을 매일 30분씩 추가 노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다. 작은 부패는 큰 부패에 대한 복수였던 셈이다.

폭염이 지속되던 여름, 국제 정상회담과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에 이비씨항공에서 요구하는 기내식 물량이 폭주하게 되었다. 기내식 관련 모든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석범은 전화기에 대고 연신 고개를 숙여 가며 통화를 했다.

“아……. 네, 사장님. 아……. 네, 그렇게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기계든 사람이든 철야로 돌려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물량을 맞추려면 전 직원이 휴가 없이 오전, 오후조에 근무하더라도 며칠의 밤샘 작업이 필요했다. 석범은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정훈과 진성을 따로 불렀다. 그는 한쪽 입고리만 올라가는 웃음을 지으며 점심 살 테니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보라고 했다. 정훈은 불길한 느낌을 감지했다. 눈치 없는 진성은 웃으며 부대찌개 먹자고 말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짬돌이 석범이 웬일로 라면 사리에 음료도 주문하더니 목을 가다듬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번에 물량 터져서 많이 힘들다. 이 짓도 못해 먹겠어. 무슨 에이비씨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다 받아 줘야 하나. 다 갑질이야.”

정훈은 잠자코 찌개를 저으며 듣고 있었다. 진성이 물었다.

“그럼 대리님, 밤샘 작업 좀 해야겠네요? 수당이나 잘 챙겨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왜 너희 두 명만 따로 불렀겠어. 잘 챙겨 주려고 부른 거야.”

진성은 불이 터지도록 밥을 쭈서 넣으며 대답했다.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석범은 음료를 따라 주며 말을 이어 갔다.

“천천히 많이 먹어. 있잖아, 내가 지금 애가 세 살이라 집에서도 너

무 힘들어. 좀만 늦게 들어가면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밤샘 작업을 같이 하기 힘들 거 같거든.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정훈이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대리님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로 밤샘 근무 스케줄 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위에 눈치도 보이고 해서, 명단에는 내 이름 넣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해.”

진성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대리님, 그럼 저희가 대신 할게요. 며칠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훈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공무원 시험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밤샘 근무를 연속해서 하면 컨디션이 엉망이 될 게 분명했다. 그리고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그러나 못 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훈의 앞접시에는 석범이 부어 준 부대찌개가 가득했다.

다행히 물량 폭주 사태는 잘 해결되었지만, 밤샘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석범의 대리 근무를 하느라 정훈은 오전 작업을 한 뒤 기내식 센터 내 휴게소에서 엎드려 자다가 다시 야간에 출근해야 했다. 며칠 후에는 눈이 쾅해지고 현기증도 느꼈다. 식재료를 옮기느라 어깨가 아파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며칠 뒤 정훈은 계좌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을 확인했다. 입금된 초과근무수당의 입금자가 회사명이 아닌 황석범으로 되어 있었다. 정훈은 석범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어느 날 오후조를 마친 정훈은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중인 석범과 눈이 마주쳤다.

“정훈, 잠깐 이리 와 봐.”

정훈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줘. 이것 복사 좀 하나씩 해 줘.”

“아직 퇴근 안 하신 거예요?”

“아, 일이 좀 밀려서, 자, 이것 좀 부탁해.”

정훈은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빨리 복사해 주고 자리를 뜨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복사를 하다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모두 중요한 계약 관련 서류들이었다.

석범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당황하더니 복도로 뛰어 나가면서 전화를 받았다. 상대를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으며 연신 급실거리고 있었다. 정훈은 기분이 짹짹했다. 복사가 다 끝나자 마침 석범이 들어왔다.

“대리님, 다 복사했어요.”

“그래, 고마워. 원본은 여기 원래 있던 폴더에 꽂아 주고, 사본만 이리 줘.”

석범은 사본 봉치를 본인 가방에 급하게 쑤셔 넣었다.

“근데 대리님, 그 사본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석범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야, 비정규직이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석범은 갑자기 지갑을 뒤지더니 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책상 위에 내놓았다.

“너, 나 때문에 늦었는데, 갈 때 택시라도 타고 가.”

“아니에요, 지하철 타면 되는데…….”

“그냥 가져가. 공무원 시험 문제집이라도 사든가.”

“아……. 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내 정보력이 이 정도다. 잘 알아 뒤. 이 바닥이 다 정보 싸움이야. 먼저 아는 놈이, 많이 아는 놈이 이기는 거야.”

“아, 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공무원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절차, 방법, 원칙 그런 거 따지는 거 질색이야. 그런 거 따지니까 남들보다 느리고 경쟁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석범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당황한 석범은 황급히 서류 가방을 들고 ‘나 먼저 갈게’라는 표정을 지으며 나가 버렸다. 한쪽 입 고리만 올라가는 웃음만 남긴 채. 정훈은 사무실에 홀로 멍하니 책상에 놓인 지폐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폭염이 끝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 즈음 석범은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동시에 LFK는 위기를 맞았다. 에이비씨항공이 LFK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에이비씨항공은 더 싼 원가로 공급을 제안한 올마이티푸드(주)와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3만 식 중 2만 5000식을 공급받던 거래처가 사라진 LFK는 정직원 일부를 정리 해고했고, 비정규직들에게도 대놓고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석범은 몇몇 비정규직을 불러내 1:1 상담을 했고, 그들은 모두 얼마 안 되어 공장을 떠났다. 정훈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어차피 다음 달에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걸 아는지 석범은 정훈을 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정훈을 피하는 것 같았다.

휴식 시간에 진성은 땅에 침을 탁 뱉으며 정훈에게 말했다.

“형, 소식 들었죠? 석범이 자식……. 단물 다 빼먹더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막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난번 몰랑 폭주할 땐 스케줄 조작해서 우리 이름은 빼고 공은 자기가 다 세우고…….”

“그게 무슨 말이야?”

“위에 제출한 명단에서 우리 이름은 아예 빼고 자기랑 정직원 몇 명만 매일 철야 작업한 것처럼 했잖아요. 몰랐어요? 소문 다 났는데…….”

“아……. 그래? 수당은 제대로 입금되었던데?”

“그렇죠. 수당은 자기가 받은 다음, 일부를 우리한테 보내 준 거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수당 단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 남는 장사죠.”

정훈은 석범의 웃음이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다. 석범은 그 일로 수당뿐만 아니라 30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았고, 과장으로 승진도 된 것이다.

“이제 모르죠, 이 회사도 비전 없으니 정보라도 빼내서 경쟁 업체로 도망갈지…….”

정훈은 그날 내내 기분이 나빴다. 평상시에는 어셈블리 이모들의 부탁이나 요청도 군말 없이 받아 줬는데, 그날은 달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모들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짜증을 내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하던 작업을 멈추고 정훈을 쳐다보기까지 했다. 프로덕션과 어셈블리의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갑을 관계, 아니 을병 관계였다. 기내식 업무의 주도권은 프로덕션이 쥐고 있었기에 20대의 비정규직이 50대의 비정규직에게 짜증을 낼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여러 명의 마음을 도려낼 수 있었다. 정훈은

그날 퇴근 후 처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저 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소리 없이 울었다.

낙엽이 떨어질 무렵, 정훈이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석범은 LFK에 있었다. 진성도 공장을 먼저 떠나는 정훈을 아쉬워하면서도 한편 그를 부러워했다. 자기도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아니 공부 좀 하라고 혼내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좋겠다며…….

정훈은 그해 시험에 합격했다. 몇 년 만에 SNS를 오픈하고 프로필 사진도 바꿨다. 진성에게 삼겹살 먹자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프로필을 훑어보며 자신도 사회인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런데 휴대폰 스크린을 내리던 정훈의 손가락은 석범의 프로필에서 멈췄다. 세련된 양복에는 올마이티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석범은 웃고 있었다. 한쪽 입고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다.

정훈은 구청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이 났다. 김영란법이 등장하고, 청렴 캠페인이 유행하면서 구 의회는 청렴 해외 테마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다. 방문지는 싱가포르였고, 정훈도 보좌 공무원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출국 날 아침, 정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의원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내식 공장을 떠난 후 몇 년 만에 처음 공항을 방문한 것이었으나, 감상에 빠질 여유조차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훈 옆에 앉은 박 의원이 언제나처럼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이봐, 김 주사,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알아요? 그게 영어로 인테그리티(integrity)거든. 우리말로로는 청렴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언행일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

끝없는 연설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천사 같은 승무원이 다가와 감사하게도 흐름을 끊어 주었다.

“기내식 무엇으로 드릴까요? 한식과 양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은 싱글벙글 웃으며 승무원과 대화를 이어 갔고,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맛있는 기내식의 냄새가 느껴지자 기내식 공장에서 근무했던 순간들이 훑 덮쳐 왔다. 정훈은 반사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어루만졌다. 흉터가 느껴졌다. 슬라이싱하던 중 순간적으로 엄지손가락 끝부분이 찢렸다. 가끔 발생하는 사고였다. 선풍빛 피가 쌓여 있던 햄 위로 뚝뚝 떨어졌다. 잘린 부위는 작았지만 출혈이 심했다. 응급 처치 후 사무실에 보고했을 때 상급자가 석범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어렵풋하게 들을 수 있었다. 빨리 손가락 조각을 찾아서 회수하라고. 절대 제품에 섞이지 않도록 빨리 찾으라고. 그 지시가 전부였다.

“이봐, 김 주사, 여기 아가씨가 묻잖아. 한식인지, 양식인지.”

“아……. 저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심한 갈증이 몰려왔다. 차창 밖으로 무심한 바다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뒤늦은 축하

김근수

한참 들썩이던 어깨가 가까스로 멈췄다. 숨 멎을 듯 꺾꺾거리던 소리도 겨우 잦아들었다. 눈앞의 왜소한 남자는 떨리는 호흡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가만히 지켜보던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던?”

내 물음에 그는 작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우물쭈물하더니 겨우 입을 떼었다.

“후……. 늘 듣던 얘기지 뭐……. 마흔 중반이 넘도록 왜 아직 8급 이냐, 자기네 친구들 남편은 죄다 대기업 부장이네, 중소기업 사장이네, 연봉이 어찌네…….”

“에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게 진작 자력 관리 좀 하지’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삼켰다. 그러잖아도 그의 어깨는 이대로 무너져 버릴 듯 위태해 보였기 때문이다.

“6급 김희만 주무관님!” 그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은근히 계급을 강조하는 듯한 말투에는 복잡한 감정이 얹혀 있는 듯했다.

“인마, 박철수. 취했구나, 너.”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을 뺏기 위해 손을 뻗었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 손을 쳐낸다. 그리고는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나를 지그시 노려보았다.

“야. 넌……. 내 동기 주제에 무슨 재주로 그리 승진을 잘하냐?”

“뭐?”

나는 병찜 얼굴을 한 채 잠시간 아무 말도 못했다.

“곧 승진 시즌인데……. 승진 잘하는 비결 좀 알려 주라. 나도 만년 8급 좀 벗어나게.”

짜증이 밀려왔다. 웬만하면 심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매를 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 줘? 넌 교육이나 벤치마킹 갈 기회가 있어도 무조건 가기 싫다고 그러지, 자격증도 없지, 학위도 안 따지, 표창 받은 적도 없지, 점수가 나올 구멍이 어디 있냐? 게다가 음주 운전한 적도 있잖아. 넌 일단 자력 관리부터 해야…….”

“아, 됐어. 됐어. 그만해. 그 정돈 나도 알아, 인마.”

철수는 내 말을 자르곤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팔에 존심은 있어서 잔소리 듣긴 싫은 모양이다. 입이 삐죽 나온 꼬락서니를 보자니 뒷골이 뜨끈해졌다.

“야, 알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아, 할게. 한다고.”

철수는 짜증스런 말투로 대꾸하고는 소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텅 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하……. 어디 쉽게 승진하는 방법 좀 없으려나…….”

정말 답이 없는 놈이다. 나는 불쾌한 마음에 소주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은 뒤 빈정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미친 놈. 로또 한 장으로 1등 노리는 소리 하네. 그럼 어디 뇌물이

라도 짹 돌려 보든가. 혹시 알아? 3급 이상 간부들로 수십 명 돌려보면 누구 한 명은 심사위원으로 뽑힐지?”

답답한 마음에 툭 내뱉은 농담이었다. 누가 듣더라도 피식 웃고 넘길 그런 농담이었다. 그러나 철수의 입가는 더욱 일그러졌다.

“그래, 뭐……. 세상은 뻥이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더러운 세상. 암만 노력해 봤자 뻥 있고, 돈 바치는 놈은 못 당해.”

기가 찰 노릇이다. 누가 들으면 아주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억울하게 승진 못 한 줄 알겠다. 욕지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억눌렀다.

“야, 난 뭐 뇌물 먹이고 승진했냐? 공무원 제안도 열심히 하고, 각종 대외 활동도 참여하고, 여가 시간에도 꾸준히 노력한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지.”

“그래, 그래. 너 열심히 하긴 했지. 내가 넌 인정한다,”

“너한테 인정받자고 한 말이 아니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너도.”

철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소주병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부디 내 말이 그저 주제넘은 잔소리가 아닌, 이 친구의 무언가를 바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 침묵을 가만히 존중했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내리깔던 눈을 치켜뜨며 입을 열었다.

“희만아. 미안한데……. 택시 타게 삼만 원만 빌려주라. 마누라가 용돈을 안 준다.”

먹던 소주를 뱉을 뻔했다. 진지한 고심을 하길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 뒤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주섬주섬 꺼냈다. 너털너털한 지갑을 들킬까 봐 양손으로 지갑을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파릇파릇한 종이 열 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중 세 장을 두 손가락으로 집고는 잠시 망설이다, 속으로 ‘에잇’을 외치고는 열 장을 전부 꺼냈다.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십만 원? 인마, 너무 많아. 삼만 원만 쥐도 돼.”

“됐어 인마. 나 돈 많아. 이걸로 소주도 사 먹고 그래라. 나중에 승진하면 술이나 쏘고.”

철수의 얼굴색이 밝아졌다. 손사래 치던 두 손이 내 손을 덥석 쥐었다.

“고맙다! 조만간 술 한잔하자!”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콧속을 파고들었다. 유독 추운 이번 겨울, 오늘의 한파는 특히 더 매섭다고 했다. 게다가 텅 빈 지갑 덕에 오늘은 걸어서 집에 가야 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오늘 따라 더욱 속이 시렸다.

출근하자마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것이 뭔가 분명 일은 터진 듯한데, 말하긴 꺼려하는 미묘한 상황이었다. 전말은 VP 시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에,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철수 주무관이…….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승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세 명의 간부에게 금품을 동반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와 술잔을 기울이던 처연한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을 원망하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를 비꼬기 위해 툭 던진 내 실없는 농담이 떠올랐다.

‘설마……. 아냐. 그럴 리 없어. 그 놈이 아무리 바보라지만……. 내가 농담 한마디했다고…….’ ‘설마’라는 단어를 수십 번 중얼거렸

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왜 그랬냐고,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냐고 속으로 몇 번을 질문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장난스레 던진 말도 교사죄가 성립될까? 철수가 조사받으며 내가 부추겼다고 말하면 나도 처벌받게 되는 건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놈이 그렇게 생각 없는 놈은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러다 나는 문득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철수의 일을 듣자마자 그에 대한 걱정보다 내 안위를 가장 먼저 떠올렸음을 깨달았다.

VP 시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저마다의 손에 찻잔을 쥐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들은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고 때로는 입꼬리를 올리며 재잘거렸다.

“긋은일 생기면 무조건 하기 싫다 하며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데, 높은 분들이 예뻐하시겠어?”

“일은 못하면서 승진 시즌만 되면 ‘왜 또 떨어졌을까’ 투덜거리는 것도 웃겨.”

“품질분임조 활동에도 혼자 아무 말 없이 묻어가기만 하잖아.”

“자기가 왜 안 되는지 본인만 몰라.”

공기가 냉랭하다. 어디선가 한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무실을 터벅터벅 걸어가다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누구 하나 안타까워할 법도 한데, 들려오는 말들은 모두 차갑기 그지없었다.

‘넌 참 공직 생활 잘못했구나. 어쩔 그리 온통 적만 만들어 놓았냐. 잘 좀 하지, 자식아.’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 또한 동기의 회사 생활에 너무 무신경하진 않았나 하는 회한이 들었다. 참견은 좋지 않다는 핑계로, 그가 동료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는 걸 알았으면서도 나는 그를 방치한 건 아닐까. 담배를 챙겨 들고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원망, 동정, 죄책감 등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내 가슴속을 헤집

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붉게 상기된 얼굴과 축 처진 어깨를 한 철수가 돌아왔다. 그의 뒷모습을 먼발치에서 잠시나마 보았으나, 이내 감찰실과 헌병대에 번갈아 호출되느라 정신이 없는 듯했다. 게다가 퇴근 후엔 경찰 조사도 받는다고 들었다. 굳은 표정의 철수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고개가 숙여졌다.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쫓았다. 그 누구도 철수를 마주 대하지 않았다. 길가에 떨어진 개똥마냥 피하고, 모르는 행인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회사 내에서의 철수의 처분이 정해졌다.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그리고 재판을 치르고 나면 벌금과 추징금과 징계 부가금까지 떠안아야 할 것이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적어도 천만 원 이상은 짊어져야 한단다.

“제가 봤을 땐 그분 절대 천만 원 없어요. 뇌물 300만 원은 어찌 준비했는지 그것도 신기하구먼.”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도 못 한다던데?”

사람들은 틈만 나면 모여들고는 철수를 헐뜯었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물소의 시체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무리가 떠올랐다. 저들은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철수를 비난하는 걸까. 혹시 그저 물어뜯을 먹이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찢찢한 기분을 안고 그들 사이를 지날 때였다. 10년 후임이 지나가는 나를 발견하곤 철수를 홍보다 말고 슬그머니 다가왔다.

“김희만 주무관님, 박철수 주무관님이랑 동기시죠?”

“그런데, 왜?”

“혹시 박철수 주무관님이 김 주무관님께 천만 원 빌려 달라고 할

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나는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후임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다. 나도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야.”

“네?”

그는 어깨를 붙잡는 손길에 의아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 표정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버렸다.

“네가 그렇게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었어? 동료가 비리를 저질렀다니까 아주 그냥 혐오스러워 죽겠냐?”

“왜, 왜 이러세요, 김 주무관님.”

그의 목소리가 떨려 왔다. 다른 이들도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혈레벌떡 뛰어왔다. 그러나 나는 손을 놓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어깨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아니면 철수가 너한테 죽을죄를 지었냐?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응? 철수가 천만 원이 있든 없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야, 야, 그만해. 뭐 그런 걸로 얼굴 붉히고 그러냐. 그만하자.”

주위 사람들이 내 팔을 잡아당기며 만류하자 나는 그제야 그의 어깨를 놓아 주었다. 그러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얼굴이 후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후임은 어깨가 아픈지, 다른 손으로 연신 어깨를 주무르며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걱정돼서 말한 건데!”

“누가 너보고 그런 걱정하랬어?”

그때였다. “뭐, 뭐야? 왜들 싸우는 거야? 희만아, 무슨 일이야?”

면발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모두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것처럼 그들은 슬그머니 흠어들었다. 어깨를 붙잡힌 후임도 철수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다. 철수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며칠 전에 같이 술을 마셨을 때에도 어깨가 왜소하다고 느꼈지만, 오늘 철수는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다. 철수는 뭐가 그리도 두려운지 연신 주변을 힐끔거렸다. 사무실 안의 사람들은 철수를 바라보다가도 눈이 마주칠 때면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럴 때마다 철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저……, 모두들 저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네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게 내려진 벌은 달게 받고 반성하겠습니다.”

철수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찾아왔다. 그 누구도 철수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철수는 아랫입술을 질근 깨물고는 머리를 굽적였다. 그때 철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말았다. 나를 보던 철수의 표정이 기묘하게 뒤틀렸다. 주춤거리며 내게 다가온 철수는 내 팔을 살짝 잡아 끌더니 사무실 구석으로 데려갔다.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그때의 술자리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한 철수의 목소리였다.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미안하지…….”

“네가 나한테 왜 미안해?”

그 와중에도 철수는 피식 웃었다. 그때의 내 농담은 이놈의 행동과는 정말 상관이 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조금 안도했다.

“술자리에서 내가 한 말 말야.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털어놓았다. 철수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의 농담은 철수의 부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철수의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내 잘못이지 뭐. 네가 그런 말 했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됐는데. 아, 그래도 감찰실에 네 얘긴 하지 않았어. 걱정 마.”

“흔들……렸다고?”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애써 차분한 척을 해 보았지만 얼굴은 이미 뜨거워졌다. ‘전부 너 때문이다, 너는 공범이다.’ 나를 보는 철수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내 잘못을 덮어 줬으니 고마워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철수는 그런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우물대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지원이가 말야……,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웠대. 한 친구가 자기네 아빠가 6급 공무원인데 지원이더러 너네 아빠는 몇 급이라고 묻더라. 그랬더니 지원이가……, 우리 아빠도 6급이라고 그랬대.”

철수는 감정이 격해지는지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너네 아빠 8급인 거 아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개랑 싸웠다더라고. 마누라가 울면서 그 얘길 하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 진짜 목숨을 팔아서라도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 뇌물을 바쳐 보라는 네 말이 떠올랐지.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머리가 뜨거워지고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원흉이 바로 나라고 말하는 듯이 들렸다. 불쾌감이 스

멀스멀 피어 올랐다. 어리석은 농담을 꺼낸 나 자신을 향한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철수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철수는 숙인 고개를 슬며시 들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희만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천만 원, 아니 천만이라도.”

아, 그렇구나. 이게 이놈의 결론이구나. 나는 맥이 쭉 빠져 버렸다. 등줄기에 수백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듯 소름이 돋아났다. 내 가슴 속에서 차오르던 뜨거운 것의 이름이 배신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대신 돈을 달라는 거지?”

나는 이를 악물며 억눌린 소리를 내었다. 철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아냐,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냥 돈 좀 빌려 달라는 거잖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돈 빌려 가서 갚은 적 한 번도 없잖아. 어차피 네가 이천만 원 빌려 가서 빨리 갚을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돈을 달라는 거 아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한 걸음 다가오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야. 친구끼리 푼돈 몇 번 빌린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냐?”

“푼돈이든 아니든, 빌린다는 건 갚으라는 뜻인 거 몰라? 그리고 너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나보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잖아. 너 그런 뜻으로 나한테 얘기 꺼낸 거 아냐?”

“야! 그래! 막말로 네 잘못도 있는데, 돈 좀 줄 수 있는 거 아냐냐?”

철수가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다.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 나머지 오히려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짐작은 했지만, 철수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눈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인마, 농담한 게 잘못이냐? 농담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죄를 저지른 네 잘못이지! 너 솔직히 말해 봐. 내 말 듣고 뇌물 바쳤다는 것도 뺨이지? 원래부터 뇌물 바치려고 마음먹은 거 아냐?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

“이 자식이!”

철수의 손이 치켜 올라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잠시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충격도 전해지지 않았다. 슬며시 고개를 드니 철수는 팔을 내리곤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축 처진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됐다……. 내가 미안하다.”

철수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힘이 쭉 빠진 듯 초췌한 얼굴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내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야…….”

말이 나오다 말았다. 손도 앞으로 뻗다가 말았다. 마치 그의 등과 나 사이에 놓은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것만 같았다. 그가 사무실 문을 벗어나자 그제야 손을 쭉 뻗어 보았지만, 내 손은 빈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다.

“아까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했을 때는 그리 화내시더니, 정작 김 주무관님이 훨씬 독하시네요. 그럴 거면 저한테 왜 그리 화내셨대요?”

멀리서 후임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자 얼굴이 뜨거워졌다. 정말 내가 철수에게 왜 그랬는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아니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철수의 처진 뒷모

습만 자꾸 눈에 밟혔다. 쫓아가서 철수를 잡았어야 했다. 그리고 사과했어야 했다. 나의 이 머뭇거림이 가져올 비극을 이때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꽃들이 액자를 가득 뒤덮고 있었다. 검은 틀의 액자 가운데에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해맑은 웃음. 비록 언젠가 사진관에서 억지로 웃어 본 사진이었겠지만, 정말로 드문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마치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입으로만 전해들은 사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제야 현실이 되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내뱉은 가시 돋친 말들이 수없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보여 준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라니, 마지막으로 드러낸 감정이 분노라니……. 그 모든 게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뱉어낸 말을 듣고 힘겹게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이 내 머릿속에 도장처럼 각인되어 끝없이 재생됐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듯했다. 반달처럼 휘어진 눈이 원망을 담은 채 나를 보는 듯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밟겠지……. 미안하다, 철수야……. 내가 너한테 그래선 안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널 욕해도 나는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철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철수의 등을 떠민 건 나였다. 가슴속에 가득 쌓인 돌덩이가 너무나 무겁다. 그 압력 탓인지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조문객들과 맞절을 하는 철수의 아내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그마한 아이가 치맛자락에 찰싹 붙어 있었다. 저 조그마한 아

이는 아빠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다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아빠와 닮은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엄마의 옷깃을 부여잡은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저 어린 것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란 것을. 자살이라는 말의 뜻을.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저버리고 떠났음을.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선 안 될 것만 같았다. 위장이 쥐어 짜이는 느낌과 함께 구토가 밀려와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대로 뛰쳐나갔다.

며칠간 술에 찌들어 살았다. 그리고 요 며칠간은 철수네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다. 퇴근하자마자 철수네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서성이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다. 철수를 닮은 그 조그마한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가 않았다.

철수의 어린 아들은 오늘도 놀이터의 조그마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는 동그란 눈동자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오른손에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가 쥐어져 있었고, 무릎 위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는 놀이터 외곽의 나무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담배를 한 대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다시 벤치를 바라보는데, 어느새 지원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저씨, 우리 아빠 친구죠?”

갑자기 훑 들어온 질문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등 뒤를 돌아보자 지원이가 스케치북을 꼭 쥔 채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를 봤니?”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 말에 지원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얼굴이 제일 슬퍼 보였거든요. 우리 아빠의 제일 친한 친구니까 제일 슬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일곱 살의 어린 시선이 나를 어루만졌다. 철수를 닮은 그 눈빛이, 친한 친구라는 그 말이 철수를 대신해 나를 용서하고 인정해 주는 것만 같았다.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의 친한 친구란다. 제일 친한 친구지. 그리고 나쁜 친구란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내 손등 위에 덮으며 싱긋 웃었다. 그렇게 몇 초간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던 아이는 문득 뭔가를 떠올렸는지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아저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부탁이라니?”

“아빠한테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 주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 잠든 곳에 데려가 주질 않아요. 어딘지 알려 주지도 않아요. 아저씨는 알죠?”

아이는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 속엔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큰 사람은 ‘상장’이라고 적힌 흰 종이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고, 작은 사람은 ‘아빠 승진 축하해요.’라고 적힌 말풍선을 매달고 있었다. 겨우 가라앉힌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절로 떨리고 있

었다.

“와, 참 잘 그렸구나.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아저씨가 이걸 우리 아빠한테 전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아이의 작은 손이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 그렇게. 내가 책임지고 아빠한테 전해 주마.”

“아, 맞다. 잠깐만요.”

아이는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손뼉을 쳤다. 그러고는 벤치 위에 놓여 있던 녹색 크레파스를 쥐어 들더니, 그림 맨 밑에다 무어라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크레파스는 뽀뽀뽀뽀한 선들을 스케치북에 마구 새겨 놓았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아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그림과 글씨가 뿌연게 흐려졌다. 나는 눈가를 훑치고는 스케치북을 받아들였다.

“그래. 아저씨가 전해 줄게. 아빠도 아주 좋아하실 거야.”

나는 곧장 철수의 납골당으로 향했다. 나는 지원이의 스케치북을 들고 철수의 앞에 섰다. 환하게 웃는 철수의 얼굴을 오늘은 마주할 수 있었다. 여전히 미안한 감정이 터져 나왔지만, 오른손에 들린 선물을 핑계 삼아 애써 덮고 있었다.

“잘 지냈냐? 거긴 편하냐? 그렇게 도망가니까 속이 시원하냐?”

철수는 여전히 활짝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나쁜 짓을 하고 나니 회사에서는 완전 유명 취급하고, 너희 집사람은 더 바가지 굶었겠지. 하나뿐인 친구라는 놈은 외면하고 빛은 많고……. 많이 힘들 만도 했다. 그래도 인마, 그렇게 도망치는 건 좀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나는 작은 유리창을 열어 철수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철수는 여전

히 웃고 있었다.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유부단하고 미루기 좋아하는 놈인데, 좀 게으르지만, 겁도 많은 놈이었는데, 네가 오죽 절박했으면 뇌물을 돌렸겠냐. 내가 그렇게 널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넌 이미 가고 없는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점차 떨려 왔다.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겁도 많은 놈이 그런 무서운 선택을 했겠냐…….”

철수의 얼굴이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목이 따가워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말 대신 조용히 손에 들린 스케치북의 표지를 넘겼다. 지원이가 그린 예쁜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수의 사진이 담긴 액자 옆에 지원이의 그림을 올려놓았다. 지원이가 써 놓은 ‘아빠 승진 축하해요.’ 라는 글자가 철수의 얼굴 옆에 자리 잡았다.

“축하한다, 인마. 넌 이미 지원이에게는 7급이야. 아니, 6급이다. 승진 축하한다. 짜식아!”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이 아픈 것도, 눈물 콧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미안하다……. 철수야, 미안하다! 널 이해하고 다독여 주고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진작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줘야 했는데……, 미안하다! 힘든 너한테 질책하고 몰아붙여서 미안하다! 부디 나를 용서해 다오, 철수야!”

용서해 달라는 마지막 말이 낚골당 안에 메아리쳤다. 철수의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원이의 그림 속 철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액자에 비친 전등 불빛이 철수의 눈가에서 곱게 반짝이고 있었다.



다금바리

김정락

최용석 의원이 한식당 한다래에 들어간 건 오후 한 시 사십오 분이었다. 습도는 35%, 날씨는 그런대로 맑음. 오후 늦게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를 보좌관에게 전해 들은 건 식당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일이다.

그는 욕실 세면대에 서서 사십대 중반의 이선 의원에게 으레 보이게 마련인 자신감과 거만함이 적절히 버무려진 표정을 지어 보인 뒤 두 명의 보좌관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내내 김 회장과 한다래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할 말들을 준비해 두었지만, 왜인지 느긋하게 움직이는 게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야, 김정호. 천천히 가자. 대동여지도 만든다고 바쁘냐? 이럴 땐 조금 지체해 줘야 하는 거야. 안달 난 상대를 기다리게 해야 텐션이 만들어지지, 텐션~ 티. 이. 엔. 에스. 아이. 오엔 인마.”

뒷자리에 앉은 최용석은 운전 중인 정호의 시트 등받이를 구둑발로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권위와 농담이 적절히 배합된 훈계조의 말투였다. 용석의 말에 정호는 한 템포 늦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네네. 알겠나니까요”라고 대답했다. 조수석에 앉은 문재에게는 그 말이 흡사 네 그러시겠지요. 누구 말씀이신데 하듯 빈정거리는 말투로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정호의 불만스런 표정이 백

미러를 통해 용석에게 비쳐질 것 같아 걱정했지만, 다행히 용석은 보좌관의 표정 따윈 신경 쓰지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였다.

‘정호 저 새끼, 오늘 왜 저래.’

문제는 속으로 중얼댔다. 대학 졸업 후 만 삼 년째 국회의원 보좌관 자리를 전전하면서도 의원님의 비위 따윈 맞춰 줄 줄 모르는 정호의 모습이 문제에겐 항상 걱정스러웠다.

멀리 뛰려면 바짝 웅크릴 줄도 알아야지. 할 말이 있으면 말할 위치에 오를 때까지 참아! 말을 아끼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현명한 거야.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던 할아버지의 훈계를 되새겼다. 뻔한 말이었지만, 삼십삼 년이란 짧고도 긴 인생을 사는 동안 문제는 그 말의 힘을 누구보다 실감했다.

차가 한다래에 도착하자 최용석 의원은 조금 전과 사뭇 다른 정중한 모습으로 김 회장에게 인사했다. 결코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지 않겠다는 용석의 결의가 15도 이상 구부리지 않은 허리와 목의 각도에서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 치는 듯한 정호의 표정을 발견한 문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졸여야 했다.

최용석 의원이 VIP룸에 들어가 있는 동안 문제와 정호는 홀에서 갈비탕을 시켰다. 아랫것이 된 것마냥 홀에 앉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의원이 나오길 기다리는 이 상황이 보좌관에겐 매번 지랄 맞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개의치 않았다. 문제는 정호였다. 요즘 들어 정호는 뭔가 그렇게 불만인지 매사에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런 정호를 문제는 감시하듯 힐끔힐끔 쳐다봤다. 언제 저놈의 성질머리가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묵묵히 갈비탕 뚝배기를 휘젓던 정호가 숟가락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김 회장 저 사람 간도 커! 이 환한 대낮에 의원님 만나 어찌려고.

이미 주가도 움직이고 언론도 냄새를 맡았는데, 그럴 거면 진작 조처할 것이지 부도 직전에 비벼서 어찌게? 다 뉘지자고?”

“그만해. 안에서 듣겠다.”

“형은 그게 문제야.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몰라? 게다가 여기까지 온 의원님은 대체 무슨 꿍꿍이야?”

정호는 최용석 의원과 김 회장이 밀담을 나누고 있는 모란실 쪽을 힐끔 쳐다봤다. J건설이 부도 위기 상황이란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게다가 대주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정보가 퍼진 것도 이미 보름 전이었다. 증권가를 떠도는 찌라시도 기정사실인 양 그 사실을 보도한 후였다. 김 회장은 사태를 무마시켜 줄 정치적 구심점이 필요하다. 검찰 쪽과 줄이 닿는 의원을 매수하거나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물 타기라도 해서 상황을 호전시켜야 할 판이었다. 그러데 하필 그들이 내민 미끼를 최용석이 별 생각 없이 물어 버린 것이다.

“아서라.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쏘시든 말든 뭐 상관이야? 의원님 그렇게 바보 아니다. 괜히 이선 의원인 줄 아냐?”

문제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정호를 달래며 말했다.

“웃기고 있네. 당장 뒤탈 없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됐어. 갈비탕이나 치먹어!”

“형은 이 판국에 갈비탕이 입에 들어가? 누구는 VIP룸에서 안창살에 꽃등심이고, 누군 홀에서 개새끼마냥 뼈다귀나 뜯고. 우리가 아랫것이야? 지금 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정호가 물고 있던 갈비를 탁자에 패대기치며 말했다.

“치먹기나 해!”

문제는 정호를 향해 눈을 치켜떴다. 정호의 발언은 이미 위험 수

위에 달해 있었다.

“몰라 젠장!”

문재의 눈빛에 누그러진 정호는 뚝배기에 다대기를 듬뿍 집어넣은 후 설 새 없이 손가락을 휘저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홀은 한산했다. 홀 한쪽에는 황진이와 서경덕이 노닐던 박연폭포를 묘사한 화첩이 걸려 있고, 전통 기와를 얹은 팔작지붕 정자 옆으로 박연폭포를 연상시키는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웬만한 중상층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고급 식당의 정경이 정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둘은 묵묵히 뚝배기에 코를 박고 갈비탕을 먹었다. 최용석을 만나려는 김 회장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문재는 큰일을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다시금 되새기며 못 본 체하기로 마음먹었다. 따지고 보면 삼 년간 최용석의 수석보좌관을 맡으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 재작년 말 최용석의 대학 선배이자 삼선 의원인 이대길의 국회의원 비자금 사건에 연류되었을 때도 최용석은 천만다행으로 무혐의로 넘어갈 수 있었다. 사실 문재의 한마디면 최용석은 골로 갈 수도 있었다. 무혐의라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 용석은 결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었다.

“동기 좋다는 게 뭐냐. 어차피 이 바닥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냐. 특종감이 있으면 좀 몰아주라. 나도 요즘 국장 등살에 미치겠다.”

H일보 정치부 기자인 민수는 최용석의 행보에 수상한 냄새를 맡을 때면 매번 문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인마 최 의원 밑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잘돼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 바뀌면 우리 국장님이 널 청와대 비

서실에 추천해 줄 수도 있다니깐. 잘 생각해 봐.”

대학 시절부터 학생 운동에 가담해 온 민수였다. 그는 그 시절의 특기를 발휘해 진보 성향의 신문사 기자로 활약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는 매번 민수의 권유를 못 들은 걸로 했다.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의 미덕을 문재는 알고 있었다. 어쨌든 지금 정호는 최용석을 모시고 있으니깐. 주인을 물고 새 주인을 찾아간 개는 언젠가 사냥이 끝나면 솔에 삶기게 마련이다. 초나라가 망한 후 한고조 유방이 제일 먼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억울한 건 한신이 아니라 역심을 숨기지 못한 한신의 어리석음이다. 정호는 매번 고사에서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겨 왔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문재의 태도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앞뒤 재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버리는 문재의 불같은 성격에 눈치 없이 최용석의 비리를 언론에 터트리면 어쩌하나 하는 불안이 문재를 엄습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지 않은가. 한 번 눈감아 주면서 그 대가로 내가 불리할 때 사용할 카드가 한 장 생기는 셈이다. 결국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정호는 그런 융통성이 없다. 그럴 때면 후배인 정호를 최용석 의원의 보좌관으로 추천한 것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다.

삼십 분이 지났다. 용석이 들어간 모란실에는 몸에 착 달라붙는 유니폼을 차려입은 여종업원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정호와 문재는 하염없이 모란실을 쳐다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때 정호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액정에 찍힌 이름은 이대길 의원이었다. 문재가 눈짓하자 정호가 눈치 있게 스피커 모드로 전환 후 녹음 버튼을 눌렀다.

“용석이 옆에 있냐?”

이대길 의원의 목소리가 문재에게까지 전해졌다.

“아, 이 의원님, 저희 의원님은 지금 손님과 식사 중입니다.”

“그래? 누구? 거기 어딘데?”

“저기 누구냐 하면.”

정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뭔가를 고민하는 눈치였다. 스피커폰으로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문재의 이마에 진땀이 흘렀다. 최용석이 김 회장을 만난다는 걸 말해 버리는 순간 모든 게 엉킨 이어폰 줄처럼 꼬일 것이다. J건설은 두바이 호텔 공사 수주 문제와 더불어 주가 조작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이대길 의원에게 청탁해 왔다. 지난번 비자금 문제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이대길이 거절하자 이번엔 최용석을 만난 것이다. 이 사실이 이대길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최용석을 압박할 카드를 손에 쥐는 셈이다. 눈치 빠른 삼선 의원에게 이 정도 축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한다래는 J건설에서 운영하는 접대용 고급 식당이다. 한다래에 있다는 말만으로도 그는 모든 걸 눈치챌 것이다.

전화를 받는 정호가 문재를 힐끔 쳐다봤다. 문재는 두 손으로 가슴에 엑스를 그리며 눈짓했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바닥에서 영원한 아군은 없다. 이대길이 최용석의 약점을 아는 순간 문재가 그간 쌓아 놓은 모든 공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저, 그제.”

“뭔데? 어서 말해.”

이대길이 재촉했다.

“아니. 저.”

정호는 머릿속이 혼란한 듯 문재를 바라볼 뿐이다.

“뭐야? 왜 그래. 혹시 용석이 그 새끼?”

그때 문재가 정호의 수화기를 뺏어 들었다.

“아, 의원님. 사실은 저희 의원님이 핫카이도에 계십니다. 이거 말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도 난처하네요.”

핫카이도는 용석이 자주 찾는 림살롱이다. 그곳 에이스인 월령에게 최용석이 한창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대길도 알고 있었다.

“아 그래? 자식들 진작 말하지. 알았어. 용석이한테 내가 전화했다고 말해 줘.”

“네, 그럼요.”

“그리고 용석이한테 전해. 쓸데없는 데 너무 힘쓰지 말라고.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말이야. 뽀스를 잘 벗어야 돼. 아무 데서나 뽀스 함부로 벗으면 인생 골로 갈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대길이 뭔가를 눈치 채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대길은 혼잣말로 몇 마디 더 떠들더니 전화를 끊었다. 통화 종료음이 들리는 순간 문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정호를 쏘아봤다. 왜 그리 눈치가 없냐고 한소리 해 주고 싶었다.

“너 이 새끼…….”

욕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모란실의 미닫이문이 열리며 최용석이 고개를 내밀었다.

“야, 거기 문재! 이리 와 봐.”

최용석은 보좌관 중 아무나가 아니라 정확히 문재를 불렀다. 문재는 급히 인상을 풀고 VIP룸으로 뛰어갔다.

“이거 좀 가져가. 회장님이 이런 걸 다 주시네.”

용석이 넘겨준 건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박스였다. 내용물은 알 수 없지만, 박스에 든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트렁크에 넣어 뒀.”

용석의 말에 알겠다고 하며 박스를 들고 나가려는 찰나였다.

“야, 이리 잠깐.”

용석은 문재를 가까이 불러 귓가에 바짝 입을 대고 말했다.

“조심해서 다뤄야 해. 알지?”

“아, 네네!”

문재는 용석이 건넨 박스를 두 손으로 들고 나왔다. 애써 정호의 눈을 피해 조금 전 갈비탕을 먹던 테이블을 우회해 홀을 빠져나갔다. 정호는 그런 문재를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멍쩍게 눈이 마주치자 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간사한 새끼. 넌 형이라는 놈이 속도 없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문재는 박스를 차 트렁크에 넣었다. 박스는 묵직했지만 내용물을 정확히 짐작하기란 불가능했다. 어차피 김 회장의 진짜 의도는 내용물이 아니라, 내용물 사이에 있을 게 분명했다. 홀에 돌아왔을 때 문재는 정호를 쳐다보기가 불편했다. 문득 이대길 의원과 통화하던 정호의 태도가 생각났다.

“야, 너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의원님이 여기 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 뻔했냐?”

정호를 다그쳐야 할 문재의 목소리가 간신히 목구멍을 빠져나왔다. 문재의 마지막 발언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 이제 이 짓거리 그만할 거야! 하려면 형이나 실컷 해!”

정호에게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무슨 소리야? 너 정치 안 할 거야?”

“형은 저런 새끼들 똥꼬나 빨고 있는 게 좋아? 그까짓 정치가 뭐기에.”

정호가 문재에게 되물었다. 문재는 할 말이 없었다. 13년 전 정치 외교학과를 입학할 때부터 남들처럼 평범한 취업 따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터무니없었지만 국회의원이나, 하다못해 시

의원이라도 돼서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막연한 꿈도 있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 온 말이 정호를 세뇌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른들은 말해 주지 않았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 불의 앞에서도 통용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한 인내의 가치인지.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문재를 괴롭힌 건 막연한 공포였다. 몸에 맞지 않는 옷마저 자신을 저버린다면 문재는 알몸일 수밖에 없다. 올해 나이 서른셋. 정치를 그만두고 진로를 바꾼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다.

정호의 말에 문재는 치미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난 뭐 좋아서 이 짓 하나? 미친 새끼!”

“그럼 왜 하는데.”

“나도 의원 되려고 그런다. 인마.”

문재의 말에 정호는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정호는 매번 최용석에게 적소리 못하고 굽실대는 문재를 보면 짜증이 났다.

‘전라도 놈들 죄다 정치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대의 따윈 생각하지 못하는 쌍것들이지.’

지역감정이 배어 있는 어른들의 편견을 들을 때마다 정호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 좁은 나라가 왜 동서로 분리되어 험뜯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로 부딪칠 때면 정호는 문재가 어쩔 수 없는 전라디안이라 믿었다. 정호는 문재의 성향을 문제 삼을 때마다 어른들의 편견을 답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문재는 초등학교 때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 왔다. 따지고 보면 온전히 전라도 사람도 아니었지만, 문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지역적 편견과 버무려 문재를 어쩔 수 없는 전라디안으로 치부하곤 했다. 온갖 것들을 동원해 상대를 폄하해 버리는 인간의 본능이 자

신에게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정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것이 문재를 이해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건 문재도 마찬가지였다. 문재는 정호의 전형적인 경상도식 끈대 기질이 싫었다. 근대사를 피로 물들인 독재자들 모두 경상도 인간들이 아닌가?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호는 생각이 굳어 버린 노인네처럼 자기 안에 답습해 온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켜다. 정호는 사사건건 혼자 정의로운 척 온갖 비판을 일삼았다. 하지만 힘없는 정의는 무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거면 뭐 하러 보좌관 제의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보좌관의 기본은 의원을 모시는 것이다. 의원의 행동을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다. 한때 최용석은 둘의 우정을 보며 동서화합이라 별명을 붙여 주었다. 누가 동서고 누가 화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동서화합이었다.

정치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2학년 2학기 정치외교론의 실체 첫 수업. 정호는 혼자 빈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몇 번 얼굴을 마주치거나 인사 정도 해 본 선배나 후배 혹은 타과 청강생이 보이긴 했지만, 한창 어울리던 친구들은 모두 입대하거나 유학을 가 버렸다.

정치학을 가르치던 노교수는 칠판에 베르길리우스의 명구를 남기고 강의실을 떠났다.

‘악은 은폐에 의해서 자라난다.’

정호는 말없이 노트에 노교수가 적어 준 명구를 받아 쓰다 말고 볼펜으로 덧칠해 버렸다. 베르길리우스의 아포리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아이네이스를 써 위대한 시인으로 남았지만, 그가 칭송한 파스 로마나는 이민족을 억압해 쟁취한 폭력에 의한 평화에

지나지 않았다.

오후 늦게 시작한 강의가 끝난 건 창밖으로 막 해가 지기 시작한 뒤였었다. 해가 만든 책걸상의 긴 그림자가 강의실 구석구석 드리워지고 있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누군가 여전히 강의실에 남아 칠판에 적힌 명구들을 받아 적고 있었다. 시선을 느낀 남자는 고개를 돌려 손바닥으로 턱을 짚 채 해가 저무는 창밖을 바라봤다. 얼마 전 복학한 두 살 위의 선배인 문재였다.

“그래서 어떻게 건데?”

문재가 정호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뭘 하든 이 짓거린 싫어. 정치를 관두고 막노동을 하더라도 이 짓은 안 할 거야!”

정호의 눈빛은 진심인 듯했다. 그때 최용석이 김 회장과 웃으며 룸에서 나왔다.

문재는 별떡 일어나 목례를 했다. 정호도 마지못해 일어나 둘에게 인사했다. 김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문재와 정호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급히 홀을 빠져나갔다.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기사가 김 회장을 보자 급히 나와 뒷문을 열어 주었다. 올 때와는 달리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덩달아 최용석의 허리 역시 사라져 가는 차를 향해 잔뜩 구부러져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은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말없이 자신의 고개가 향한 곳만 응시할 뿐이었다.

“저게 뭡니까?”

운전을 하던 정호가 정적을 깨고 최용석에게 물었다. 백미러로 정호의 정색한 얼굴이 드러났다.

“저거? 뭐?”

갑작스러운 행동에 문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미친 새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트렁크에 넣은 스티로폼 상자요.”

정호가 최용석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니가 알아서 뭐하게?”

최용석이 대꾸했다.

“뭘지나 말해요!”

정호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문재는 정호와와 인연이 여기까지라는 걸 직감했다.

“왜 어찌려고? 너도 먹고 싶냐?”

“아 말해 보라니까요.”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정색하고! 다금바리다 왜? 제주도 직송 다금바리. 김 회장 고향이 제주도라서 가져왔단다. 예사로 못 사 먹을 만큼 비싼 생선이얌마!”

용석의 뜻밖의 말에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문재의 등줄기로 흘러내린 땀은 어느새 식어 서츠를 적셨다.

“됐어. 인마.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다금바린지 닭한마린지 회나 떠 먹자고.”

문재의 예상과 달리 최용석은 털털하게 웃으며 시트 깊이 몸을 묻었다. 문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용석의 표정에 숨겨진 미묘한 표정의 의미를 읽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읽어 낼 수 없었다. 삼선 의원이든 사선 의원이든 보좌관에게 뒤통수를 노출한 의원은 뒤가 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최용석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 그 자식. 그렇게 뚱은 표정을 짓고 싶으면 가서 트렁크 열어 보든가?”

최용석이 소리쳤다.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최용석의 표정이 문재

와 정호의 숨통을 죄여 왔다. 정호는 차마 트렁크를 열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문재의 등줄기를 스쳤다. 정확하진 않지만, 문재와 정호는 서로 다른 형태의 공포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쩌면 최용석은 이미 그걸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동서화합을 언급할 때부터 그는 문재와 정호를 의도적인 갈등 상태로 방치해 둔 건지도 모른다. 문재와 정호의 갈등은 결국 최용석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길 의원에게 연락 온 거 없어? 그 사람 축이라면 지금쯤 전화 오고도 남았을 텐데. 아무튼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해. 시간 되면 다른 의원들도 부르고. 간만에 다 같이 회포를 풀어 보자고. 하하.”

최용석은 오랫동안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자동차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문재는 백미러와 정호의 옆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름 한복판의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던 도로엔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초리

지승룡

그 택배가 집에 도착한 것은 추석 전날이었다. 회사에 마무리할 일이 남아 있던 나는 명절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퇴근했다. 저녁 때 집에 오니 어머니는 내 앞으로 택배가 왔다고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인 상자를 내밀었다.

보낸 사람은 K기업 김명수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주요 거래처 담당이었다. 김 부장 정도의 직급은 주로 부서의 과장급들이 상대하고 있어서 신입 사원인 나와는 안면 정도만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한테까지 선물을 보내다니 뜻밖이었다. 그때서야 얼마 전 주소를 묻는 문자에 무심코 답신한 것이 떠올랐다. 이런, 선물을 보내려고 그랬던 거군. 다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부서 사람들 다 받았거니 생각하며 포장을 풀었다.

상자를 열어 보니 값이 꽤 나감직한 한우 갈비 세트가 들어 있었다. 내가 상자를 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특상품 한우 갈비가 들어왔다고 무척 좋아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참 오랜만에 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데 다니니까 명절에 이런 것도 들어온다며 갈비 상자를 안고 냉장고 쪽으로 가면서 웃음 띤 표정으로 말했다.

“잘 먹을게, 아들~.”

어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니 덩달아 나도 으쓱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세 살 위의 누나, 그리고 내가 있다. 아버지는 고지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융통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항상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다. 젊을 때부터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일한 분이라 친척들은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다정다감한 전통적인 여인으로 언제나 좋은 것은 다른 식구들에게 양보하신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늘 잘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딘지 모르게 어려워한다. 누나는 작년에 결혼했다. 일 년 남짓 됐으니 아직 신혼이지만,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지 한 십 년쯤 된 부부 같아 보인다. 맞벌이하느라 아직 아이는 없다. 나는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수의 기업 구매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다음 날 점심때였다. 누나와 매형이 와서 식구들은 밥상 앞에 앉았다.

“박 서방, 그래 사돈 어르신들은 무고하시고?”

“네, 덕분에 건강들 하세요.”

“사돈덕에선 차례만 지내고 간다고 섭섭해하시지는 않던가?”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아침 먹자마자 가라고 하시는 걸 몇 시간 더 놀다 왔는걸요.”

젓가락을 열심히 놀리며 누나가 내게 묻는다.

“상우야, 회사는 좀 어때? 힘들진 않고?”

“힘들긴 하지만 할 만한데, 구매 파트라 그런지 일이 많긴 많더라.”

“처남은 든든한 직장도 잡았겠다, 이제 여자만 잡으면 되겠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참한 여자 있으면 자네가 좀 소개해 주고 그 래. 재가 숙맥 같아서 아직 여자 친구도 없어.”

“아이고, 어머니. 처남 얼굴을 좀 보세요. 저 인물에 여자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모르긴 몰라도 처남 좋다고 쫓아다니는 아가씨 여 러트 있을 겁니다. 어찌면 요 문밖에도 한 명 와 있을지 모르죠.”

매형의 농담에 식구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평화로운 명절 오후 였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갈비를 먹던 아버지가 하나를 더 집어 와 앞접시에 놓으며 말했 다.

“이 갈비 정말 맛있네. 이런 거 비쌀 텐데 뭐 하러 사 왔니?”

“아네요, 아빠. 저희가 사 온 거 아니에요.”

누나의 대답에 놀란 아버지가 엄마를 쳐다보자 엄마는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깔며 대답했다.

“상우네 회사 거래처에서 보냈나 봐요.”

“역시 좋은 회사 다니고 볼 일이네. 우리 집은 기껏해야 햄 선물 세트인데…….”

누나의 말은 무시하며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거래처에서 받은 거냐?”

“네, K기업이라고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납품받는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 다.

“명절이면 다들 돌리고 받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 감사했다 고…….”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지며 손가락을 소 리 나게 상에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느낌이었다. 대체 갑자기 왜 저러시지? 갈비 받았다고 저러시는 건가? 명절 때 선물 주고받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저리 민감하시지?

“상우, 이리 들어와라!”

안방에서 아버지의 노기 띤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망설이다 방문을 열었다. 방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 고, 그 앞에 회초리가 놓여 있었다.

“너 이리 와 종아리 걷어라.”

아버지는 건조한 음성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설마 갈비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럼 너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는 게 옳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건 관행이죠. 여태까지 늘 그래 왔던 거고,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받으면 다음에 그 회사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니?”

“아버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긴 말 하고 싶지 않다. 어서 종아리 걷지 못해!”

여태까지 이렇게 화가 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가 명절 선물 때문에 이러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해 봤지만, 결국 아버지의 위세에 눌러 종아 리를 걷고야 말았다. 종아리에 닿은 회초리가 서늘한 촉감으로 다 가왔다.

나는 그날 난생처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이를 악다문 채 그저 내 종아리만 내리칠 뿐이었다. 나는 이유도 납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 또 맞았다.

그날 밤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점심때의 그 사건 때문에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누나는 매형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난데없는 매질에 화가 난 엄마는 진작 외출했기 때문에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필시 아버지일 것이었다. 왜?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더 때리려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한 것 같으니 사과라도 하려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저녁때가 됐으니 밥을 차려 달라는 것일까?

눈도 맞추지 않은 채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외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나랑 잠깐 나가자.”

아버지와 나는 동네 초입에 있는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다. 명절이라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았지만, 이 포장마차는 오늘도 장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갖는 술자리는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소주부터 털어 넣었다. 평소 아버지의 음주 습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이 자리가 무척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연거푸 소주 두 잔을 마신 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상우야,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네 엄마도 모르는 일이다. 나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은 과거지만, 너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소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처음 주어진 일은 건축물의 소방 시설 점검 업무였다. 현장을 방문해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해진 안전 기준에 따라 방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위험

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도하는 일이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시설 개보수 공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소방 설비가 부실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 데다 그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돈으로 구워삶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돈맛을 들인 것이었다. 상사를 따라다니며 술을 얻어먹고 찢러주는 돈 봉투를 못 이기는 척 받아 챙기다 보니 그게 나쁜 거라는 인식이 무뎠던 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은 말썽만 생기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어 그 달콤한 생활에 한동안 젖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대피로가 막혀 있는 데다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규모에 비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얼마 전 소방 설비 점검을 통과한 건물이었는데 말이다. 그 후 경찰 수사 결과 소방 점검 통과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건물주와 아버지의 상사는 구속되었다. 아버지는 구속은 면했지만, 벌금형을 받고 파면되고 말았다. 그 후로 아버지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었고,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아버지는 목이 타는지 다시 소주를 입에 털어 넣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알궂기도 하더구나…….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나 내가 좀 늦은 나이에 맞선이란 걸 보게 되었다.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했지만, 집에서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선 자리였다. 다방에 들어서니 한눈에도 맘에 안 드는 아가씨가 나왔더구나. 난 대충 시

간을 때우다 헤어질 생각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주변이 없어 무슨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라도 해야 겠기에 그 당시에 호구 조사라고 불렀던 문답을 했었다.”

아버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회상에 젖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지루한 호구 조사를 통해 그 아가씨가 어디 살고 있고, 고향이 어디며,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식구 수와 형제자매의 나이와 직업, 아가씨의 취미와 특기 같은 궁금하지도 않은 잡다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대화 중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 그건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5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캐물은 끝에 아가씨의 아버지가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아가씨는 공허한 표정으로 무심하게 말했다.

“아시죠? H백화점 화재 사고. 그때 소방공무원들이 뇌물 먹고…….”

순간 아버지는 망치로 머리통을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아, 네……. 알다마दा요. 거긴 내가 눈감아 준 바람에 화재가 일어 난 바로 그 현장인걸요. 아주 잘 알지요. 내 앞에 앉아 있는 아가씨, 당신의 아버지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나는 가장을 빼앗아 당신의 가정을 파괴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벌금형을 받고 파면을 당했던 때 느꼈던 수치심이나 모멸감과와는 다른,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가씨에게 사죄하는 대신 평생을 이 여자에게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

그 후 결혼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아버지의 태도에 아가씨와 그 가족들은 미심쩍어했지만,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다.

“짐작했겠지만 그 아가씨가 바로 네 엄마다. 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엄마와 처갓집 식구들을 대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난 쓰레기였다. 젊은 시절 그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 온 이 애비를 봐라. 네가 거래처에서 갈비를 받고 봉투를 받고, 나 중엔 더 큰 부패 사건에 휘말려 인생을 망치는 꼴을 볼 수 없어 오늘 난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내가 오래전에 맞았어야 할 회초리밖에 없구나. 난 그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미련하고 불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편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작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큰 것이었고, 크게 생각했던 것이 작은 것이었다는 걸. 상우야! 떳떳하다는 것은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남들을 보지 말고 너 스스로를 돌아보거라. 그러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날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오며 난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넓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젊은 날의 실수를 거울삼아 마침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만회하려 한 한 남자의 모습이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난 슬며시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

여기까지가 아버지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비밀의 이야기다. 그날 아버지와 단둘이 가진 술자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추석이 지나고 얼마 후 아버지는 덜컥 자리에 눕더니 결국 이듬해 봄빛이 곱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려 한다. 그건 아버지의 부탁이기도 하거니와 그분의 인생을 건 속죄를 지켜 주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젊은 날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내린 종신형을 통해 참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으셨다. 종종 늦은 밤 퇴근길 동네 초입의 그 포장마차에 불이 켜져 있을 때면 나는 불쑥 포장을 들추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다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술잔을 내밀 것만 같다.